

기본연구보고서 2008-15

# 性認知관점을 활용한 여성정책 발전 방향과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aejeon Women's  
Policy and Development Plans

주 혜 진



연구책임

• 주혜진 /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 따른 여성 현황 분석과 정책 점검 및 제안이 필요하다.
-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 관련 종합 계획으로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2)을 거쳐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시행되었다.
- 대전광역시의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10대 핵심과제와 34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여성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인 여성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와 면접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대전 여성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여성정책 추진 상황을 분석하였다.
- 면접설문조사는 대전시 소재 여성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제안 사항, 그리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민간여성단체 대표 및 실무자, 공무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이 3회에 걸친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 ■ 대전 여성 현황

-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47.3%로 2003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 대전의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5.4%이며, 이 중 상용은 31.8%, 임시는 32.5%, 일용은 11.1%이다.
- 대전 여성의 학사학위의 경우 2000년 47%에서 2005년 49.9%로 증가하였다. 석사학위는 2000년 24.9%에서 32.9%로 빠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박사학위는 2000년 19.9%에서 2005년 20.7%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004년 전국의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은 21.6%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2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23.1%, 남성이 25.7%로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경험이 조금 더 높았다.
- 대전 여성의 평균수명은 1995-2000년 79세, 2000-2005년 80.6세로 남성 평균수명에 비해 6.7세, 6.5세가 높은 편이다. 전국 여성의 평균수명에 비하면 0.2세, 0.1세가 높고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 여성 평균수명보다 높은 편이다.
- 2006년 12월 현재 대전의 보육시설은 1,0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등 6가지로 구분 되는데, 대전의 경우 가정 보육시설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개인 보육시설 33.9%, 법인 보육시설 4.1%, 국공립 보육시설 2.7%, 민간 법인의 보육시설 2.4%, 직장 보육시설 1.3%, 부모협동 보육시설 0.1%순이었다.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전의 여성 공무원 가운데, 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과 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4.5%로 전국 평균 28.7%보다 낮았다.
- 2006년 자치단체별 전국 위원회수는 1,109개이다. 대전은 8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여성위원은 400명으로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대전의 여성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여성단체 수는 총 34개이고

그 중 사단법인이 20개, 사회단체가 3개, 공법단체가 1개, 기타가 10개이며, 여성발전기금을 통하여 2007년 현재 총 17개 사업 72,62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 ■ 대전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2001년 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008년 현재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여성 취업과 사회 참여 증대,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보급, 성별영향평가 실시,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지난 5년간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지도자 유성 캠프를 비롯하여 세미나 및 지도자 아카데미 등이 개최되었으며, 대전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여성인적자원개발, 복지와 인권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부담, 평등문화의 정착 영역에 있어 여성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수 사업으로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 전문가집단 설문 조사 결과

- 대전광역시 소재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공무원 포함) 220명이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은 분야별 여성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분야별 여성 정책 수요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책 홍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 응답자 전문가들은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예산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 여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요소로 중앙과 지방 간 협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 전문가들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내용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로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꼽았으며, 모성의 보호 및 직장 가정의 양립 지원 과제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 ■ 여성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 정책 계획과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및 정책 수혜 당사자에 대한 정책 홍보와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 기반을 갖추고 다른 영역의 과제들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여성 정책 과제들과 취약한 과제들을 접목한 새로운 과제의 발굴이 요구된다.
-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한 성별 분리 통계 활용의 정착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 여성 고급 공무원 비율의 제고 및 각종 정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활성화가 지적되었다.
- 여성정책 추진 체계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 .....	3
1. 성인지 관점 .....	3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	6
1. 연구방법 .....	6
2. 연구 추진 과정 .....	7
<b>제2장 대전 여성의 현황</b> .....	<b>11</b>
제1절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와 인적자원의 활용 .....	11
1. 대전여성의 경제활동 .....	11
2. 양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 .....	20
제2절 여성인적자원 개발 .....	27
1. 양성평등한 교육 여건 조성 .....	27
2. 여성 교육과 취업 .....	29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	35
4. 여성의 평생 교육 .....	41
제3절 여성복지와 인권 .....	43
1. 보육 .....	43
2. 사회보장 및 복지지원 .....	50
3. 한부모 가정 .....	58
4. 여성장애인 .....	60
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	62
제4절 정책결정에의 여성 참여 .....	64

1.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	64
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보 .....	67
3. 여성정치인 양성 .....	68
4. 여성의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	69
<b>제3장 대전의 여성정책 .....</b>	<b>78</b>
제1절 여성정책의 흐름 .....	78
1.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	78
2. 대전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	79
제2절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	80
1. 제2차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	80
2. 여성정책 추진체계 .....	85
3. 여성정책 예산 및 여성발전기금 .....	87
4. 기타사항 .....	90
제3절 여성정책 추진 현황 .....	90
1. 성인지력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	91
2.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적 역량 강화 .....	94
3.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	100
4. 돌봄의 사회적 지원 .....	106
5. 의사결정에의 참여 확대 .....	111
6. 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확대 .....	114
7. 지역 특수사업 .....	120
<b>제4장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 분석 .....</b>	<b>125</b>
제1절 설문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 .....	125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126
1. 전문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26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인지도 .....	128
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34개 정책과제 성과평가 .....	130



4. 여성정책 발전 방향과 정책 수요 .....	140
<b>제5장 여성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b>	<b>150</b>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의 특성 .....	150
제2절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	151
1. 전문가집단의 정책 평가와 그 함의 .....	151
2. 여성정책 발전 방향과 과제 .....	155
<b>참고문헌 .....</b>	<b>158</b>
<b>부 록</b>	
부록 1. 설문지 .....	161
부록 2. 조사결과표 .....	175
부록 3. 자문회의 기록 .....	210
부록 4. 대전여성 현황 통계 .....	236

## - 표 목 차 -

<표 1-1> 연구 추진 과정 .....	8
<표 2-1> 대전의 성별 연령별 실업자 및 구성비 .....	13
<표 2-2>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2007) .....	16
<표 2-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2007) .....	17
<표 2-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07) .....	19
<표 2-5> 월평균 임금 총액 및 여성 임금비 .....	21
<표 2-6> 대전여성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총액 및 여성 임금비 .....	22
<표 2-7> 성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	28
<표 2-8> 대전지역 전공분야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	32
<표 2-9> 여성 교장·교감 현황(2006) .....	33
<표 2-10> 7대 광역시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2006) .....	34
<표 2-11> 대전지역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추이 .....	34
<표 2-12> 고학력 여성 학위취득 현황 .....	36
<표 2-13> 전공별 여성 석·박사학위 취득률(2007) .....	37
<표 2-14> 대전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현황 (2005) .....	38
<표 2-15> 연구개발주체별 성별 연구원 분포 현황(2004-2005) .....	39
<표 2-16> 성별 과학기술연구원 수 추이 .....	40
<표 2-17>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및 교육이수일수(2004) .....	42
<표 2-18> 전국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	43
<표 2-19> 대전시 구별 보육시설 현황 .....	44
<표 2-20> 전국 보육아동 현황 .....	46
<표 2-21> 보육시설 종사사수 현황 .....	47
<표 2-22> 보육시설 종사사수 현황(유형별) .....	47

<표 2-23>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율 .....	55
<표 2-24> 대전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	57
<표 2-25> 여성복지(생활)시설 인력(종사자) 현황 .....	57
<표 2-26> 대전 모·부자 가정 현황 .....	58
<표 2-27> 대전 연도별 한부모가족 추이 .....	58
<표 2-28> 한부모 복지시설 현황 .....	60
<표 2-29> 2007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	61
<표 2-30>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2007) .....	63
<표 2-31>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현황(2007) .....	63
<표 2-32> 시도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64
<표 2-33> 대전의 여성공무원 직급별 비율(2005~2007) .....	65
<표 2-34> 시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	67
<표 2-35>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2006) .....	67
<표 2-36> 지역별 민선5기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	69
<표 2-37> 대전 여성단체 현황 .....	70
<표 2-38> 대전 여성단체의 협의회 가입현황 .....	70
<표 2-39>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	71
<표 2-40> 여성발전기금 년도별 지원현황 .....	71
<표 2-41> 여성단체 활동 현황 .....	72
<표 2-42>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	73
<표 2-43>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분야 .....	75
<표 3-1> 제2차 대전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	80
<표 3-2>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의 인력현황 .....	86
<표 3-3> 2006-2008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예산 현황 .....	88
<표 3-4> 여성발전·복지기금 년도별 지원현황 .....	89
<표 3-5> 2007년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실적 .....	91
<표 3-6> 2003-2007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실적 .....	92
<표 3-7> 공직자 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	93
<표 3-8> 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 교과 운영 현황 .....	94

<표 3-9> 2003-2007 여성 창업 지원 추진성과 .....	95
<표 3-10> 2003-2007 여성 정보화교육 실적 .....	96
<표 3-11> 2007년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 .....	97
<표 3-12> 문화관광해설사 여성인력 활용실적 .....	98
<표 3-13> 2007년 여성 평생 교육 지원 추진 상황 .....	99
<표 3-14> 2003-2007 여성 보건의료 사업 추진 실적 .....	100
<표 3-15> 2003-2007 모성건강 지원 사업 추진실적 .....	101
<표 3-16> 2003-2007 한부모 가정 지원 추진실적 .....	102
<표 3-17> 2003-2007 장애인 복지시설 및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기관 .....	103
<표 3-18> 2003-2007 가정·성폭력 상담 시설 운영 현황 .....	104
<표 3-19> 2003-2007 가정·성폭력 예방 활동 상황 .....	105
<표 3-20> 2003-2007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추진실적 .....	105
<표 3-21> 2003-2007 성매매 예방 활동 추진실적 .....	106
<표 3-22> 2003-2007 보육서비스 개선 추진 상황 .....	107
<표 3-23>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확충실적 .....	108
<표 3-24> 2007년 여성 농업인 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	109
<표 3-25> 2003-2007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실적 .....	110
<표 3-26> 2003-2007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실적 .....	110
<표 3-27> 2003-2007 직장보육시설 확충실적 .....	111
<표 3-28> 2007년 여성의 정치 참여 지원 현황 .....	113
<표 3-29> 2003-2007 여성정치 참여 확대 사업 추진 실적 .....	113
<표 3-30> 양성평등문화 확산 운동 현황 .....	114
<표 3-31> 2003-2007 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	115
<표 3-32> 2003-2007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추진 상황 .....	116
<표 3-33> 2003-2007 자원봉사자 지원 상황 .....	117
<표 3-34> 2003-2007 여성단체 지원 현황 .....	118
<표 3-35> 2003-2007년 여성단체 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 .....	119
<표 3-36> 2003-2007 여성단체 참여 현황 .....	119

<표 3-37>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연도별 추진 현황 .....	121
<표 3-38> 2007년 여성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현황 .....	122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27
<표 4-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	129
<표 4-3>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	130
<표 4-4>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	132
<표 4-5>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	133
<표 4-6>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134
<표 4-7>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	135
<표 4-8>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	136
<표 4-9>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137
<표 4-10>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138
<표 4-11>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	139
<표 4-12>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140
<표 4-13>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요소들의 필요정도 .....	143
<표 5-1>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시행 시 관련자의 의견 반영 정도 .....	152
<표 5-2> 여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해당 부처나 부서의 시민이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홍보정도 .....	153

## - 그림 목 차 -

[그림 1-1]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이론적 틀 .....	4
[그림 2-1] 대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현황 .....	11
[그림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대전) .....	12
[그림 2-3] 대전의 연령별 취업자 구성비(2007) .....	14
[그림 2-4] 대전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	14

[그림 2-5]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대전, 2007) .....	15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대전, 2007) .....	17
[그림 2-7]	직업별 취업자(대전, 2007) .....	20
[그림 2-8]	여성 취업 장애요인(대전여성) .....	23
[그림 2-9]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대전여성, 대전남성) .....	24
[그림 2-10]	임금에 대한 만족도(대전여성) .....	24
[그림 2-11]	인사관리 만족도(대전여성) .....	25
[그림 2-12]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인식(대전여성, 대전남성) .....	26
[그림 2-13]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 만족도(대전여성) .....	26
[그림 2-14]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대전) .....	27
[그림 2-15]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인식(대전) .....	29
[그림 2-16]	대전지역 대학재학 여학생 비율 .....	30
[그림 2-17]	대학·대학원 재학 계열 여학생 비율 .....	30
[그림 2-18]	성 및 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대전, 2006) .....	31
[그림 2-19]	대전지역 여교원수의 변화 .....	33
[그림 2-20]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대전, 2006) .....	35
[그림 2-21]	대전 고학력 여성 학위취득 현황 추이 .....	36
[그림 2-22]	대전지역 대학 여교수 현황 .....	40
[그림 2-23]	대전지역 대학교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	41
[그림 2-24]	성별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2004, 대전) .....	42
[그림 2-25]	대전시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	44
[그림 2-26]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	45
[그림 2-27]	대전시 보육아동현황 .....	46
[그림 2-28]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	48
[그림 2-29]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	49
[그림 2-30]	시간연장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	50
[그림 2-31]	대전여성 기대수명 추이 .....	51
[그림 2-32]	시도별 여성의 기대수명 추이 .....	52
[그림 2-33]	대전지역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 추이 .....	53

[그림 2-34]	국민연금 급여종류별·성별 지급비율(대전, 2006) .....	54
[그림 2-3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	56
[그림 2-36]	모자보호 수용시설 및 수용현황 .....	59
[그림 2-37]	대전시 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2006) .....	60
[그림 2-38]	전체 및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	66
[그림 2-39]	18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68
[그림 2-40]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대전여성, 2006) .....	74
[그림 3-1]	대전광역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 .....	80
[그림 4-1]	조사 설계 .....	125
[그림 4-2]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1순위 .....	141
[그림 4-3]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2순위 .....	142
[그림 4-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1순위 .....	145
[그림 4-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2순위 .....	146
[그림 5-1]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34개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과제 top 7 .....	154

# 제 1 장

---

## 서 론

.....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

### 1. 성인지(性認知)적 관점

개인의 성정체성 (gender identity)에 따른 사회적 역할 기대와 의무는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동시에 사회 체계를 구성하고 사회 각 영역의 인간 활동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性)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 기대 (gender roles)는 일상의 삶에서만 아니라 국가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성인지적 (gender-cognitive, gender-sensitive) 관점의 출발점이다. 공공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책과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그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은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의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용하고, 정책 사업의 결과도 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며, 수행하는데 있어 정책 수혜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독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묵인하게 되면 정책과 사업 수행 결과의 수혜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의도하지 않게 정책 시행 결과가 기존의 성차별적 관행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즉 성을 인지해야 하는 상황, 성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게 되면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혹은 불공정한 성차별적 관행을 재생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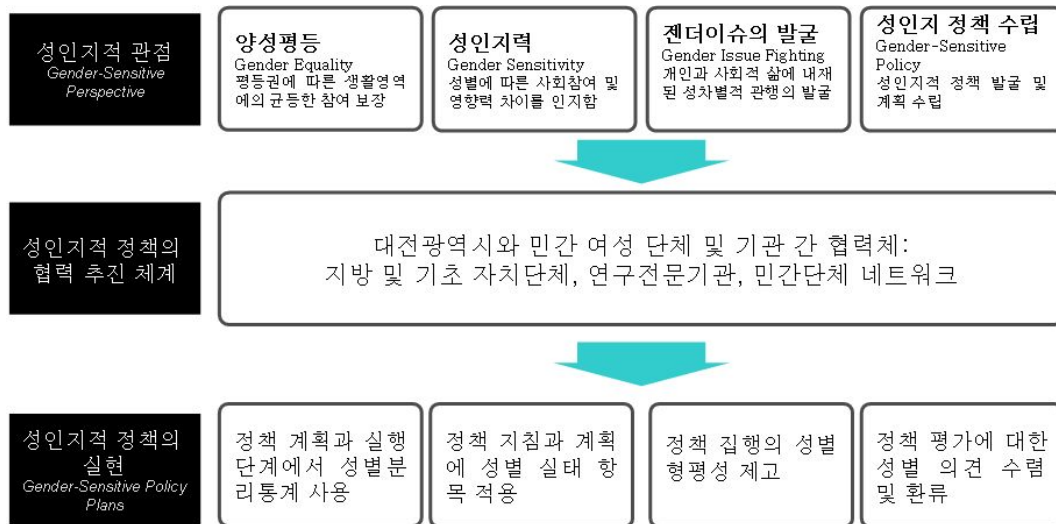
성인지적 관점 관련하여 강조되는 개념들에는 앞서 논의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역할 개념뿐 아니라,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Gender Sensitivity) 등도 있다. 양성평등은 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고정관념이 개인을 구속하거나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관행을

억제하며, 자유롭게 개인이 지닌 자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성인지력이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렬함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다른 대우를 받고 및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욕구,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가진다고 보고, 특정 관습이나 제도, 행위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이론적 틀



성인지적 관점은 양성평등에 대한 신념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등한 분배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성별과 관련한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 이론적 기저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출발점은 관 주도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여성단체나, 관련 시설,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력 없이는 구체적 행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 성별분리 통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집행과 평가에 있어 성별에 따른 부당한 관행은 없는지 살피는 일은 민과 관의 협력적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성인지적 관점은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정책 기획과 실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 근거하여 대전여성의 현황 및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과 실태 파악, 여성정책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현 여성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리고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각 시·도의 자치단체에서도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8-2002)의 단계를 거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2007)을 시행하였으며,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 관련 종합 계획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도구이자 정책관리 능력 제고의 수단이다.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은 다른 영역의 정책과제들에 비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심을 덜 받는 현실을 볼 때,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과 그 개선 사항을 점검해 보는 본 연구는 여성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성의 지위 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여성사회 참여 및 여성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

적으로 한다. 대전시 여성의 사회적 특성과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여성정책의 실행과 효과를 점검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향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보고서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전광역시 여성의 현황을 경제, 교육, 보육, 인권과 복지, 정치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 정도와 현황 등을 기술한다. 둘째, 대전광역시 여성 정책의 발달 과정과 추진 체계, 그리고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기간(2003~2007) 동안 추진된 경제, 교육, 보육, 인권, 정치, 양성평등문화 영역의 여성 정책 추진 상황을 파악한다. 셋째, 대전의 여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 수요도 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그 함의를 분석한다. 넷째, 전문가 집단의 정책 수요도 및 여성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 정리하여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변화하는 대전 여성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새로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대전시 여성정책의 성인지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대전 여성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및 각종 공공기관, 여성정책연구원 및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성관련 연구원,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헌을 통하여 대전 여성의 인구학적 현황, 고용 및 임금 등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 공교육 수혜 현황 및 평생교육 수혜 현황,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수혜 현황, 요보호 여성 및 취약여성 현황, 그리고 여성의 정치 활동 참여 증가와 대표성 제고 현황 등을 파악하였

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얻어, 대전광역시에서 지난 5년간 시행된 여성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대전시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이 깊은 정책들을 추려내고, 그 추진 성과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여성 정책 예산 운용 실태와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문헌과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소재 여성 관련 시설 및 기관(공공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교육 받은 조사원에 의해 개별 면접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220명의 전문가가 설문해 응답해 주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으로 완료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가 세 차례 개최되었다. 1차 자문회의는 7월 9일에 개최되었으며,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여성 단체 및 시설, 그리고 정부 위탁 사업 수행 기관장들이 참석하였다. 2차 자문회의는 7월 22일에 개최되었으며, 대전광역시와 구, 동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3차 자문회의는 9월 17일에 개최되었으며, 학계의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2. 연구 추진 과정**

연구 계획의 수립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 추진 과정

추진일정 주요내용	( 11 ) 개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내외 자료수집	○	○											
설문조사도구 개발		○	○	○									
설문조사 준비 및 실시					○	○							
조사자료 분석					○	○	○	○					
보고서 작성									○	○	○		
연구 협의 주요 일정 (자문회의♠ 최종보고☆)	♠						♠		♠	☆			

## 제 2 장

---

### 대전여성의 현황

---

제1절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와 인적자원의 활용

제2절 여성 인적자원 개발

제3절 여성인권과 복지

제4절 정책결정에서의 여성 참여

---

## 제 2 장 대전여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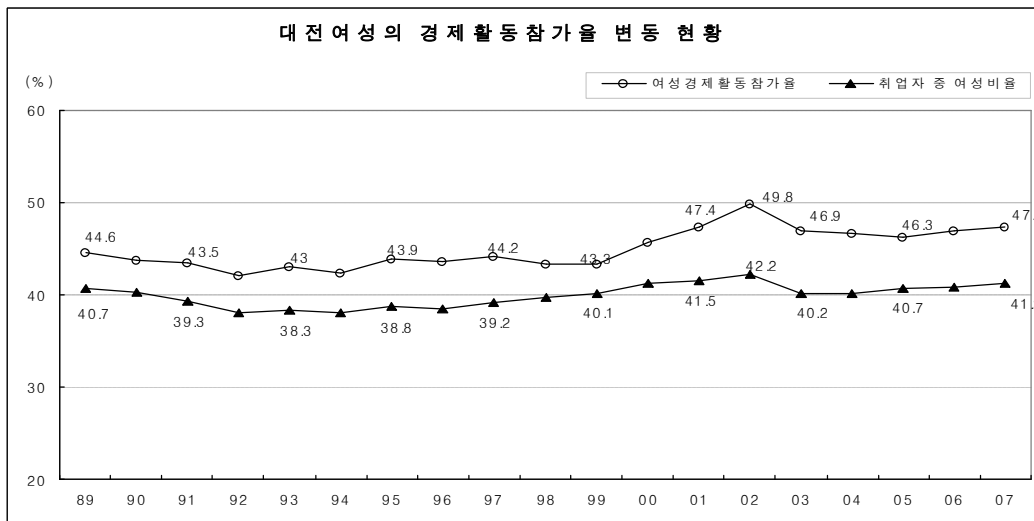
### 제1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인적자원의 활용

#### 1. 대전여성의 경제활동

##### 1) 대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대전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3%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1.1%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에 있고 아직까지 취업자 중 여성비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대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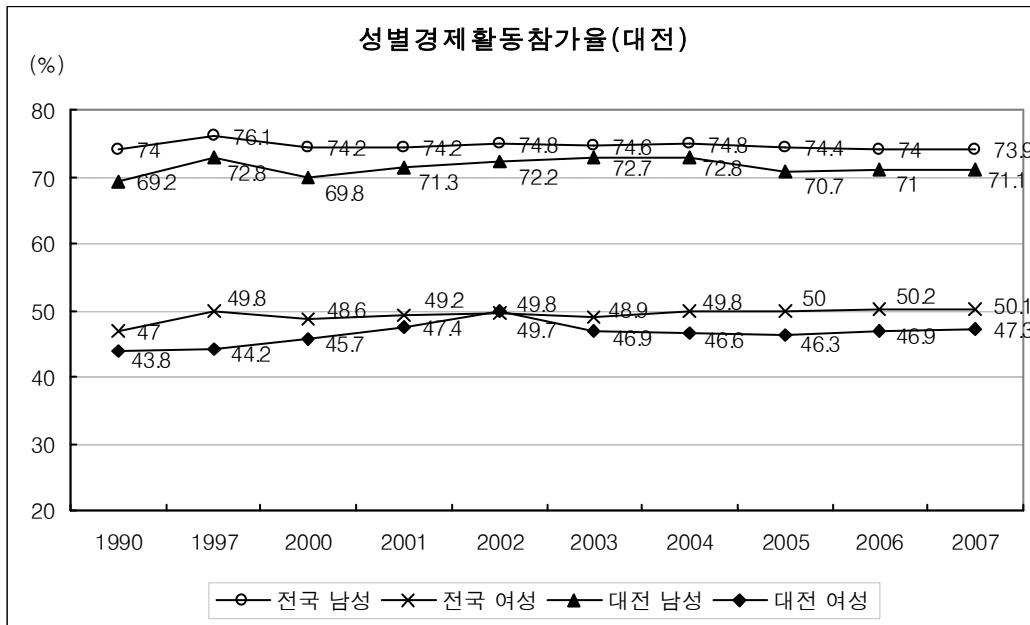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주 : 구직기간 1주 기준



200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보다 전국은 0.3%p, 대전은 3.1%p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보다 전국은 2.2%p, 대전은 1.7%p 감소하였다. 대전여성이나 남성 모두 전국 경제활동참가율보다는 낮은 상태이다.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전국평균(49.7%)보다 높은 49.8%를 정점으로 하여 2003년에 46.9%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07년 현재 다시 상승하였다.

**[그림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대전)**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주 : 구직기간 1주 기준

대전지역의 남자 실업자는 2003년 14천명에서 2007년 19천명으로 2004년부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실업자 구성비는 2003년 46.2%에서 2007년 34.5%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 비중이 2004년 53.6%로 절반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7년 현재 4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 2-1 > 대전의 성별 연령별 실업자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성별	남성	19(65.5)	19(65.5)	16(61.5)	14(53.8)	17(60.7)	18(60.0)	19(61.3)	19(65.5)
	여성	10(34.5)	10(34.5)	10(38.5)	12(46.2)	12(42.9)	12(40.0)	12(38.7)	10(34.5)
연령별	15-29세	15(51.7)	15(51.7)	13(50.0)	11(42.3)	15(53.6)	14(46.7)	14(45.2)	13(44.8)
	30-59세	14(48.3)	13(44.8)	12(46.2)	14(53.8)	13(46.4)	15(50.0)	16(51.6)	15(51.7)
	60세 이상	0	1	0	0	1	1	1	1
전체		29	29	26	26	28	30	3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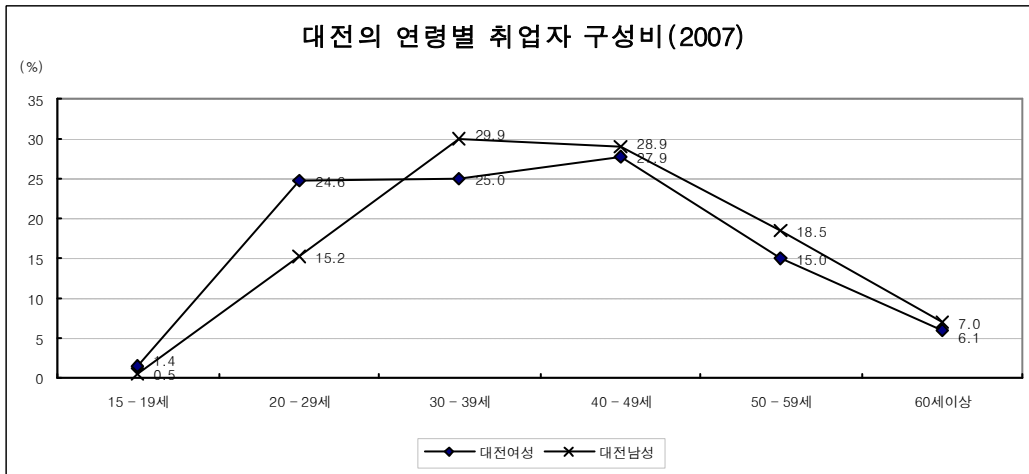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 2) 여성취업구조의 특성

### (1) 연령별 취업자 구성비

2007년 대전 여성 취업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1.4%, 20대는 24.6%, 30대 25%, 40대 27.9%, 50대 15%, 60세 이상 6.1%이다. 40대 연령층의 여성 취업자가 가장 많고, 20세 미만의 취업자가 가장 적다. 이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20, 30대에 결혼, 출산과 가사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서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한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때문이다. 또 20세 미만의 취업자수가 적은 이유는 20세 미만의 대부분의 여성이 학생으로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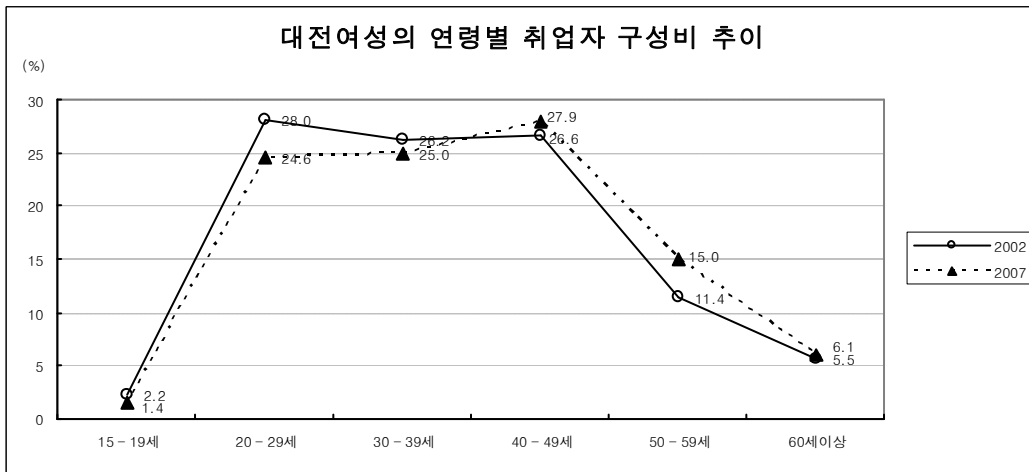
**[그림 2-3] 대전의 연령별 취업자 구성비(2007)**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대전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2002년과 2007년을 비교하여 보면, 2002년에 비해 20대 미만, 20대, 30대는 각각 0.8%, 3.4%, 1.2% 감소한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각각 1.3%, 3.6%, 0.6% 증가하였다.

**[그림 2-4] 대전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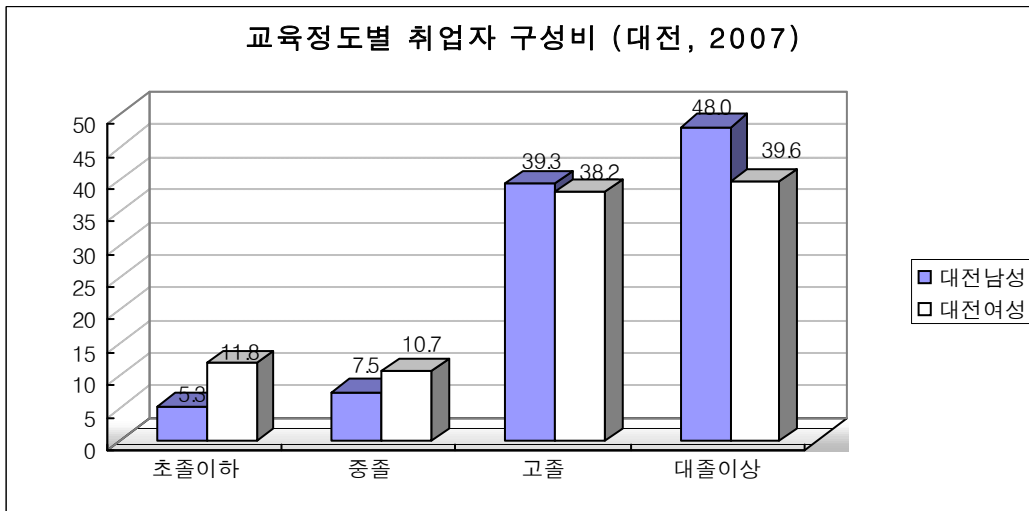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 (2)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2007년 대전 여성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39.6%, 고졸 38.2%, 초졸 이하 11.8%, 중졸 10.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는 대졸이상 48%, 고졸 39.3%, 중졸 7.5%, 초졸 이하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대전, 20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지역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대졸이상이 39.6%, 4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졸자와 대졸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여성과 남성 각각 77.8%, 87.2%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대 대도시<sup>1)</sup>와 비교해보면 대전의 대졸이상 취업자 비율은 여성의 경우 서울과 함께 제일 높고, 남성의 경우도 광주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가 중심인 지식기반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990년에는 중·고졸자가 경제활동인구의 58.4%를 차지하여 주요 노동공급원이었지만,

1) 6대 대도시는 대전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을 말함.

2007년에는 고졸자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83.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이를 학력이 주요 노동공급원이 되었다.

**<표 2-2>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2007)**

(단위 : 천명, %)

구 분	여 성					남 성				
	전 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 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서 울	2,107	10.2	10.3	40	39.6	2,834	4.8	8.3	41.3	45.7
부 산	692	14.6	13.4	39.2	32.8	925	7.6	12.2	44.0	37.0
대 구	494	14.0	13.2	38.7	34.2	664	7.5	11.1	41.0	40.4
인 천	502	10.6	13.1	48.6	27.7	756	5.6	8.7	51.7	34.0
광 주	275	12.7	9.5	40.4	37.5	358	5.3	8.7	35.2	50.8
대 전	280	11.8	10.7	38.2	39.6	400	5.3	7.5	39.3	48.0
울 산	184	14.7	13.6	41.8	29.9	331	5.7	8.8	53.2	3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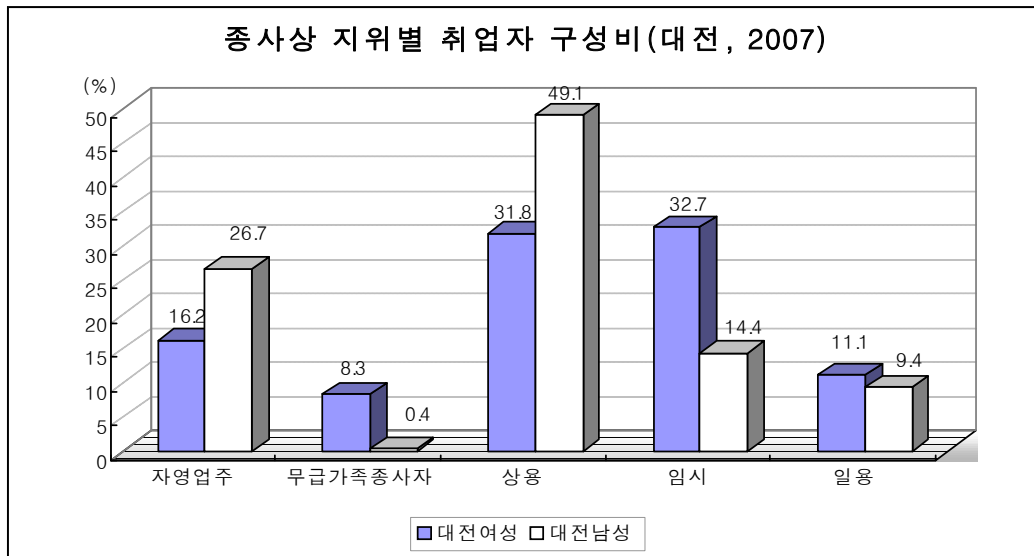
주 : 모든 수치는 반올림의 원인으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3)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기 위해 먼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의미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한다.

2007년 대전의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75.6%이며, 이 중 상용은 31.8%, 임시는 32.7%, 일용은 11.1%이다.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2.9%이며, 상용은 49.1%, 임시는 14.4%, 일용은 9.4%이다.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 비율은 2.7%p 높았고, 임시의 일용도 18.3%p, 1.7%p가 높았으나 상용은 17.3%가 낮았다. 여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4.5%로서 이 중 자영업주는 16.2%, 무급가족종사자는 8.3%이다. 남성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은 27.1%이고 이 중 자영업주는 26.7%, 무급종사자는 0.4%를 차지한다.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대전, 2007)



<표 2-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2007)

(단위: %, 천명)

구 분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여 성								
서울	100.0 (2,107)	23.1	15.0	8.1	76.9	32.3	32.8	11.8
부산	100.0 (692)	27.6	17.9	9.7	72.4	24.4	35.5	12.6
대구	100.0 (494)	27.3	16.4	10.9	72.7	28.7	32.4	11.5
인천	100.0 (502)	22.9	13.7	9.2	77.1	26.3	38.2	12.5
광주	100.0 (275)	25.1	16.4	8.7	74.9	33.5	34.2	7.3
대전	100.0 (280)	24.5	16.2	8.3	75.6	31.8	32.7	11.1
울산	100.0 (184)	28.3	19.6	8.7	71.7	33.2	32.1	6.5

구 분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남 성								
서 울	100.0 (2,834)	28.4	27.8	0.6	71.6	41.3	19.9	10.4
부 산	100.0 (925)	28.0	26.9	1.1	72.0	41.0	19.4	11.7
대 구	100.0 (664)	35.6	34.5	1.1	64.5	36.6	17.3	10.5
인 천	100.0 (756)	27.8	27.0	0.8	72.2	41.5	21.7	8.9
광 주	100.0 (358)	28.0	27.4	0.6	71.8	47.2	17.3	7.3
대 전	100.0 (400)	27.1	26.7	0.4	72.9	49.1	14.4	9.4
울 산	100.0 (331)	18.4	17.8	0.6	81.6	58.0	16.9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주 : 모든 수치는 반올림의 원인으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4)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대전여성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2007년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는 전체의 48.9%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 27.3%, 광공업 8.9%, 전기·운수·통신·금융 6.8%, 농림·어업 1.4%, 건설업 1.6%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종사자가 가장 많고,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남성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36.5%, 도소매·음식숙박업 19.5%, 건설업 14.3%, 전기·운수·통신·금융 14.3%, 광공업 13.8%, 농림·어업에 1.8% 종사하고 있다. 대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6대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전이 교육과 과학의 중심지로서 교육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화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 사업서비스업, 3군본부 및 정부청사 등의 공공행정·국방행정분야 서비스업 등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07)

(단위 : %, 천명)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
	농림업	어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여 성										
서울	0.1	0.1	12.4	12.4	87.5	2.2	33.0	7.7	44.7	2,107
부산	1.7	1.6	13.9	13.9	84.4	1.9	38.0	7.2	37.3	692
대구	2.0	2.0	17.4	17.4	80.6	1.6	35.6	5.9	37.4	494
인천	1.0	1.0	21.5	21.5	77.5	1.4	37.3	7.4	37.3	502
광주	3.6	3.3	10.5	10.5	86.2	2.5	24.5	6.9	44.7	275
대전	1.4	1.4	8.9	8.9	89.6	0.7	27.3	6.8	48.9	280
울산	6.0	4.9	14.7	14.7	79.9	1.6	70.5	4.3	40.2	184
남 성										
서울	0.1	0.1	15.4	15.4	84.5	13.4	23.4	13.5	34.2	2834
부산	1.3	1.1	21.9	21.8	76.6	11.8	21.5	19.0	25.0	925
대구	2.1	2.1	20.9	20.9	77.0	15.5	24.2	11.7	25.5	664
인천	0.8	0.8	30.4	30.4	68.7	11.5	18.8	12.4	26.1	756
광주	2.5	2.2	14.0	13.7	83.8	15.1	19.8	15.9	33.0	358
대전	1.8	1.8	13.8	13.8	84.8	14.3	19.5	14.3	36.5	400
울산	2.4	1.8	48.0	48.0	49.8	10.9	9.7	9.4	19.6	3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5)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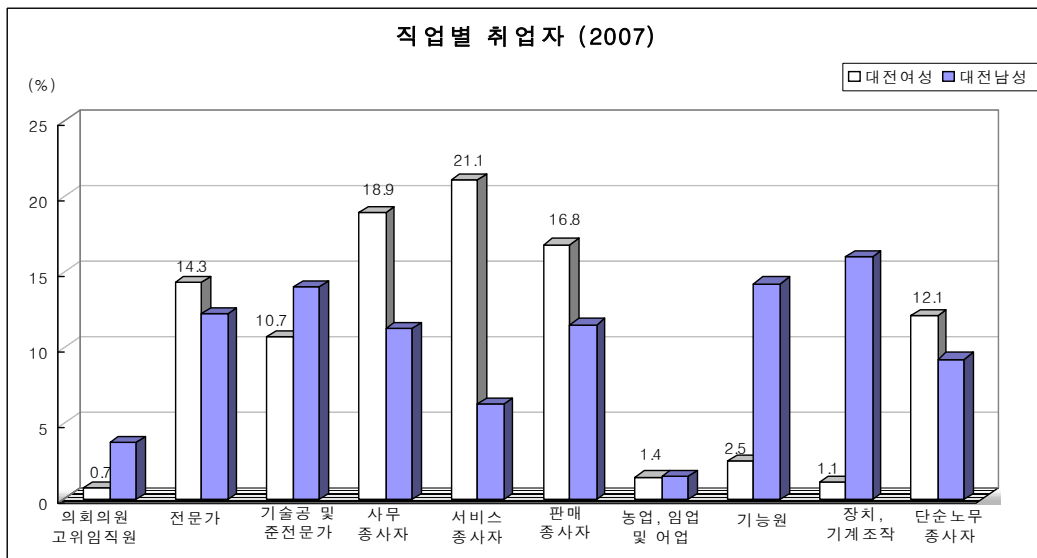
2007년 대전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는 서비스종사자가 21.1%로 가장 많고, 사무종사자 18.9%, 판매종사자 16.8%, 전문가 14.3%, 단순노무종사자 12.1%,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7%, 기능원 및 관련 조립종사자 2.5%,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0.7%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남성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로 가장 많고,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기능원 및 관련 조립종사자 14.3%, 전문가 12.3%, 판매종사자 11.5%, 사무종사자 11.3%, 단순노무종사자 9.3%, 서비스종사자



6.3%,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3.8%,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남녀평등의 고용관행의 정책적 과제는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를 통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전문직 및 관리직으로의 진출도 중요하다. 남성의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총취업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는 25.7%를 차지한다. 전문기술직과 같이 전문성과 임금, 처우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종에서 여성의 진출이 특히 남성보다 부족한 상태로써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 직업별 취업자(대전, 20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 모든 수치는 반올림의 원인으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2. 양성평등 고용 환경 조성

### 1) 고용환경 및 취업관련 의식

**(1) 여성근로자의 임금**

대전지역 여성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1,320,583원으로 남성 임금총액의 6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광주에 이어 두번째로 여성 임금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월평균 임금 총액 및 여성 임금비**

(단위 : 원, %)

	여성 임금 총액	남성 임금 총액	여성 임금비
서울	1,461,042	2,242,182	65.2
부산	1,706,978	2,603,299	65.6
대구	1,256,005	1,948,027	64.5
인천	1,261,102	1,961,661	64.3
광주	1,329,807	2,099,981	63.3
대전	1,320,583	2,083,234	63.4
울산	1,538,232	2,305,032	66.7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2006

주 : 남녀임금비(%)=(여자임금/남자임금)×100

산업별 월평균 임금 총액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190만원 이상으로 제일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75,491로 제일 적었다. 여성임금비는 광업이 92.8%로 제일 높았고,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이 52.1%로 제일 낮았다.

**<표 2-6> 대전여성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총액 및 여성 임금비**

(단위 : 원, %)

	여성 임금 총액	남성 임금 총액	여성 임금비
전 산업 (5인 이상)	1,538,232	2,305,032	66.7
광업	1,521,000	1,639,611	92.8
제조업	1,261,314	2,066,453	61.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902,437	3,138,952	60.6
건설업	1,207,191	1,886,733	64.0
도매 및 소매업	1,269,589	1,887,626	67.3
숙박 및 음식점업	1,075,491	1,478,372	72.7
운수업, 창고 및 통신업	1,491,017	2,141,434	69.6
금융 및 보험업	1,673,133	2,794,881	59.9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900,039	2,606,880	72.9
교육 서비스업	1,846,208	3,020,393	61.1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1,574,593	2,944,816	53.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224,392	2,349,074	52.1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214,771	1,965,503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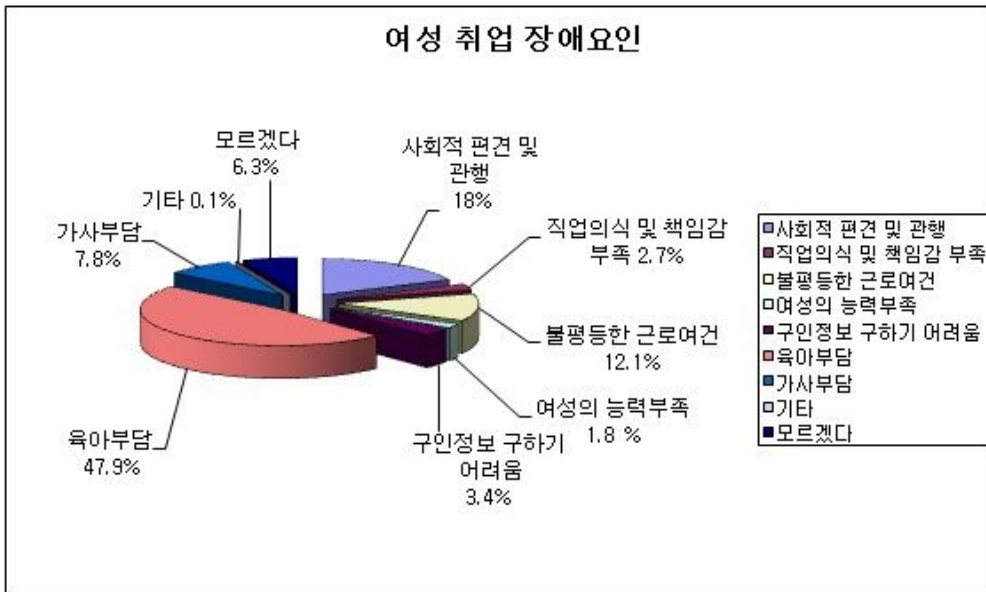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2006

주 : 남녀임금비(%)=(여자임금/남자임금)×100

## (2) 여성취업장애요인

2006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서 대전 여성근로자들은 여성 취업 장애요인에 대해 [그림 2-8]과 같이 응답하였다. 대전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7.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 및 관행' 18%, '불평등한 근로여건' 12.1%, '가사부담' 7.8%, '구인정보 구하기 어려움' 3.4%, '직업의식 및 책임감', '여성의 능력부족' 1.8%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8] 여성 취업 장애요인(대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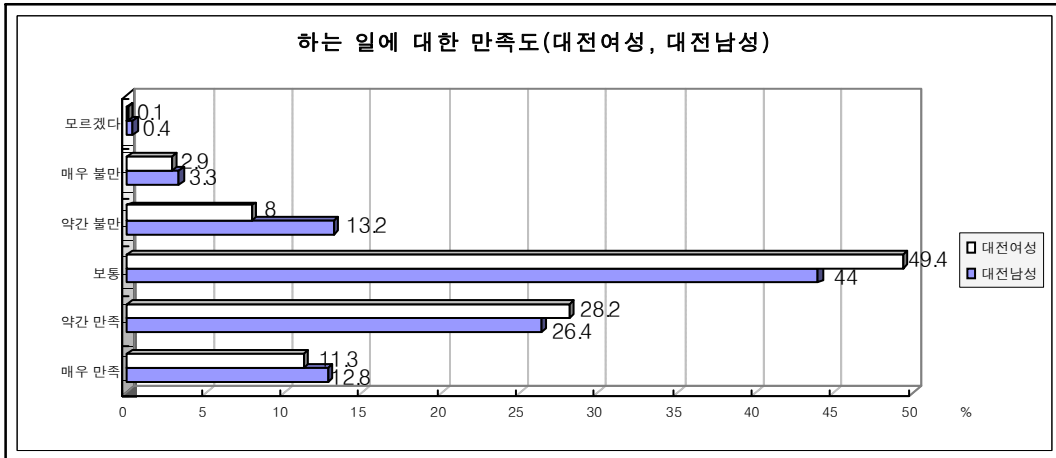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3) 근로조건 만족도

#### ①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2006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통해서 대전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약간 만족' 28.3%, 매우 만족 11.3%, 약간 불만 8%, 매우불만 2.9%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9.5%. 불만족하는 비율이 10.9%로,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28.6% 높았다.

**[그림 2-9]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대전여성, 대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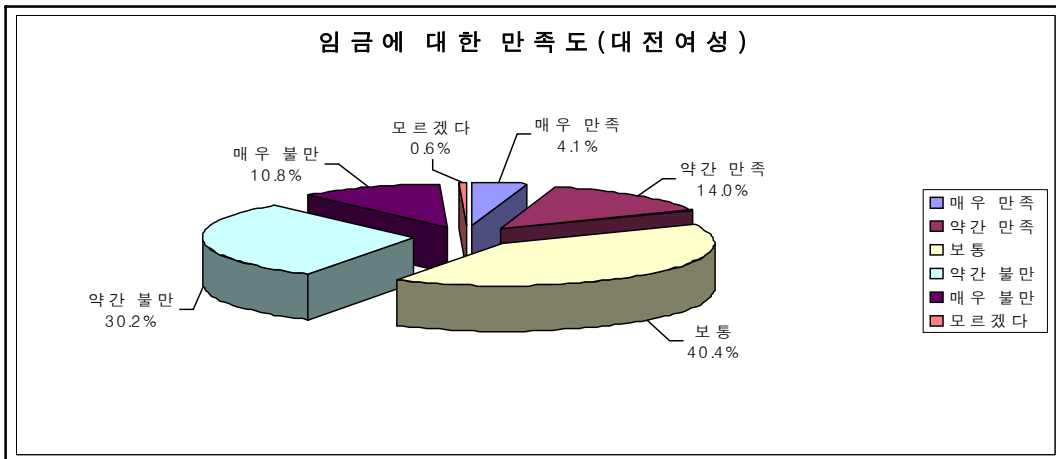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② 임금 만족도**

근로여건 중 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대전여성은 ‘보통’이 40.4%로 가장 높았고, ‘약간 불만’ 30.2%, ‘약간 만족’ 14.0%, ‘매우 불만’ 10.8%, ‘매우 만족’ 4.1%, ‘모르겠다’ 0.6%순이었다. 대전여성의 만족도와 불만족도는 18.1%대 41%로 불만족 비율이 만족에 비해 2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임금에 대한 만족도(대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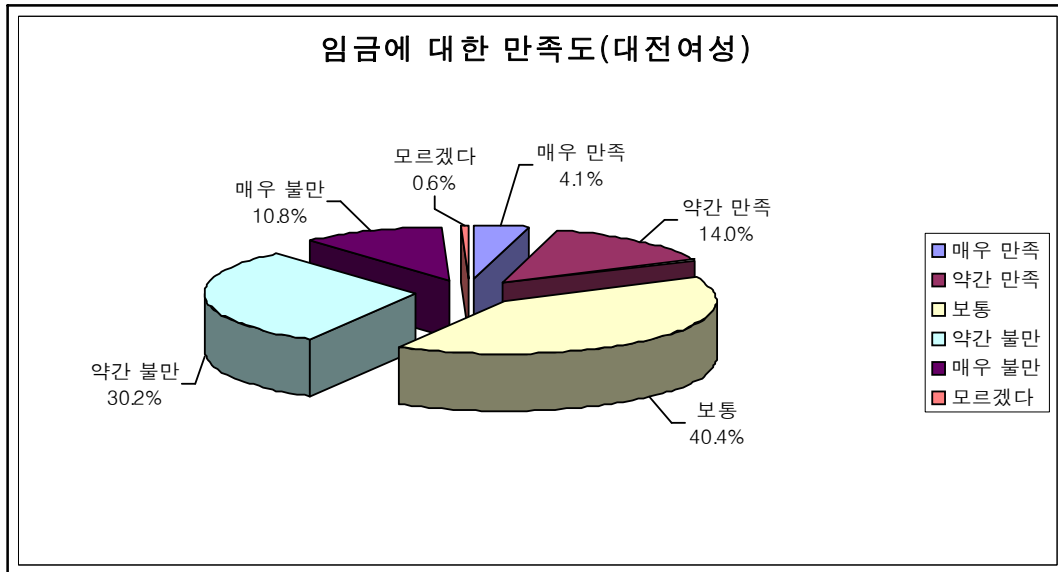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③ 인사관리 만족도

대전 여성 임금근로자의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5%, '약간 불만' 13.7%, '약간 만족' 12.8%, '모르겠다' 8.4%, '매우 불만' 6.1%, '매우 만족' 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19.8%로서 만족 비율 16.8%보다 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인사관리 만족도(대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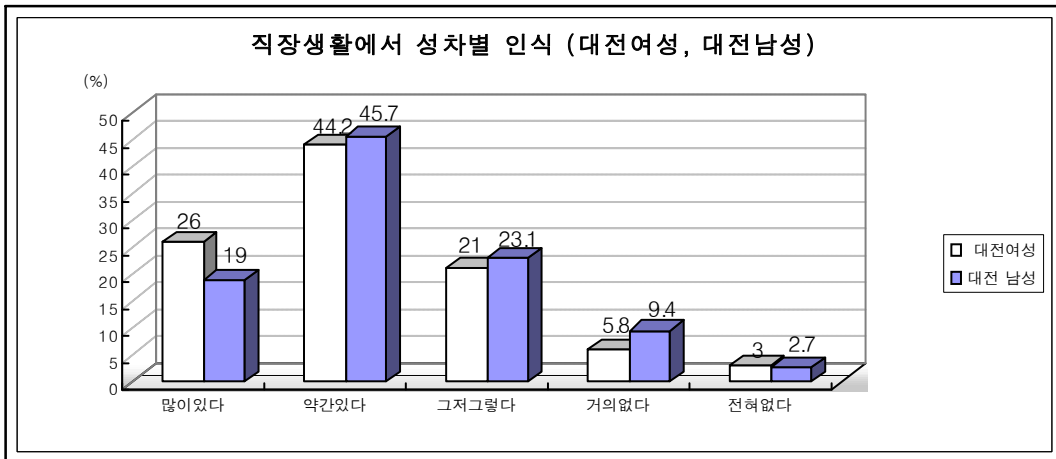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④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인식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전 여성은 '약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고, '많이 있다' 26%, '그저 그렇다' 21%, '거의 없다' 5.8%, '전혀 없다' 3%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8.8%보다 61.4%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직장생활에서 성차별 인식(대전여성, 대전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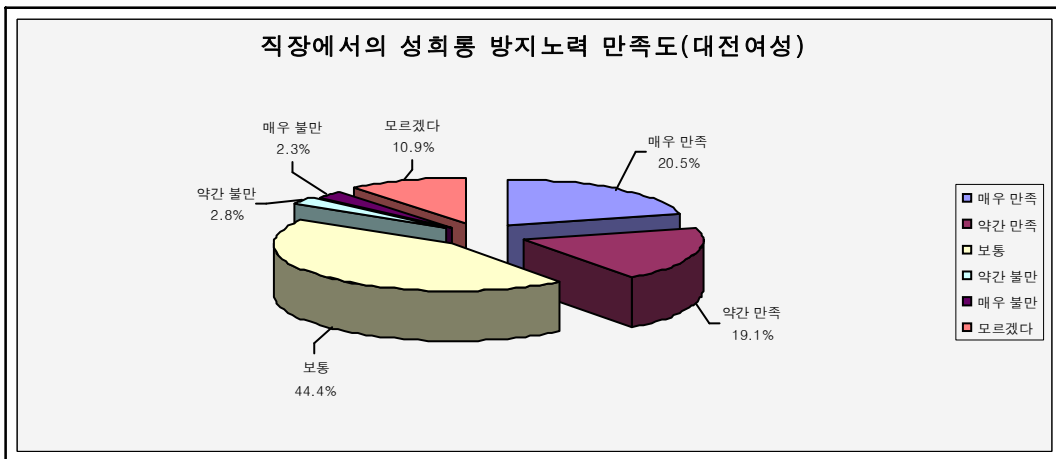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⑤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

근로여건 중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만족' 20.5%, '약간 만족' 19.1%, '보통' 44.4%, '약간 불만' 2.8%, '매우 불만' 2.3%, '모르겠다' 10.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 비율이 39.6%로서 불만족 비율 5.1%보다 3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 노력 만족도(대전여성)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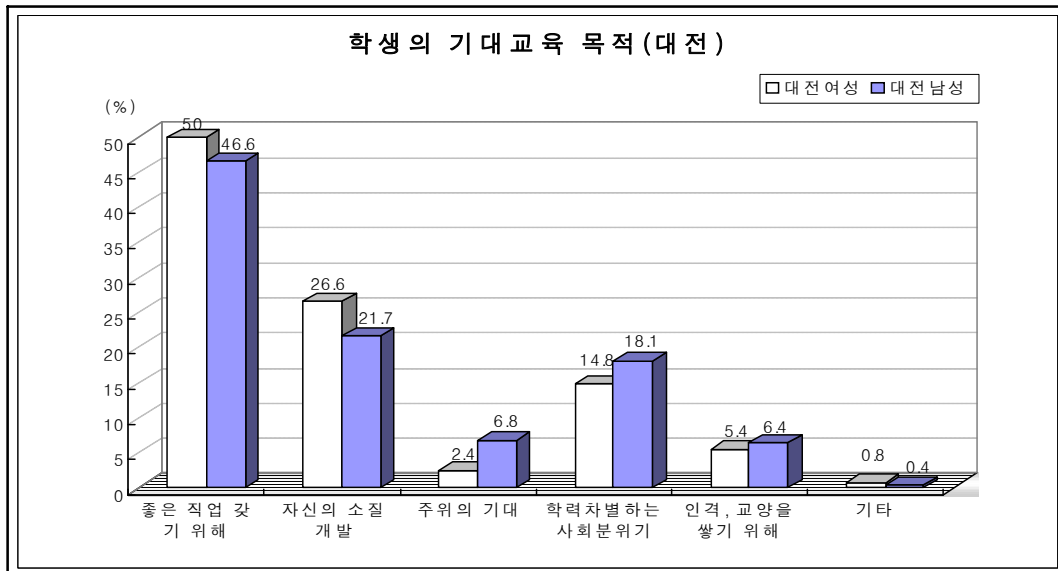
## 제2절 여성 인적자원 개발

### 1. 양성평등한 교육 여건 조성

#### 1)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2004년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이 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서, 남녀 학생 모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6.6%, 5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소질 개발'에 21.7%, 26.6%가 응답하였다. 응답경향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4]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대전)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2)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

2004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통해서,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를 살



해보면 전국적으로는 미충족자 비율이 68.5%였고, 남성보다 여성의 미충족자 비율이 더 높았다(여성 72.6%, 남성 64.0%). 미충족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형편(66.5%)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입학시험 실패(12.7%), 부모의 사고방식(11.6%) 등이 있었고, 성별로는 남녀 모두 경제적 형편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남성 71.3%, 여성 62.7%). 부모의 사고방식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6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여 18.6%, 남성 2.9%).

대전의 경우 미충족자 비율은 전체 65.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전국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미충족자 비율이 더 높았다(여성 70.3%, 남성 60.2%). 교육기회 미충족의 이유로는 남녀 모두 경제적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두 번째 이유가 '부모의 사고방식'이 16.9%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 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성차별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성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단위 : %)

	계	충족	미충족	미충족 이유						
				경제적 형편	학교가 멀어서	입학 시험 실패	부모의 사고 방식	집안 돌봄	질병, 신체 장애	기타
<전 국>	100	31.5	68.5	66.5	1.4	12.7	11.6	6.4	1.0	1.0
여 성	100	27.4	72.6	62.7	1.6	10.1	18.6	5.0	0.9	1.0
남 성	100	36.0	64.0	71.3	1.1	15.8	2.9	6.3	1.3	1.3
<대 전>	100	34.5	65.6	66.6	2.1	12.1	10.6	6.3	1.0	1.2
여 성	100.0	29.7	70.3	63.6	2.8	8.9	16.9	5.8	1.3	0.6
남 성	100	39.8	60.2	70.4	1.1	16.3	2.6	6.9	0.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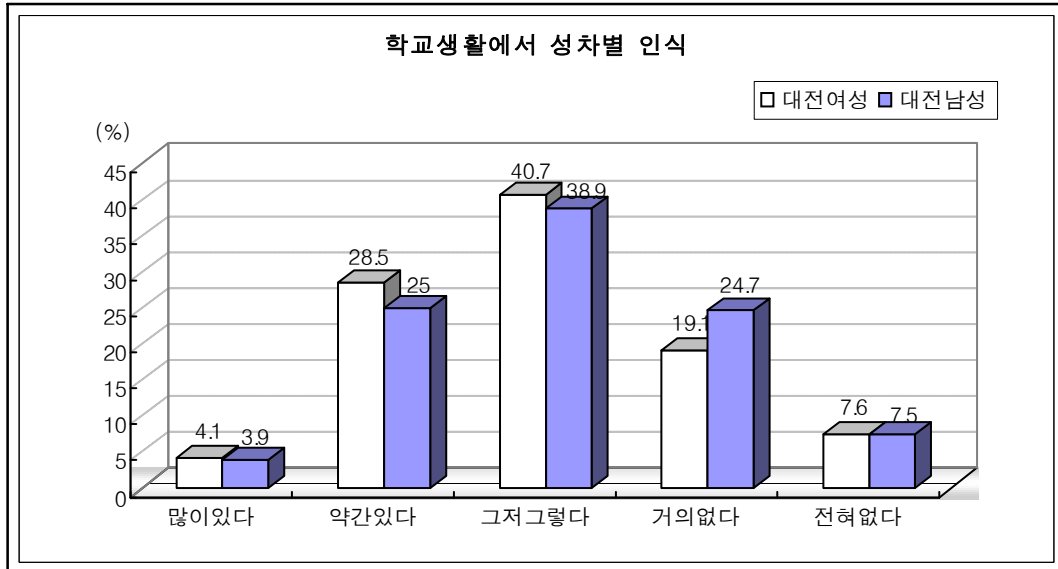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3)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인식

200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대전 여성은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인식에

대해 '그저 그렇다' 40.7%, '약간 있다' 28.5%, '거의 없다' 19%, '전혀 없다' 7.6%, '많이 있다' 4.1%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5] 학교생활에서 성차별 인식(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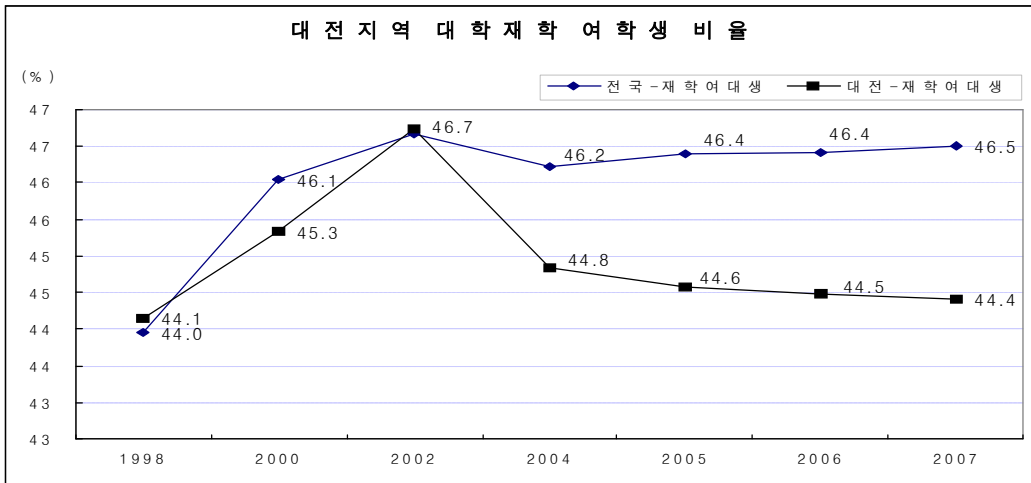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2. 여성 교육과 취업

### 1) 대전지역 대학재학 여학생 비율

대학 교육 기회의 확대로 성별에 따른 대학 교육 기회의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은 1980년 22.5%에서 2007년 46.5%를 넘어서고 있으며(전국), 대전도 대학 재학 학생의 44.4%를 여자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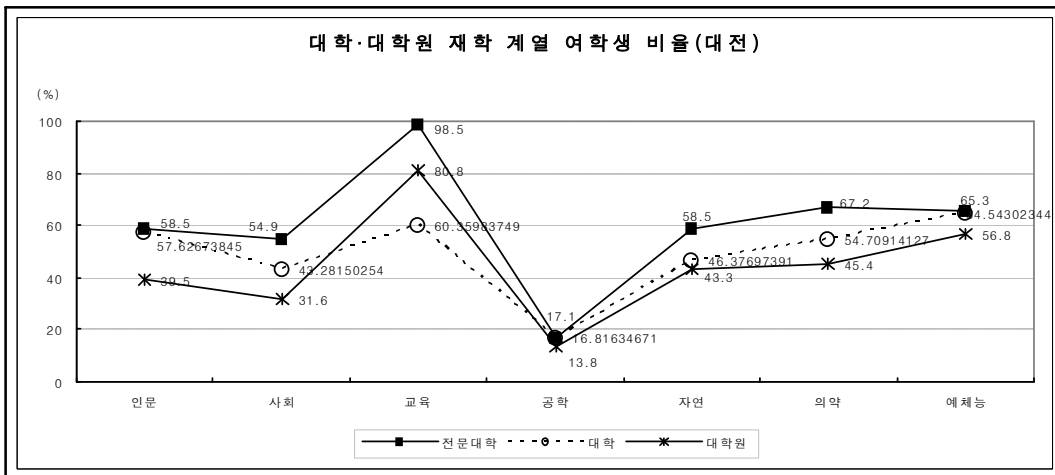
[그림 2-16] 대전지역 대학재학 여학생 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여성 비율을 계열별로 보면, 교육계 80.8%, 예체능계가 56.8%를 차지하여 여학생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여성 취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대학원 진학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림 2-17] 대학·대학원 재학 계열 여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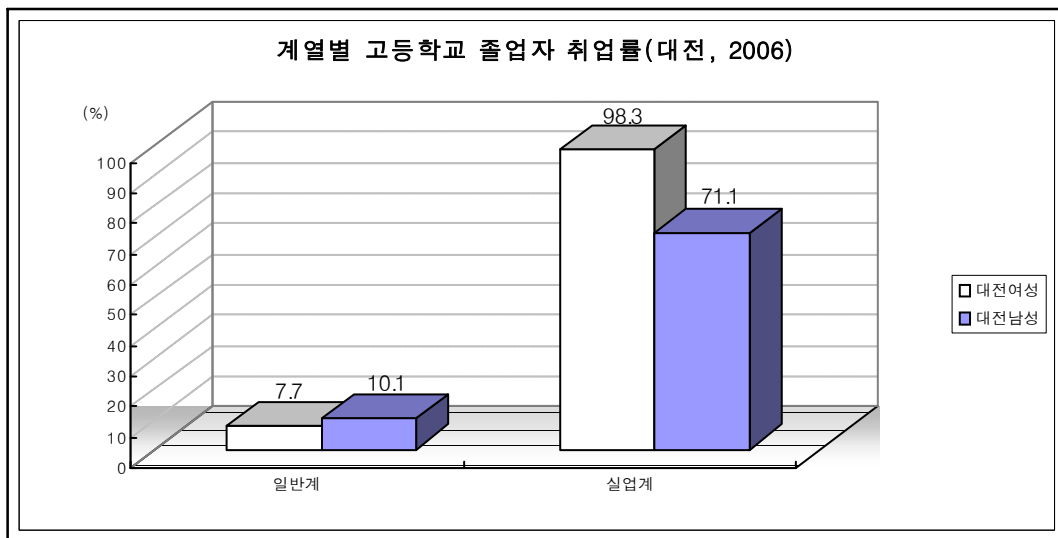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주 : 2007. 4. 1 기준 자료임

## 2) 여자고등학생의 취업

2006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은 여자 98.3%, 남자 71.1%이며, 일반계는 여자 7.7%, 남자 10.1%가 취업하고 있다. 실업계의 경우 과정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취업률은 각각 농업 100%, 100%, 공업 100%, 68.7%, 상업 97.7%<sup>2)</sup>로 여학생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8> 성 및 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대전, 200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 3) 대전지역 전공분야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2006년 현재 전문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은 여성졸업자 77.2%, 남성졸업자 77.3%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여성졸업자의 경우 의학계(92.4%), 예체능계(84.9%)의 취업률이 높고, 인문계(62.4%)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졸업자의 취업률은 의약계(94.6%), 예체능계(87%)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 교육계(46.3%), 인문계(69.8%)의 취업률은 비교적 낮

2) 상업고등학교의 취업률 97.7%는 여학생의 취업률임. 남자 상업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04년 61.2% 이후로 조사된 통계결과가 없음.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대전지역 전공분야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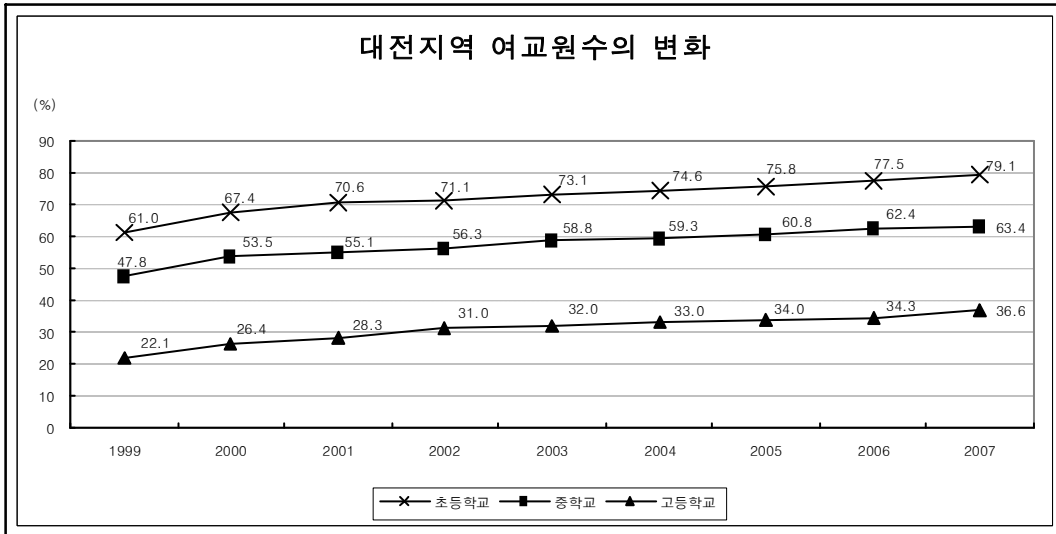
구 분	계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여 성	2002	67.6	56.7	68.5	76.4	73.5	59.6	68.1	73.4
	2003	69.1	58.3	66.6	77.8	72.3	61.2	75	78.3
	2004	63.2	53.5	62	71.7	65.8	49.1	78.9	70.2
	2005	73.5	63.9	69.9	76.5	72.8	64.3	87.8	84.8
	2006	77.2	62.6	75.2	76.2	78.6	72.3	92.4	84.9
남 성	2002	65.4	55.4	62.1	75.7	69.2	55.6	70.6	80.5
	2003	69.7	65.7	65.1	71.3	72.7	64	69.2	84.6
	2004	63.5	58.5	62.8	56.8	65.4	51.8	76.9	72.1
	2005	72.1	71	66.7	56.4	74.8	66.6	82.2	84.9
	2006	77.3	69.8	72	46.3	80.4	73.8	94.6	8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4) 대전지역 각급 학교별 여교원수의 변화

대전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교원 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1999년 61%에서 2007년 7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1999년 47.8%이어서 2007년 63.4%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2000년 22.1%였던 것이 2007년 36.6%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교장 교감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8.2%, 12.5%로 여전히 매우 극소한 비율이다.

[그림 2-19] 대전지역 여교원수의 변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표 2-9> 여성 교장·교감 현황(2006)

(단위 : 명, %)

	교장			교감		
	명	여성	여성비율 %	명	여성	여성비율 %
전국	10,397	948	9.1	11,166	1,635	14.6
대전	267	22	8.2	305	38	12.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5)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대전 지역의 교육전문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1990년 4.8%, 1995년 7.6%, 2000년 18.3%로 점차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약간의 증가만 있을 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대전 지역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은 19.4%로 전국 평균 24.4%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고, 교육장 33.3%, 장학관 8.3%, 연구관 24.6%, 연구사 19%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교육전문직의 절대다수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표 2-10> 7대 광역시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2006)**

(단위 : 명, %)

	전 체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여 성	여성 비율		여 성	여성 비율		여 성	여성 비율
전 국	3,903	952	24.4	906	98	10.8	2,997	854	28.5
서 울	414	132	31.9	87	14	16.1	327	118	36.1
부 산	223	77	34.5	55	12	21.8	168	65	38.7
대 구	167	29	17.4	44	5	11.4	123	24	19.5
인 천	162	39	24.1	45	7	15.6	117	32	27.4
광 주	129	37	28.7	35	6	17.1	94	31	33.0
대 전	124	24	19.4	33	3	9.1	91	21	23.1
울 산	112	20	17.9	30	1	3.3	82	19	23.2

자료: 여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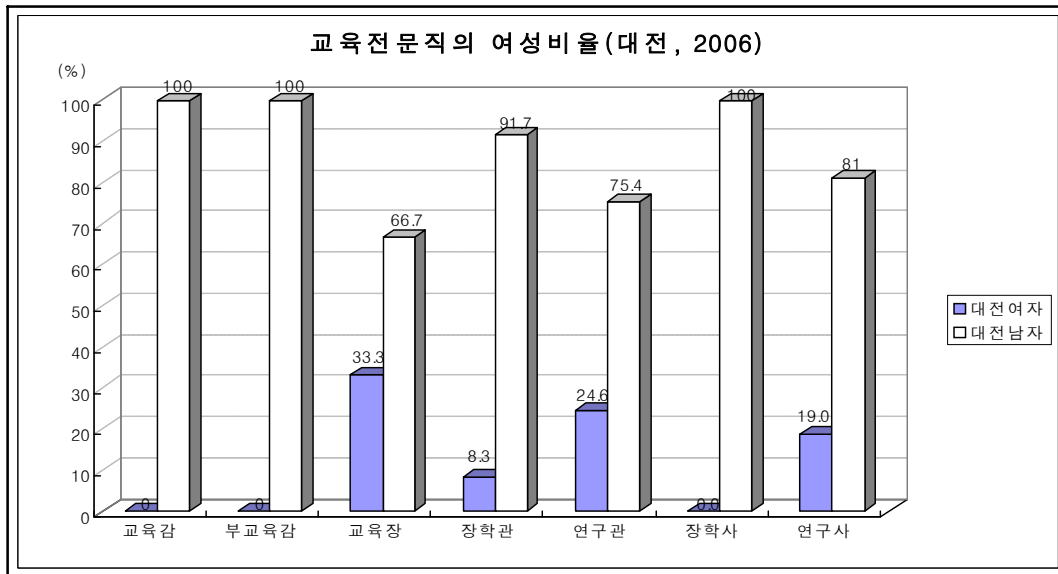
**<표 2-11> 대전지역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추이**

(단위 : 명, %)

구 분	계	교육감	부교육 감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b>2000</b>	21 (18.3)	0 (0.0)	0 (0.0)	0 (0.0)	2 (7.0)	0 (0.0)	16 (24.0)	2 (11.0)
<b>2003</b>	23 (19.0)	0 (0.0)	0 (0.0)	1 (33.3)	1 (4.0)	19 (27.9)	0 (0.0)	2 (11.1)
<b>2004</b>	26 (21.5)	0 (0.0)	0 (0.0)	1 (50.0)	2 (8.0)	20 (28.6)	0 (0.0)	3 (17.6)
<b>2005</b>	26 (20.2)	0 (0.0)	0 (0.0)	1 (50.0)	3 (11.5)	18 (26.1)	1 (12.5)	3 (13.6)
<b>2006</b>	26 (20.8)	0 (0.0)	0 (0.0)	1 (33.3)	2 (8.3)	17 (24.6)	0 (0.0)	4 (19.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2003-2006)  
대전광역시 교육청 내부자료, 2000

[그림 2-20]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대전, 200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 1) 고등교육기관 여성 학위 취득 현황

대학에서 여성의 학위 취득자수는 학사학위의 경우 전국은 2000년 47.1%에서 2005년 49.2%로 증가하였고, 석사학위 취득비율은 2000년 31.7%에서 2005년 43%로 급속한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에서도 2000년 20.5%이던 것이 2005년 26%로 증가추세를 보여 여성의 학위취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전도 학사학위의 경우 2000년 47%에서 2005년 49.9%로 증가하였다. 석사학위는 2000년 24.9%에서 32.9%로 빠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박사학위는 2000년 19.9%에서 2005년 20.7%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여성의 학위취득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학사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석사와 박사학위는 2005년 기준으로 전국에 비해 10.1%p, 5.3%p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성 학위 취득 증가현황은 전체적으로 고



학력화의 진행과 더불어 여성 취업률의 증가, 대학수의 증가 등이 큰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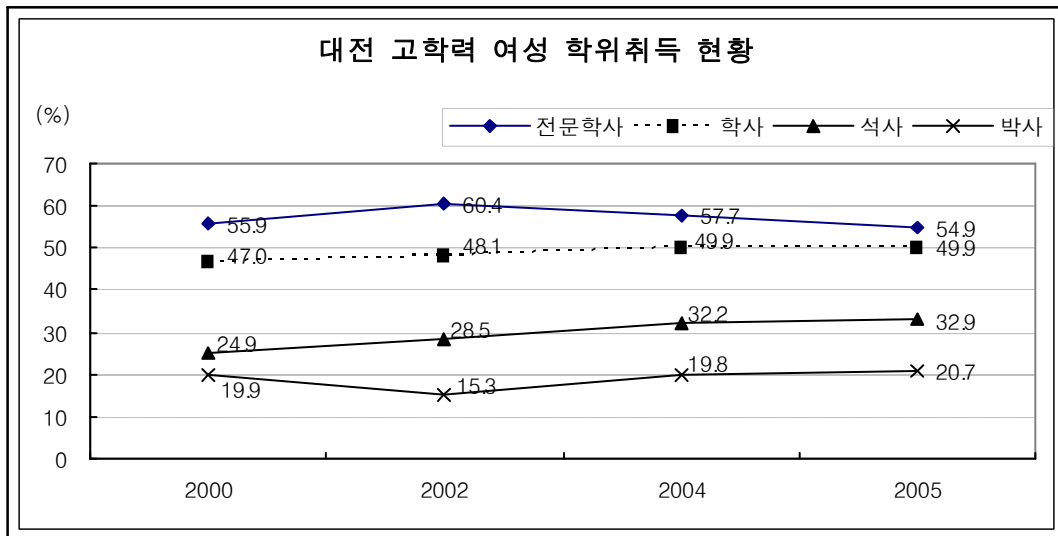
<표 2-12> 고학력 여성 학위취득 현황

(단위 : 명,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계	여	%	계	여	%	계	여	%	계	여	%
<전국>												
2000	223,489	124,037	55.5	214,498	100,925	47.1	47,226	14,971	31.7	6,141	1,258	20.5
2002	239,114	135,811	56.8	244,852	117,973	48.2	56,991	21,031	36.9	6,757	1,569	23.2
2004	226,886	120,791	53.2	267,058	131,991	49.4	66,720	27,593	41.4	8,008	1,952	24.4
2005	228,763	122,465	53.5	268,833	132,240	49.2	68,439	29,448	43.0	8,602	2,234	26.0
<대전>												
2000	9,658	5,395	55.9	10,346	4,867	47.0	2,159	537	24.9	261	52	19.9
2002	9,921	5,995	60.4	11,563	5,564	48.1	2,836	808	28.5	301	46	15.3
2004	9,368	5,410	57.7	12,447	6,214	49.9	3,453	1,113	32.2	389	77	19.8
2005	9,693	5,317	54.9	12,454	6,215	49.9	3,418	1,125	32.9	382	79	2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부』 각년도에서 재구성

[그림 2-21] 대전 고학력 여성 학위취득 현황 추이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부』 에서 재구성

대전을 비롯한 6대 대도시의 전공별 여성 석·박사학위 취득률을 보면, 교육계, 인문계의 학위 취득비율은 높고, 공학계의 학위 취득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다수 직종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다.

**<표 2-13> 전공별 여성 석·박사학위 취득률(2007)**

(단위 : %)

구 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서울	53.4	41.5	39.9	27.5	80.0	64.7	15.7	8.6	52.8	36.2	56.4	38.1	71.7	46.4
부산	68.6	45.8	37.1	24.5	76.8	82.9	12.4	9.2	48.3	38.7	49.5	26.6	67.5	37.9
대구	62.4	58.3	29.8	33.3	72.9	25.0	9.8	13.8	48.1	41.0	57.4	33.1	51.6	33.3
인천	67.9	44.4	38.5	20.8	68.8	50.0	13.2	5.0	38.0	42.1	47.6	25.0	26.9	14.3
광주	49.6	29.0	38.5	27.4	74.0	76.9	13.6	11.3	41.7	31.7	42.6	25.5	66.5	36.4
대전	35.5	60.9	28.8	15.3	71.0	37.5	13.6	8.2	44.0	31.7	55.0	28.7	67.4	0.0
울산	80.0	100.0	19.7	50.0	75.0	0.0	11.5	13.3	61.0	25.0	47.7	42.9	60.0	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자료

##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대전시에 소재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여성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전체적으로 536명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취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연구원급 이상의 정규직 여성인력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인력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198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그 뒤를 국방과학연구소(50명), 과학기술정보(연) (42명), 생명공학연구원(35명) 등이 있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책임연구원급은 전체인력의 3.1%, 선임연구원급은 7.1%, 연구원급은 18.4%로 상위직급인 책임연구원급이 하위직급인 연구원급에 비해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하위직급의 집중화의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인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소를 보면 한국한의학연구회의 40.0%를

필두로 안정성평가연구소이 23.5%, 기초과학지원(연)이 21.7%, 생명과학연구원이 18.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기계연구원(1.3%), 핵융합연구센터(1.9%), 국방과학연구소(2.8%) 등은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4> 대전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현황(2005)**

(단위 : 명, %)

	연구위원급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연구원			계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생명공학연구원	-	-	-	91	9	9.9	77	18	23.4	19	8	42.1	187	35	18.7
기초과학지원(연)	10	2	20	25	4	16	35	8	22.9	13	4	30.8	83	18	21.7
핵융합연구센터	-	-	-	22	0	0.0	26	0	0.0	4	1	25.0	52	1	1.9
한국전문연구원	2	0	0.0	29	2	6.9	44	1	2.3	8	1	12.5	83	4	4.8
한국한의학연구회	-	-	-	15	4	26.7	12	4	33.3	13	8	61.5	40	16	4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424	32	7.5	792	73	9.2	402	93	23.1	1,618	198	12.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8	0	0.0	19	0	0.0	56	3	5.4	100	9	9.0	183	12	6.6
한국기계연구원	11	0	0.0	124	0	0.0	173	4	2.3	10	0	0.0	318	4	1.3
한국화학연구원	3	0	0.0	109	9	8.3	73	12	16.4	3	1	33.3	188	22	11.7
안전성평가연구소	8	1	12.5	11	0	0.0	29	9	31.0	33	9	27.3	81	19	23.5
항공우주연구원	-	-	-	96	1	1.0	227	9	4.0	115	16	13.9	438	26	5.9
에너지기술연구원	-	-	-	115	2	1.7	75	7	9.3	29	3	10.3	219	12	5.5
지질자원연구원	-	-	-	138	4	2.9	119	4	3.4	29	3	10.3	286	11	3.8
표준과학연구원	10	2	20.0	106	1	0.9	103	7	6.8	-	-	-	219	10	4.6
과학기술정보(연)	-	-	-	44	4	9.1	122	16	13.1	94	21	22.3	274	42	15.3
국방과학연구소	-	-	-	673	2	0.3	891	21	2.4	229	27	11.8	1,793	50	2.8
한국과학기술(원)	291	8	2.7	65	2	3.1	60	7	11.7	2	1	50.0	418	18	4.3
원자력안전기술원	10	0	0.0	132	1	0.8	69	4	5.8	21	3	14.3	232	8	3.4
원자력연구소	-	-	-	485	7	1.4	221	20	9.0	24	3	12.5	730	30	4.1
총 계	353	13	3.7	2,723	84	3.1	3,204	227	7.1	1,148	211	18.4	7,422	536	7.2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Web DB

### 3)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동현황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동범위를 공공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15>와 같다. 전체 과학기술 인력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분야별로 10%를 크게 넘지 못하는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이 2005년 현재 18.8%로 가장 높았고 공공 연구기관(12.7%), 기업(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5> 연구개발주체별 성별 연구원 분포 현황(2004-2005)**

(단위 :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연구원 수	비율	연구원 수	비율	연구원 수	비율
공 공 연구기관	2004	13,522	86.0	2,200	14.0	15,722	100.0
	2005	13,536	87.3	1,965	12.7	15,501	100.0
대 학	2004	49,854	83.1	10,103	16.8	59,957	100.0
	2005	52,670	81.2	12,225	18.8	64,895	100.0
기 업 체	2004	121,405	90.4	12,895	9.6	134,300	100.0
	2005	138,322	89.6	15,984	10.4	154,306	100.0
합 계	2004	184,781	88.0	25,198	12.0	209,979	100.0
	2005	204,528	87.1	30,174	12.9	234,702	100.0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4) 성별 과학기술연구원 수 추이

우리나라의 성별 과학기술연구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표 2-16>과 같다. 여성 과학기술연구원 수는 2005년 현재 12.9%로 1996년 8.5%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과학기술계의 대다수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16> 성별 과학기술연구원 수 추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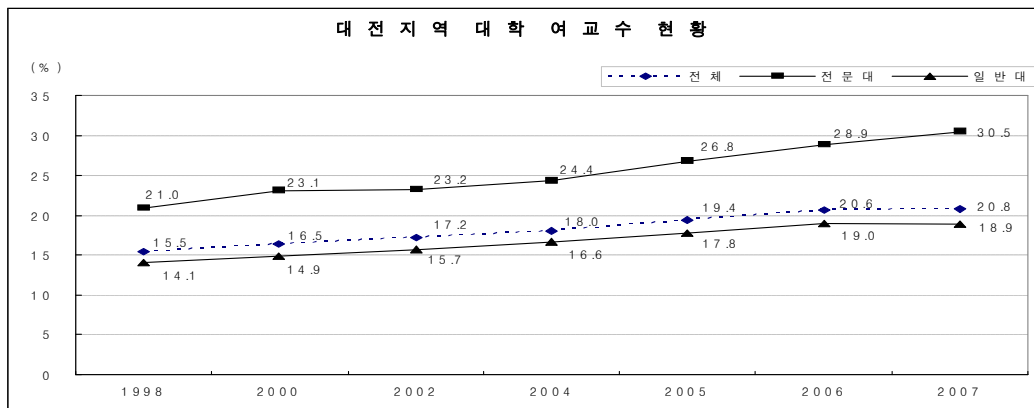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120,857	125,893	117,405	121,559	143,588	159,007	167,831	175,558	184,781	204,528
(%)	91.5	90.9	90.5	90.3	89.8	88.9	88.4	88.6	88	87.1
여성	11,166	12,545	12,317	13,009	16,385	19,930	22,057	22,613	25,198	30,174
(%)	8.5	9.1	9.5	9.7	10.2	11.1	11.6	11.4	12	12.9
총	132,023	138,438	129,767	134,568	159,973	178,937	189,888	198,171	209,979	234,702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5) 대학여교수 현황

2003년 여교수 채용 목표제 시행을 기점으로 하여 여교수의 증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교수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전지역 여교수의 비율은 전문대학 30.5%, 일반대학 18.9%로 나타났다. 여성 다수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분야와 일반대학보다 처우와 신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장되는 전문대학에서의 여성 교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학 주류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22] 대전지역 대학 여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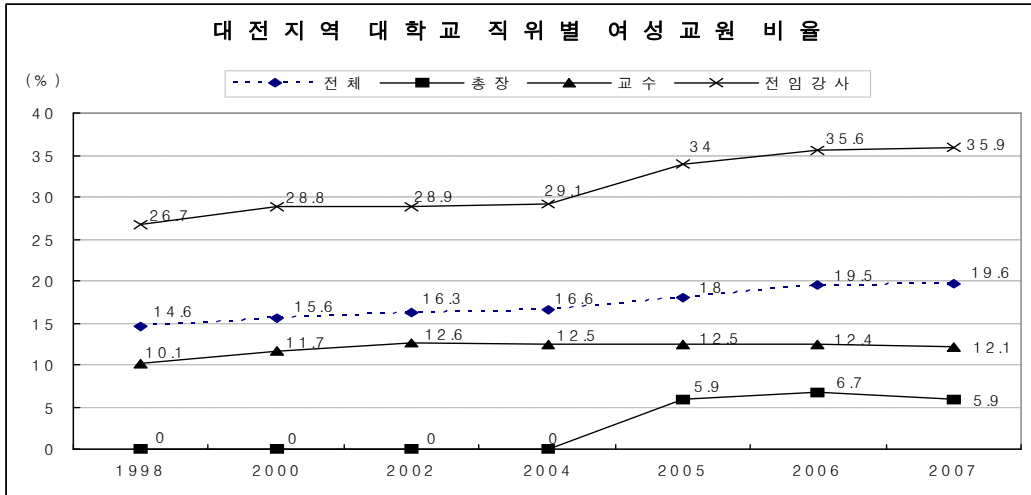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주 : 전체=전문대학+일반대

2007년도 대전지역 대학교의 여성교원 비율은 19.6%이며, 이를 직위별로 보면 총장 5.9%, 교수 12.1%, 부교수 18.8%, 조교수 25.8%, 전임강사 35.9%로서 직위가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98년과 비교해보면, 총장은 5.9%p, 교수는 2%p, 부교수는 3.2%p, 조교수는 11.5%p, 전임강사는 9.2%p 증가하였다

[그림 2-23] 대전지역 대학교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재구성  
 주 : 교원수에는 총(학,원)장과 전임교원만 포함됨

## 4. 여성의 평생 교육

### 1)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및 교육이수일수

2004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2004년 전국의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은 21.6%로 나타났고, 대전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2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23.1%, 남성이 25.7%로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경험이 조금 더 높았다.

평생학습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직장연수(36.5%), 교양강좌(36.5%), TV, 라디오 강좌 청취(29.2%), 학원수강(21.5%), 직업훈련(2.5)순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직장연수(67.1%), TV, 라디오 강좌 청취(19.9%), 학원수강(13.3%), 교양강좌(13.3%), 직업훈련(8.3%)순이었다.

<표 2-17>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및 교육이수일수(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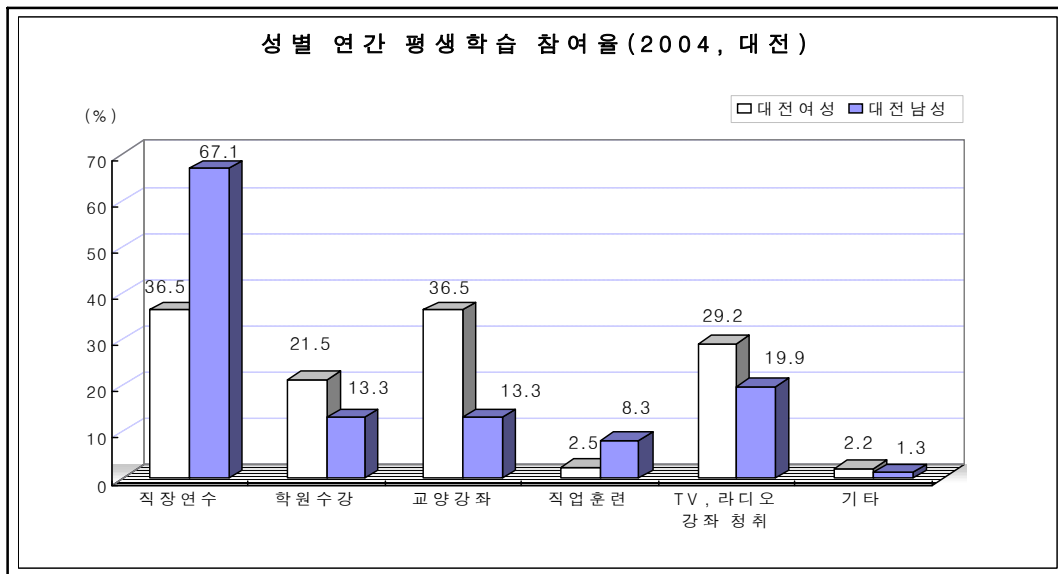
(단위 : %, 일)

	평생 학습 참여자 비율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라디오 강좌 청취		기타	
		%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	일수
<전 국>	21.6	49.9	9.9	19.1	73.5	21.3	27.9	9.9	19.5	21.2	37.7	1.3	16.6
여 성	19.5	36.2	10.1	24.3	76.3	32.8	31.1	5.9	28.5	21.8	35.8	1.7	17.4
남 성	23.8	62.3	9.9	14.5	69.3	11	19.4	13.5	15.9	20.6	39.5	1	15.3
<대 전>	24.4	52	11.7	17.4	80.1	24.8	25.2	5.4	33.8	24.5	35.3	1.7	22.6
여 성	23.1	36.5	12.8	21.5	80.2	36.5	25.2	2.5	29.2	29.2	33.7	2.2	30.2
남 성	25.7	67.1	11.2	13.3	80	13.3	25.3	8.3	35.1	19.9	37.7	1.3	10.2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 : 재학생은 조사에서 제외됨. 평생학습의 종류는 '있다'의 응답자로 복수응답임.

[그림 2-24] 성별 연간 평생학습 참여율(대전, 2004)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 : 조사대상-전국 약 33,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제3절 여성복지와 인권

#### 1. 보육

##### 1) 보육시설 현황

2006년 12월 현재 대전의 보육시설은 1,0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등 6가지로 구분되는데, 대전의 경우 가정 보육시설이 55.5%로 가장 많으며, 민간 개인 보육시설 33.9%, 법인 보육시설 4.1%, 국공립 보육시설 2.7%, 민간 법인의 보육시설 2.4%, 직장 보육시설 1.3%, 부모협동 보육시설 0.1%순이다. 국공립을 제외한 법인, 민간, 가정, 직장보육시설이 97.3%를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요구된다.

<표 2-18> 전국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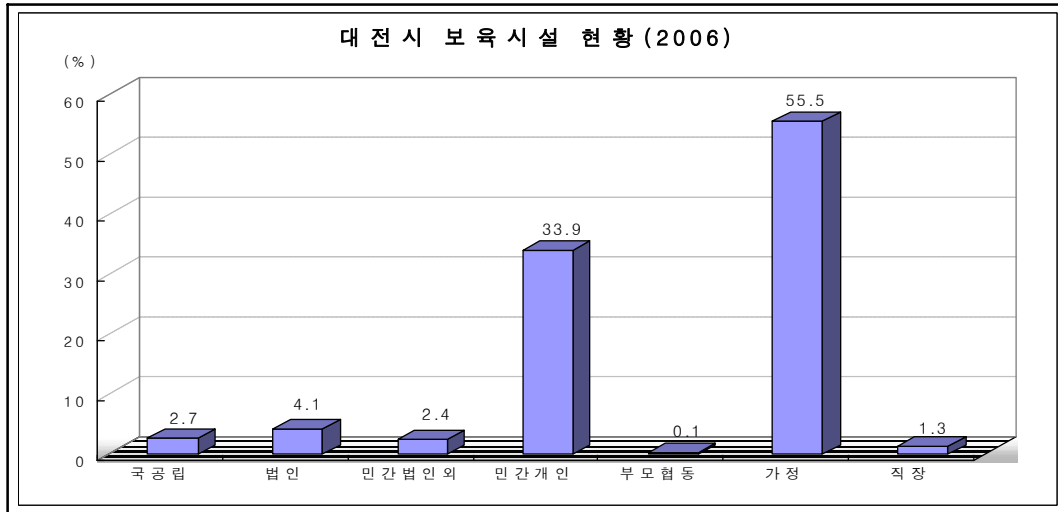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의외	개인			
전국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서울	5,508	632	28	2,612	297	2,315	16	2,142	78
부산	1,592	127	93	886	44	842	2	471	13
대구	1,239	24	121	721	37	684	5	356	12
인천	1,385	65	9	699	45	654	1	588	23
광주	1,050	30	113	359	22	337	1	536	11
대전	1,072	29	44	389	26	363	1	595	14
울산	580	27	13	376	6	370	0	153	11
경기	7,864	293	100	3,442	131	3,311	27	3,933	69
충남	1,153	35	131	580	77	503	1	392	14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년 12월 통계



[그림 2-25] 대전시 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년 12월 통계

<표 2-19> 대전시 구별 보육시설 현황

2006. 6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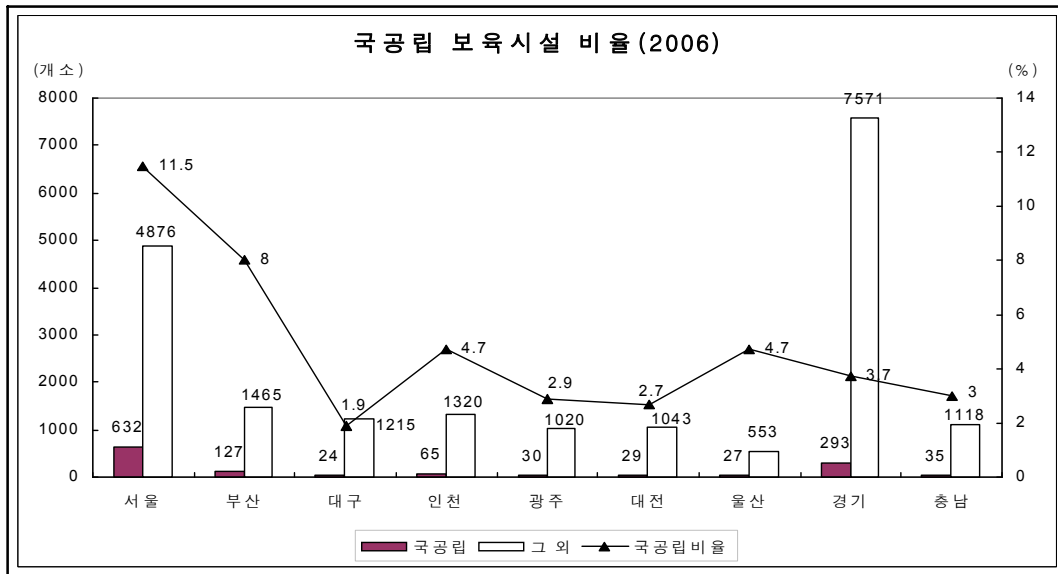
(단위 : 명, 개소)

구분	설립주체별												* ( )는 정부지원시설 현황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0	0	29	1,375	44	3,618	26	1,336	363	13,577	1	18	595	7,245	14	982
	(0)	(0)	(28)	(1,355)	(43)	(3,437)	(10)	(563)	(12)	(352)						
동구	129	4,606	5	255	10	1,024	5	232	68	2,645			40	434	1	16
	(21)	(1,526)	(5)	(255)	(10)	(1,024)	(3)	(161)	(3)	(86)						
중구	172	4,514	5	155	8	683	1	47	86	2,554			68	1,010	4	65
	(18)	(857)	(5)	(155)	(7)	(502)	(1)	(47)	(5)	(153)						
서구	398	9,048	9	423	8	477	7	413	103	3,989			267	3,241	4	505
	(23)	(1,232)	(9)	(423)	(8)	(477)	(4)	(277)	(2)	(55)						
유성구	205	4,785	1	40	11	1,001	5	209	54	1,850	1	18	129	1,307	4	360
	(14)	(1,095)	(1)	(40)	(11)	(1,001)	(1)	(32)	(1)	(22)						
대덕구	168	5,198	9	502	7	433	8	435	52	2,539			91	1,253	1	36
	(17)	(997)	(8)	(482)	(7)	(433)	(1)	(46)	(1)	(36)						

자료 : 2007 제4차 가족공동체포럼 자료집

주 : ※ 보육능력(아동정원) : 35,930명 / 현원 : 28,151명 (이용률 78.35%)  
 ※ 종사자 : 5,056명(시설장 1,072, 보육교사 3,642, 기타 342)

[그림 2-26]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년 12월 통계

## 2) 보육아동 현황

보육아동의 수는 2006년 12월 현재 총 1,280,677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128,667명, 법인보육시설이 146,737명, 법인 외 보육시설이 69,685명, 민간개인보육시설이 713,528명, 부모협동보육시설이 1,609명, 가정보육시설이 201,046명, 직장보육시설이 18,874명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보육아동의 수는 총 35,930명으로 민간개인보육시설이 27,521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 10,089명, 법인 보육시설 4,208명, 법인 외 보육시설 1,609명, 국공립보육시설 1,562명, 직장보육시설 1,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0> 전국 보육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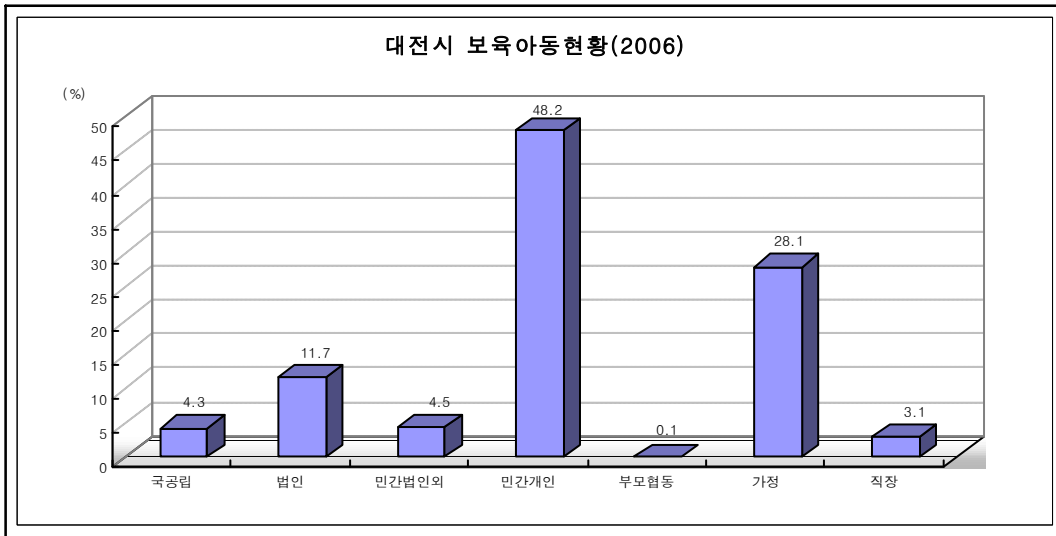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개인			
전 국	1,280,156	128,677	146,737	783,213	69,685	713,528	1,609	201,046	18,874
서 울	220,241	52,392	2,406	124,716	14,533	110,183	525	35,426	4,776
부 산	75,456	11,055	8,672	46,926	2,626	44,300	55	8,143	605
대 구	62,706	1,842	14,549	39,318	2,778	36,540	119	6,302	576
인 천	56,392	3,987	1,238	40,903	2,495	38,408	37	9,267	960
광 주	56,271	3,057	13,785	29,340	1,819	27,521	47	9,407	635
대 전	35,930	1,562	4,208	18,934	1,609	17,325	18	10,089	1,119
울 산	28,097	1,841	917	21,889	494	21,395	-	2,701	749
경 기	286,484	22,173	8,583	182,727	9,020	173,707	682	67,152	5,167
총 납	56,030	2,554	12,178	33,927	5,153	28,774	18	6,414	939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년 12월 통계임

[그림 2-27] 대전시 보육아동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년 12월 통계임

### 3)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2007년 12월 31 현재 대전의 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1,185명(21.8%), 보육교사 3,994명(73.5%), 기타 646명(4.6%)를 포함하여 총 5,431명이다. 보육교사 중 1급 보육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7%로 가장 높았으며, 2급 보육교사 26.7%, 3급 보육교사 13.9%, 특수교사 0.4%, 치료사 0.3%순으로 나타났다.

**<표 2-21> 보육시설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장	보육교사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특수교사	치료사	
전 국	16,9585	30,856	122,262	68,470	38,794	13,699	798	501	16,467
서 울	30,346	5,532	22,117	11,489	7,652	2,820	111	45	2,697
부 산	9,336	1,614	7,065	4,529	1,855	585	53	43	657
대 구	8,107	1,285	6,014	3,861	1,309	680	111	53	808
인 천	7,850	1,531	5,773	3,031	2,037	660	26	19	546
광 주	6,280	1,045	4,589	3,079	1,041	392	31	46	646
대 전	5,431	1,185	3,994	2,344	1,068	556	16	10	252
울 산	3,517	573	2,653	1,570	781	221	50	31	291
경 기	41,661	8,691	30,267	14,502	11,381	4,219	112	53	2,703
충 남	6,642	1,215	4,469	2,875	1,128	435	17	14	95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상세통계에서 재구성

주 : 2007. 12. 31 기준 통계임.

\* 기타 :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취사부, 운전원, 관리원 등

**<표 2-22> 보육시설 종사자수 현황(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개인			
전 국	156,306	14,910	16,226	87,166	8,206	78,960	252	35,425	2,327
서 울	29,294	6,228	302	15,618	1,577	14,041	82	6,395	669
부 산	8,503	1,073	948	5,141	331	4,810	9	1,256	76
대 구	7,590	197	1,562	4,746	386	4,360	16	1,013	56
인 천	7,094	548	128	4,365	359	4,006	3	1,913	137
광 주	6,182	342	1,349	3,021	222	2,799	6	1,408	56
대 전	5,056	243	502	2,327	214	2,113	4	1,847	133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의외	개인			
울산	3,214	238	186	2,238	66	2,172	-	447	105
경기	37,230	2,798	1,070	20,216	1,012	19,204	106	12,352	688
충남	6,325	287	1,308	3,663	680	2,983	2	991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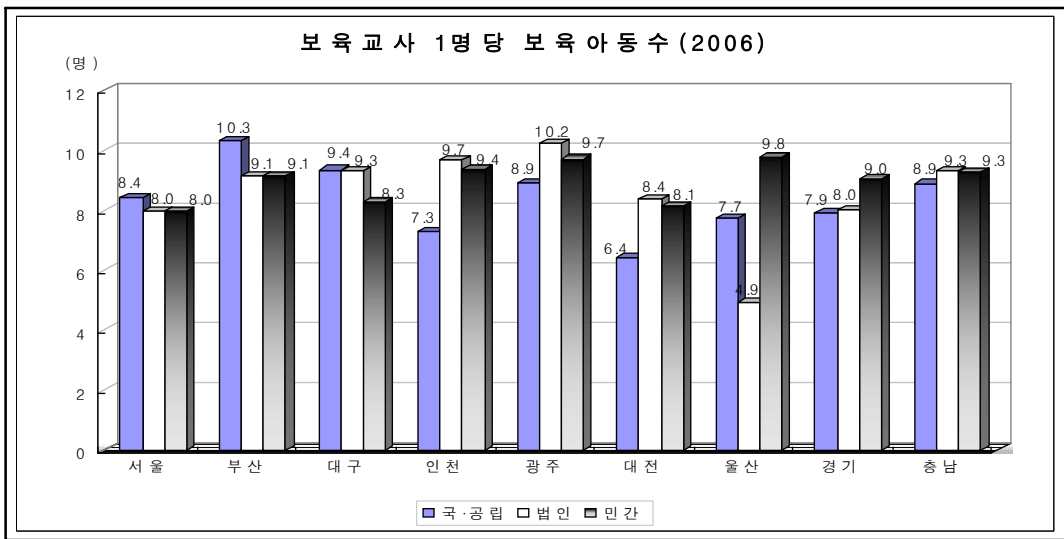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 12. 31 통계임

#### 4)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 (1)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교사 대 아동비율(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대전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6.4명으로 법인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8대 시도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과 비교했을 때에도 제일 낮았다.

[그림 2-28]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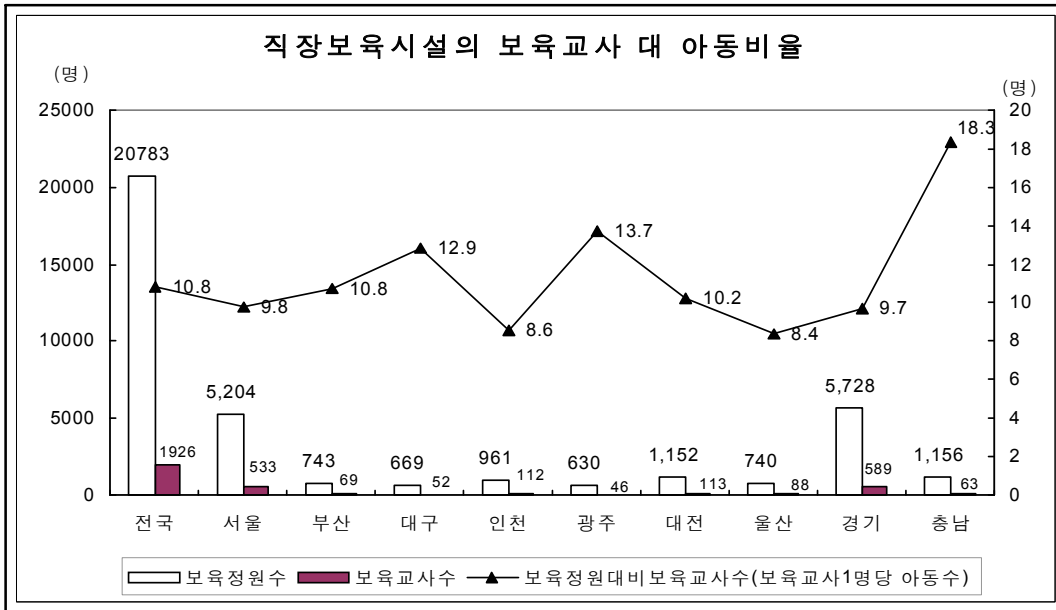


자료 : 여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3호에서 재구성  
주 : 2006. 12월 통계임

## (2)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10.2명으로 전국 평균 10.8명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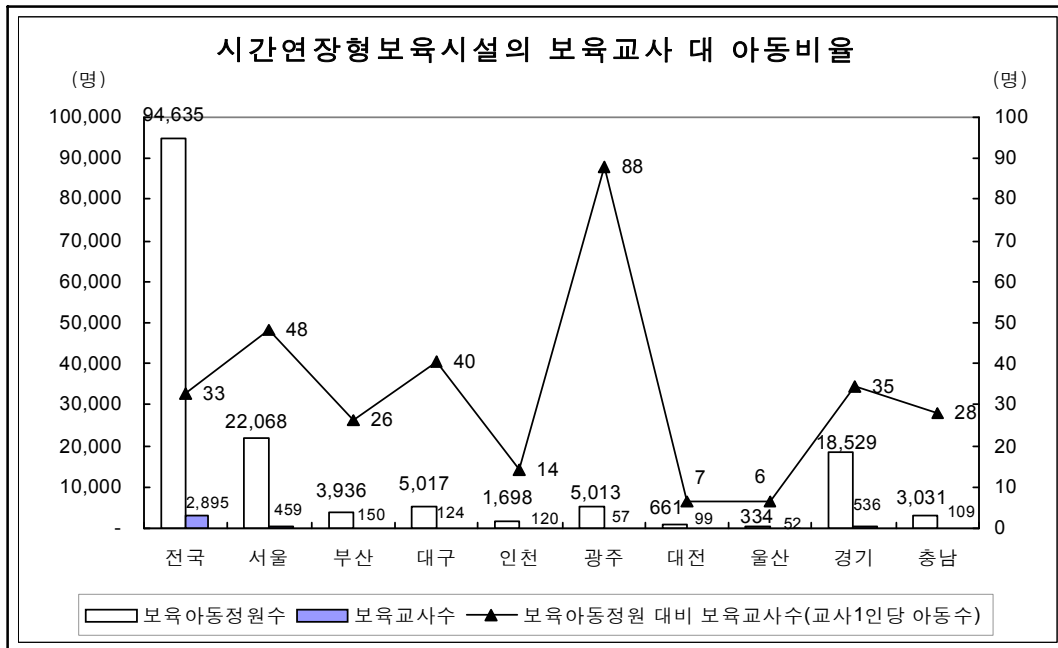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에서 재구성  
 주 : 2007. 12. 31 통계임.

## (3)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200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10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7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33명보다 크게 낮았으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았다.

[그림 2-30] 시간연장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보육통계에서 재구성

주 : 2007. 12. 31 통계임.

## 2. 사회보장 및 복지지원

### 1) 기대수명 추이

2000~2005년 전국 기대수명은 1990~95년에 비해 남자는 4.6세, 여자는 3.8세 증가 하였으며,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다소 줄어들었다. 2000~2005년 대전남자의 기대수명은 서울(75.8세), 경기(74.2세), 대전(74.1세) 순으로 전국(73.4세)보다 높고, 대전여자의 기대수명은 제주(82.3세), 서울(81.7세) 순으로 전국(80.5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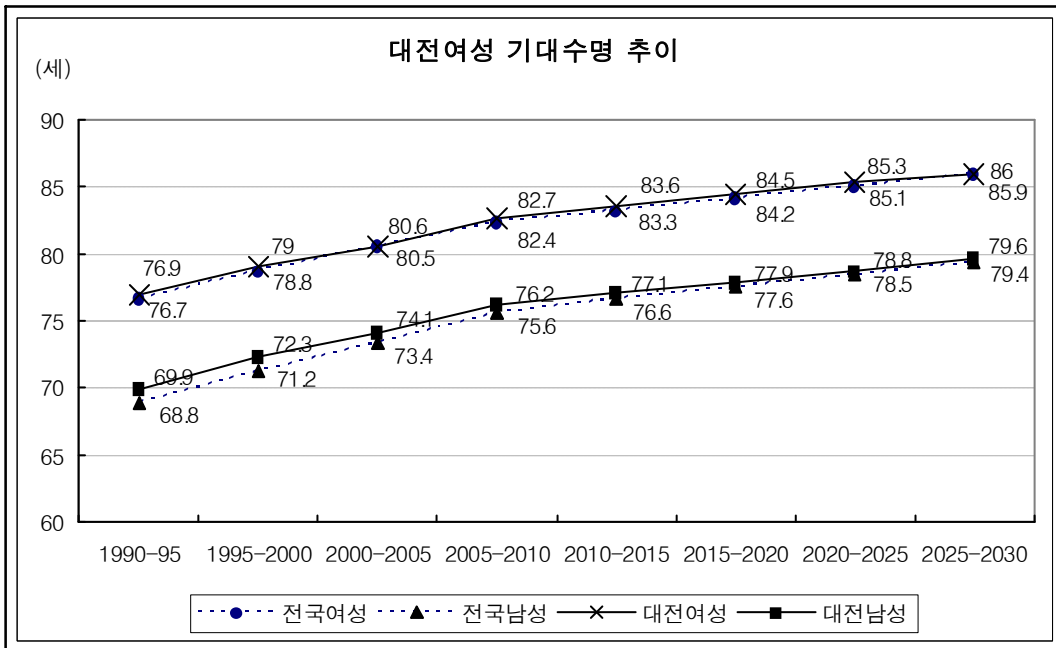
대전 여성의 평균수명은 1995-2000년 79세, 2000-2005년 80.6세로 남성 평균수명에 비해 6.7세, 6.5세가 높은 편이다. 전국 여성의 평균수명에 비하면 0.2세, 0.1세가 높고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 여성 평균수명보다 높은 편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건강 평균수명과 의존 평균수명도 연장되는데 2000년에

실시된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평균수명 74.4세에서 건강 평균수명은 64세이고 의존평균수명은 10년 정도로 밝혀졌다. 즉 평균적으로 64세까지는 건강한 삶이고 그 이후 10년은 질병, 장애, 쇠퇴 등으로 의존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 여성의 2010-15년의 예상 평균수명은 83.6세로 연장되고 2025-30년에는 86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1] 대전여성 기대수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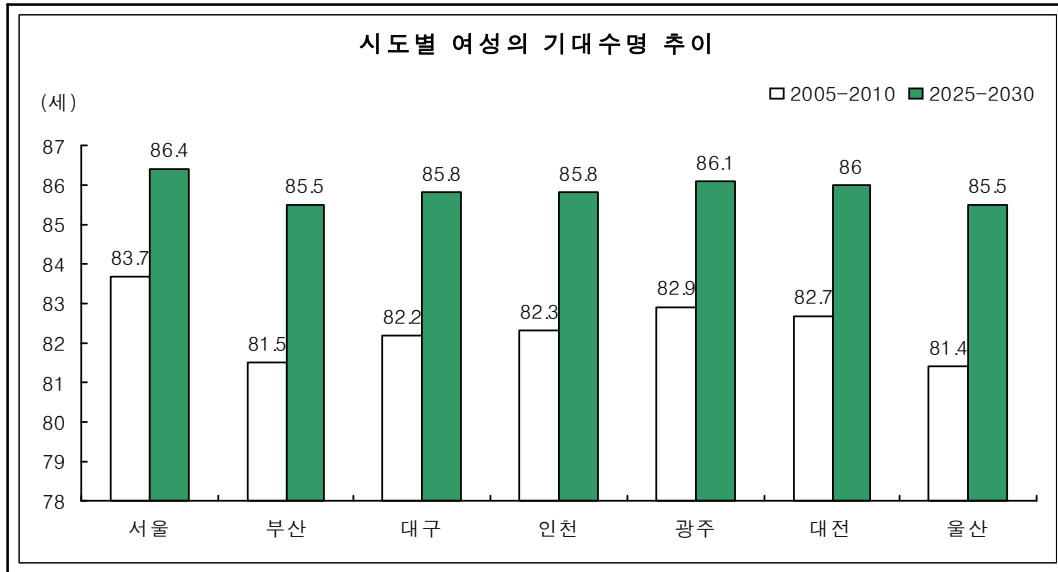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주 : 기대수명은 해당기간별 연평균임



[그림 2-32] 시도별 여성의 기대수명 추이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주 : 기대수명은 해당기간별 연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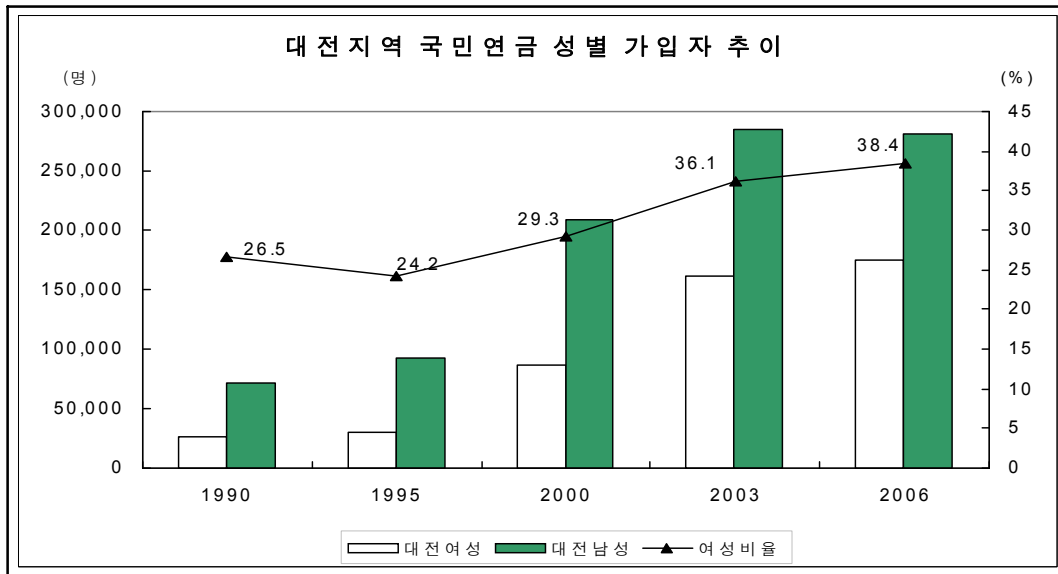
## 2) 대전여성의 국민연금 실태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공적연금 가입자의 여성비율은 35.6%로 2000년 3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입률의 차이는 향후 남녀별 연금 수급권 및 연금 급여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여성이 1990년 전체 가입자의 29.5%에서 1995년 26.1%로 감소하였고, 2000년도엔 27.7%로 근소하게 증가하였다가, 2003년 34.2%, 2006년 36.3%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전의 경우 여성가입자는 1990년도 전체의 26.5%에서 1995년도에 24.2%로 감소하였고 2000년도 29.3%, 2003년도 36.1%, 2006년 38.4%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33] 대전지역 국민연금 성별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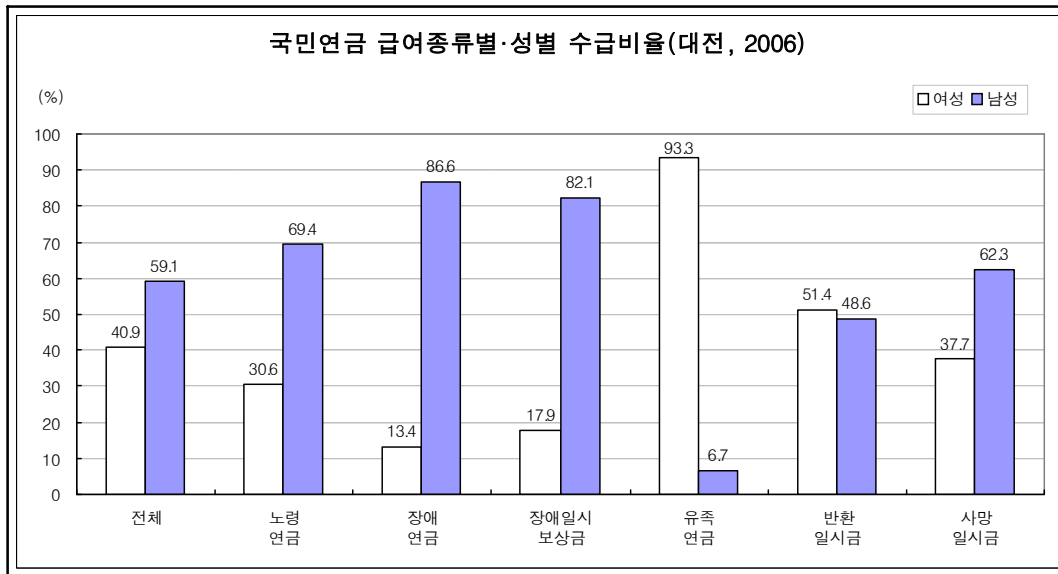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주 :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를 포함하였음

[그림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 44,137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9였다. 대전 지역 내 연금수혜자가 가장 많은 노령연금에서 여성 비율은 30.6%에 불과하였고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급여종류는 유족연금(93.3%), 반환일시금(51.4%), 사망일시금(37.7%), 노령연금(30.6%), 장애일시보상금(17.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개별수급권적 급여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수급률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지만 파생수급권적 급여인 유족연금 수급률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4] 국민연금 급여종류별·성별 수급비율(대전, 2006)**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6

### 3) 대전여성의 고용보험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 전 산업에 대한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은 1998년 28.5%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 31.8%, 2006년에 34.7%로 나타났고 대전지역의 경우 2006년 35.7%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가 80.4%, 교육 서비스업은 76.9%를 차지하고 어업이 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여성 피보험자의 47.8%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는 대체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서비스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표 2-23>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율

(단위: %)

	전 국				대 전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전산업	33.2	33.7	34.2	34.7	33.6	34.6	34.2	35.7
농림업	29.1	30.1	28.6	27.9	28.4	28.4	28.2	21.6
어업	16.0	12.0	11.0	11.4	0.0	0.0	0.0	0.0
광업	9.9	10.8	10.3	10.2	10.5	6.3	7.1	3.1
제조업	27.8	27.8	27.3	27.0	25.1	24.1	23.9	24.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5	12.8	12.7	11.8	10.0	11.0	12.0	12.0
건설업	15.0	15.4	15.5	15.7	14.5	14.2	15.1	15.6
도소매사업	35.7	38.1	38.4	38.7	32.5	33.8	35.6	36.5
숙박음식업	56.2	57.0	57.5	57.3	60.0	61.8	61.0	59.4
운수통신업	15.7	16.2	16.3	16.6	29.0	31.6	30.2	32.6
금융보험업	39.3	39.9	40.4	41.2	49.0	50.4	52.6	49.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4.9	35.1	35.8	35.6	26.6	28.7	29.2	30.7
교육서비스업	77.1	77.0	78.1	78.2	78.4	76.2	76.6	76.9
보건 및 사회복지	77.4	78.2	79.2	80.2	77.9	79.0	80.2	80.4
기타공공개인서비스	37.3	32.1	33.0	34.0	42.4	34.9	34.7	36.8
기타산업	44.3	48.6	41.0	42.5	51.7	55.5	22.7	25.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주 : 기타 공공 개인서비스는 오락, 문화, 운동관련 +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임

기타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포함

#### 4) 대전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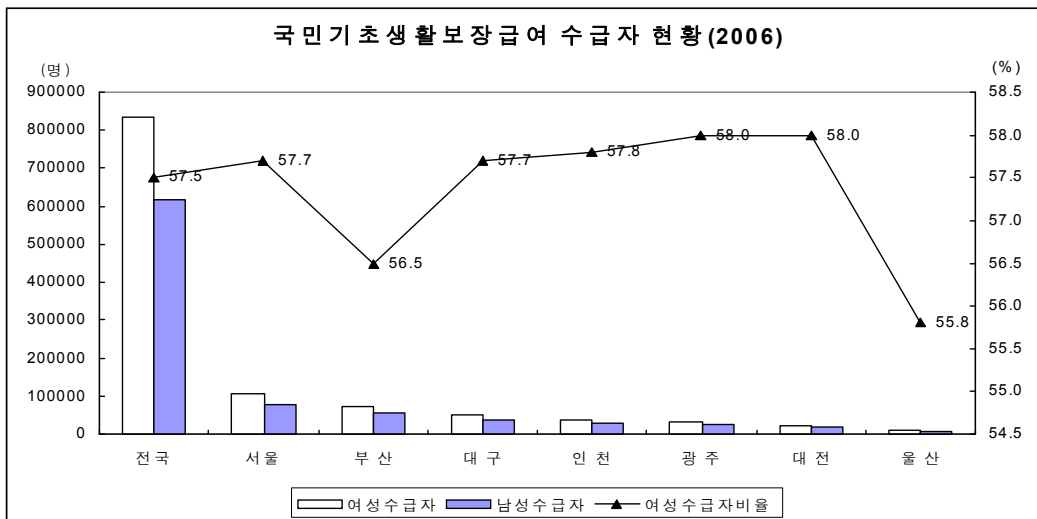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34,950명 중 일반수급자가 94.5%이고, 시설수급자가 5.5%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총 수급자 45,026명 중 일반수급자는 93.1%, 시설 수급자수는 6.9%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 수급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이 42.5%, 여성이 57.5%로 여성이 더 높다. 대전

지역의 경우 수급권자 41,934명 중 남성은 43.4%이고 여성은 56.6%로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여성이 약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활사업 또한 참여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성이 28.7%, 여성이 71.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현행 공공부조제도를 '성중립'(gender-neutral)'이라는 소극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탈피하여 보다 여성 친화적인-여성 수급자의 욕구와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3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현황(2006)**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6)

## 5) 사회복지인력 현황

### (1) 대전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수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

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두어 특히 공공부조 관련 업무를 맡게 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은 2007년 현재 총 271명이며 여성은 195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4> 대전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계	남	여
1995	94	-	-
2000	126	51	75
2002	180	58	122
2003	203		(직렬별 남여구분 안됨)
2004	205		
2005	256		
2006	267		
2007	272	77	195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대전지역 여성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현황은 <표 2-29>와 같다. 4개 시설은 전원 여성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들도 여성인력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표 2-25> 여성복지(생활)시설 인력(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시 설 명	계	여	남
계	39	34	5
루 시 모 자 원	5	3	2
구세군대전여성의집	6	5	1
아 침 뜰	7	6	1
대 전 자 모 원	2	2	-
구세군정다운집	8	7	1
우리청소녀쉼자리	5	5	-
대전YWCA 여성의쉼터	4	4	-
대 전 클 로 버	2	2	-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3. 한부모 가정

#### 1) 모·부자 가정 현황

‘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자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자가정은 ‘96년부터 모자가정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02년 12월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현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 가정에 대해서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06년 11월말 현재 전체 모·부자가정이 5,121세대, 세대원수 13,860명으로 모자가정 4,185세대 5,121명, 부자가정 936세대 2,5734명이다.

**<표 2-26> 대전 모·부자 가정 현황**  
(단위 : 세대, 명 2006. 11월말 현재)

보호현황 가정현황		계	모부자복지법 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호 대상	비고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합 계	세 대	5,121	1,939	1,911	28	3,180	2	
	인 원	13,860	4,975	4,907	68	8,880	5	
모자가정	세 대	4,185	1,592	1,564	28	2,591	2	
	인 원	11,286	4,056	3,988	68	7,225	5	
부자가정	세 대	936	347	347	-	589	-	
	인 원	2,574	919	919	-	1,655	-	

자료: 가족포럼자료집

**<표 2-27> 대전 연도별 한부모가족 추이**  
(단위 : 세대,세대원수)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수	세대원	세대수	세대원	세대수	세대원
2004	4,121	11,187	3,406	9,232	715	1,955
2005	4,234	11,583	3,491	9,502	743	2,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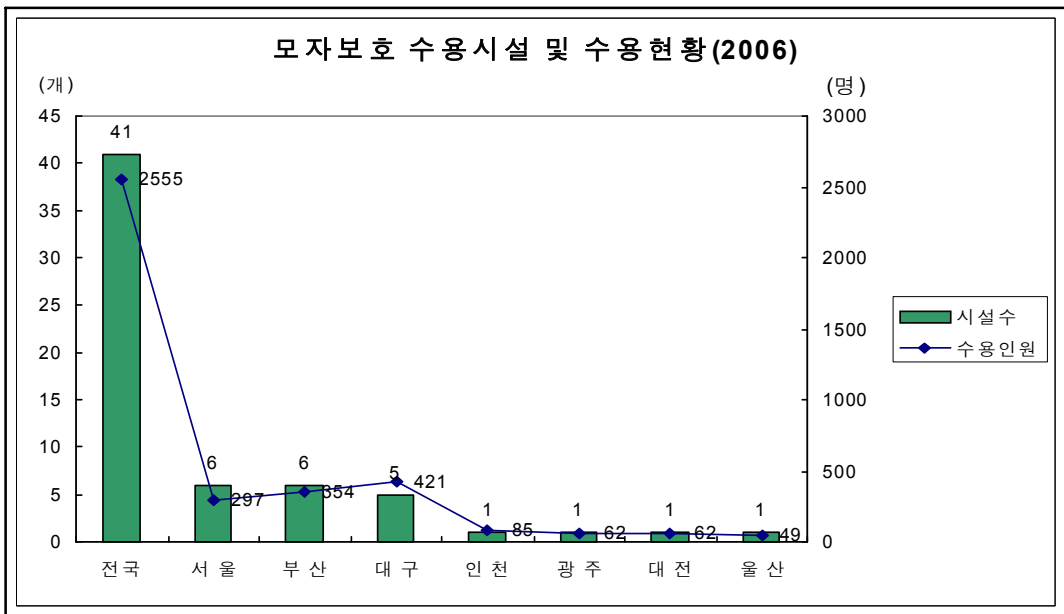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수	세대원	세대수	세대원	세대수	세대원
2006	5,109	13,859	4,239	11,389	870	2,470
2007	5,391	14,610	4,436	12,033	955	2,577

자료 : 대전광역시청 내부자료

## 2) 모자보호 수용시설 및 수용현황

모자보호 시설수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자가정 현황은 1995년 전국의 37개 시설에 2,330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는 39개의 시설에 생활인원이 2,59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41개의 시설에 생활인원이 2,555명으로 감소하였다. 대전지역의 경우 1개의 모자보호 시설에 62명이 생활보호되고 있다.

[그림 2-36] 모자보호 수용시설 및 수용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표 2-28> 한부모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시설구분)
루 시 모 자 원	중구 선화동 362-22	256-2911	모자보호시설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서구 복수동 283-271	583-8875	모자일시보호시설
아 침 뜰	중구 문화동 27-25	585-3004	미혼모시설
대 전 자 모 원	대덕구 상서동 830-6	934-6934	미혼모시설
대 전 클 로 버	중구 문화동 441-14 보광빌라 402호	583-4006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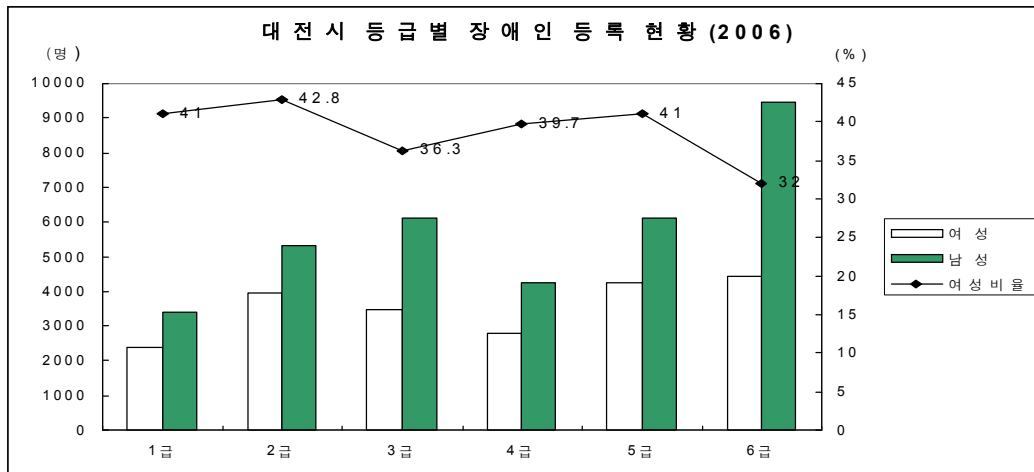
자료 :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4. 여성장애인

### 1) 대전의 장애별 등록현황

2006년 현재 등록된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 비율이 가장 높으며 기타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 순이다. 등급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모든 등급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38.1%, 1급의 41%, 2급의 42.8%, 3급의 36.3%, 4급의 39.7%, 5급의 41%, 6급의 32%가 여성이다.

[그림 2-37] 대전시 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200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2007년 12월말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대전시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체 장애 비율이 가장 높으며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순이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39.3%, 1급의 40.9%, 2급의 42.9%, 3급의 37.5%, 4급의 42.0%, 5급의 43.1%, 6급의 33.1%가 여성이다. 모든 장애유형에서 남성의 장애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2007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2007. 12월말 현재)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계	60,079	6,127	9,603	10,148	7,629	11,565	15,007
	남	36,496	3,624	5,479	6,343	4,428	6,580	10,042
	여	23,583	2,503	4,124	3,805	3,201	4,985	4,965
지 체	계	31,472	1,200	2,338	4,276	5,315	8,676	9,667
	남	19,645	827	1,472	2,920	2,999	4,880	6,547
	여	11,827	373	866	1,356	2,316	3,796	3,120
뇌병변	계	6,810	1,915	1,932	1,651	579	400	333
	남	3,829	997	977	962	379	274	240
	여	2,981	918	955	689	200	126	93
시 각	계	6,239	884	205	319	286	514	4,031
	남	3,897	475	110	181	160	307	2,664
	여	2,342	409	95	138	126	207	1,367
청각	계	5,668	135	1,128	951	998	1,480	976
	남	3,193	83	623	499	585	812	591
	여	2,475	52	505	452	413	668	385
언어	계	342	-	30	142	170	-	-
	남	224	-	16	83	125	-	-
	여	118	-	14	59	45	-	-
지적	계	3,827	1,282	1,439	1,106	-	-	-
	남	2,323	782	826	715	-	-	-
	여	1,504	500	613	391	-	-	-
자폐성	계	448	161	226	61	-	-	-
	남	366	126	191	49	-	-	-
	여	82	35	35	12	-	-	-
정 신	계	2,233	309	972	952	-	-	-
	남	1,162	166	511	485	-	-	-
	여	1,071	143	461	467	-	-	-
신 장	계	1,444	79	1,091	-	6	268	-
	남	805	54	579	-	4	168	-
	여	639	25	512	-	2	100	-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심 장	계	354	16	57	276	-	5	-
	남	202	5	40	152	-	5	-
	여	152	11	17	124	-	-	-
호흡기	계	413	98	106	209	-	-	-
	남	318	69	84	165	-	-	-
	여	95	29	22	44	-	-	-
간	계	182	37	40	42	-	63	-
	남	141	33	29	34	-	45	-
	여	41	4	11	8	-	18	-
안면	계	61	3	8	31	19	-	-
	남	43	2	4	22	15	-	-
	여	18	1	4	9	4	-	-
장루 요루	계	321	1	4	24	133	159	-
	남	195	1	1	15	89	89	-
	여	126	-	3	9	44	70	-
간질	계	265	7	27	108	123	-	-
	남	153	4	16	61	72	-	-
	여	112	3	11	47	51	-	-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주 : 2007년 12월 말 현재 기준임

## 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대전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을 보호,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6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성폭력상담소도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시설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보호시설 1개소, 성매매피해자청소년 보호시설 1개소가 있다. 또한 긴급전화 1366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긴급한 신고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연계, 정보안내 등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고, one-stop지원센터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지원을 24시간 연중무효로 긴급지원하고 있다.

**<표 2-30>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2007)**

0(단위 : 개소)

구 분	운영시설수
가정폭력상담소	6
성폭력상담소	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여성긴급전화 1366	1
성매매피해상담소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1
성매매피해자청소년 보호시설	1
one-stop 지원센터	1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시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을 <표2-31>과 같이 해오고 있다. 2007년 현재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한해동안 799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을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연 52명이 입소해서 보호받았다. 법률구조지원 등과 같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하고 있으며,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도 2회 운영하였다.

**<표 2-31>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 현황(2007)**

(단위 : 개소, 건)

구 분	상담 및 지원현황
성매매 피해 상담소	상담실적 :1개소(느티나무) / 799건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실적 : 2개소 . 연 52입소 보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	기능보상사업 : 방염시설(2개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법률구조지원 등 5개 사업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운영 : 2회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시도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41개소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660명 정원에 현재 입소자가 509명으로 입소율이 77.1%에 이르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2개소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43명 정원에 현재 입소자가 27명으로 62.8%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다.

**<표 2-32> 시도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시설수	입소자	
		정원	현원
전국	41	660	509
서울	15	205	186
부산	5	126	70
대구	4	66	53
인천	1	14	5
광주	1	9	10
대전	2	43	27
울산	2	25	19
경기	2	24	24
충남	1	20	12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 3호

주 : 2006. 12. 31 기준 통계임

## 제4절 정책결정에의 여성 참여

### 1.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대전시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은 2007년 현재 1,466명으로 대전시 전체공무원 4,412명의 33.2%이다. 대전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5년 30.9%, 2006년 32.3%, 2007년 33.2%로 증가추세에 있다.

<표 2-33> 대전의 여성공무원 직급별 비율(2005~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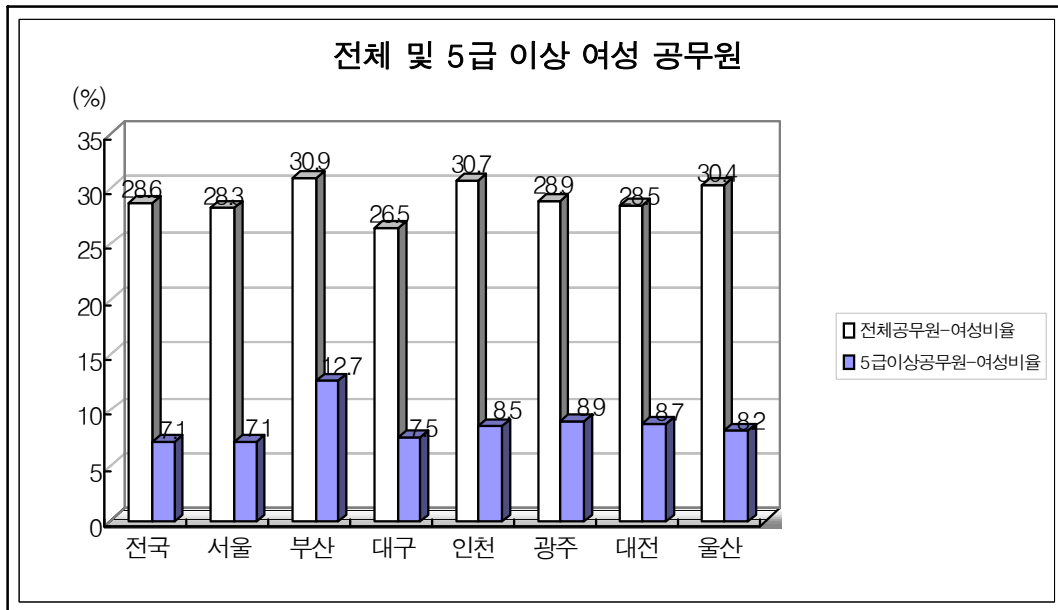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5			2006			2007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총계	4,234	1,310	30.9	4,371	1,412	32.3	4,412	1,466	33.2
소계	507	22	4.3	521	28	5.4	539	39	7.2
1급				2			2		
2급	4	0	0	2	0	0	1	0	0
3급	14	0	0	16	1	6.3	14	1	7.1
4급	87	3	3.4	89	2	2.2	91	2	2.2
5급	402	19	4.7	412	25	6.1	431	36	8.4
소계	3,727	1,288	34.6	3,850	1,384	35.9	3,873	1,427	36.8
6급	959	143	14.9	1,003	161	16.1	1,085	180	16.6
7급	1,600	571	35.7	1,616	599	37.1	1,622	657	40.5
8급	718	352	49.0	747	395	52.9	751	378	50.3
9급	450	222	49.3	484	229	47.3	415	212	51.1
소계	-	-	-	-	-	-	-	-	-
연구관 / 지도관	-	-	-	-	-	-	-	-	-
연구사 / 지도사	-	-	-	-	-	-	-	-	-

자료 :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상위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체 539명 중 39명으로 7.2%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여성 공무원은 하위직급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6급의 경우에도 총 1,085명 중 여성은 180명으로 16.6%에 불과하므로 상위 직급에 여성 공무원을 증가시켜 직급별로 여성 공무원을 균형되게 배치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림 2-38] 전체 및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2008)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전의 여성 공무원 가운데, 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과 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4.5%로 전국 평균 28.7%보다 낮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예산부서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6.1%로 나타났다. 실국주무과, 인사부서, 감사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4.7%, 20.9%, 16.7%로 나타났다.

**<표 2-34> 시도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2007.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계			기 획			예 산			인 사			감 사			실국 주무과		
	전 체	여 성	비 율	전 체	여 성	비 율	전 체	여 성	비 율	전 체	여 성	비 율	전 체	여 성	비 율	전 체	여 성	비 율
전국	32939	9422	28.7	1740	451	25.9	1465	403	27.5	1839	460	25.0	1751	276	15.8	26144	7852	30.0
서울	8371	2631	31.4	197	62	31.5	167	54	32.3	249	86	34.5	393	74	18.8	7365	2355	32.0
부산	2079	735	35.4	105	35	33.3	96	40	41.7	128	42	32.8	121	25	20.7	1629	593	36.4
대구	1420	412	29.0	81	22	27.2	62	17	27.4	62	22	35.5	78	16	20.5	1137	335	29.5
인천	1535	551	35.9	78	30	38.5	69	21	30.4	66	23	34.8	75	13	17.3	1247	464	37.2
광주	786	222	28.2	53	11	20.8	42	9	21.4	54	10	18.5	46	11	23.9	591	181	30.6
대전	936	229	24.5	51	15	29.4	46	12	26.1	43	9	20.9	42	7	16.7	754	186	24.7
울산	1145	379	33.1	63	17	27.0	58	29	50.0	45	17	37.8	60	11	18.3	919	305	33.2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08)

## 2.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보

2006년 자치단체별 전국 위원회수는 1,112개이다. 대전은 8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당연직 여성위원은 19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위촉직 여성위원은 400명으로 35.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과 마찬가지로 위촉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높다.

**<표 2-35>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단위 : 개, 명, %)

시도	위원회수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국	1,112	4,575	258	5.6	12,667	4,556	36
서울	67	291	14	4.8	1,193	444	37.2
부산	72	297	12	4.0	728	281	38.6
대구	59	232	14	6.0	678	254	37.5
인천	53	161	23	14.3	578	210	36.3



시도	위원회수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광주	60	213	15	7.0	592	200	33.8
대전	88	328	16	4.9	1,140	400	35.1
울산	62	265	9	3.4	513	196	38.2

자료 : 여성부, 『여성가족통계연보 제3호』  
 주 : 2006. 12. 31 현재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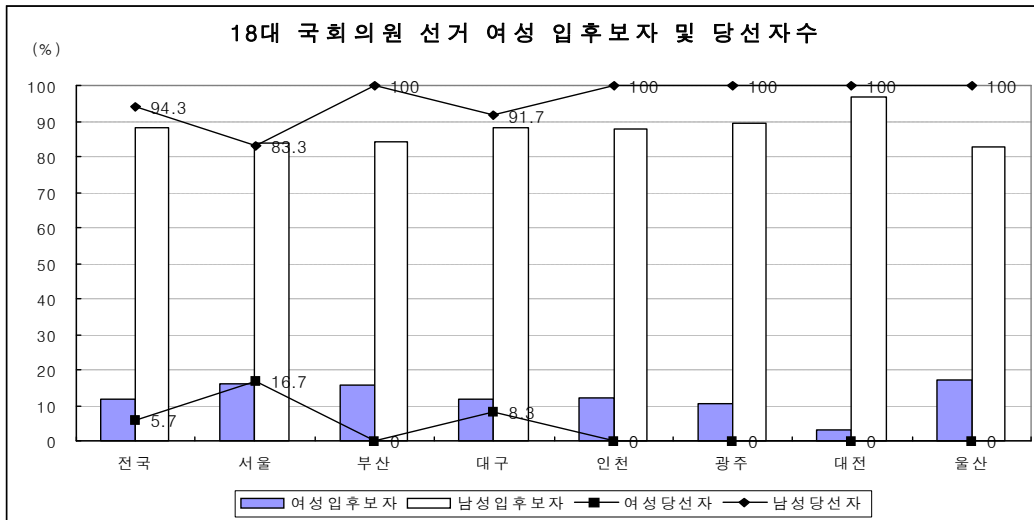
### 3. 여성정치인 양성

#### 1) 18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제18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45개 지역구에 총 132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 17대 총선 여성 출마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의 석 299석 중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27석을 차지해 1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6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5.3%에서 8.4% 증가한 수치이다.

대전지역의 경우는 1명이 입후보해서 당선되지 못했다.

[그림 2-39] 18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 DB

## 2)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

민선5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여성 참여를 보면, 비례대표 여성 할당에 힘입어 시의원 중 여성은 15.8%(3명)로 전국 평균 11.9%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시의회 여성 의원 참여율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63명 중 여성의원 10명으로 전국 평균 기초 의회 여성의원 비율 15.1%와 비슷한 수준이나,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 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표 2-36> 지역별 민선5기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 명, %)

시도별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국	738(78)	88(56)	11.9(71.8)	2887(375)	436(326)	15.1(87.5)
서울	106(10)	13(6)	12.3(60.0)	419(53)	81(48)	19.3(90.6)
부산	47(5)	6(4)	12.8(80.0)	181(24)	34(23)	18.8(95.8)
대구	29(3)	5(2)	17.2(66.7)	116(14)	17(11)	14.7(78.6)
인천	33(3)	3(2)	9.1(66.7)	112(15)	17(13)	15.2(86.7)
광주	19(3)	3(2)	15.8(66.7)	68(9)	18(9)	26.5(100.0)
대전	19(3)	3(3)	15.8(100.0)	63(8)	10(6)	15.9(75.0)
울산	19(3)	5(2)	14.3(63.6)	50(7)	11(6)	22.0(85.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2008

주 : 2006. 5. 31. 당선자 기준, ( )안은 비례대표

## 4. 여성의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 1) 대전 여성단체 현황

대전의 여성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여성단체 수는 총 34개이고 그 중 사단법인이 20개, 사회단체가 3개, 공법단체가 1개, 기타가 10개이다.

**<표 2-37> 대전 여성단체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단체수	사단법인	사회단체	공법단체	기 타
1998	31	18	3	1	9
2001	33	20	3	1	9
2003	33	20	3	1	9
2004	33	20	3	1	9
2005	34	20	3	1	10
2006	34	20	3	1	10
2007	34	20	3	1	10

자료 :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2) 대전 여성단체의 협의회 현황

지역 여성 단체는 크게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로 구분된다. 현재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는 13개이며 63,038명의 회원이 있다. 반면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21개 단체가 있고 회원은 12,997명이다.

**<표 2-38> 대전 여성단체의 협의회 가입현황**

(단위 : 명, 개소)

계		협의회 및 가입단체		미가입단체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34	76,035	13	63,038	21	12,997

자료 :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표 2-39>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구 분	단체명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 새마을 부녀회
	한국꽃꽂이협회 대전충청지역연합회장
	대전간호협회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대전광역시 식문화연구회
	대한어머니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대한여약사회 대전광역시지부
	아이코리아 대전광역시지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의 모임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대전광역시지부	

**3) 여성발전기금 지원 현황**

2007년 현재 총 17개 사업 72,621,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2-40> 여성발전기금 년도별 지원현황**

연 도	지원단체수	지원사업수		지원금액(천원)
		개인	단체	
1998	18개	0	28개	78,500
2000	15개	0	25개	89,900
2002	10	0	23	72,000
2003	12	0	27	82,500
2004	16	0	32	84,684
2005	12	0	25	72,500
2006	17	0	19	65,716
2007	16	0	17	72,621

자료 :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표 2-41> 여성단체 활동 현황**

구 분	주요활동	단 체 명
직능단체	전문직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여약사회, 한국꽃꽂이협회
여성권의 운동단체	의식개혁	대전 YWCA,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환 경	대전 YWCA, 한국부인회
	정치참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소비자	한국부인회
상담전문단체	가정폭력	대전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들꽃 가정폭력상담소, 대전 YWCA 가정폭력상담소, 동구 가정폭력상담소, 대전 사랑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대전 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 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 성폭력상담소, (사)대덕사랑교육문화복지재단 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대전 YWCA 여성의 쉼터
	성매매	느티나무 성매매피해상담소, 구세군 정다운집, 우리청소년쉼자리
봉사활동단체	사회봉사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의 모임, 대한전물군경 미망인회,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4) 사회참여 활동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양성평등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들의 역량 발휘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재평가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은 전국 평균 36.6%보다 조금 높은 38.7%로 나타났다. 단체 중 「친목 및 사교단체 (75.8%)」에 참여한 여성이 75.8%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단체(30%)」,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26.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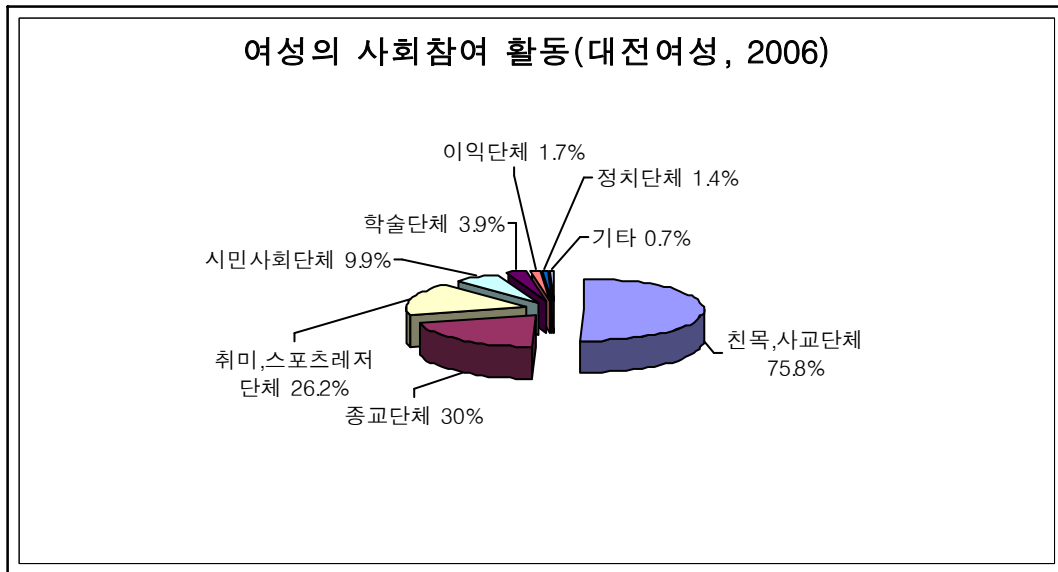
<표 2-42>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단위 : %, 중복응답)

	15세 이상 인구	참여자	활동 분야							
			친목,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기타
여 성										
전 국	100.0	36.6	76.2	28.1	22.3	11.0	3.4	1.7	0.6	0.4
서 울	100.0	33.5	69.8	34.7	26.2	9.9	5.0	1.7	0.7	0.5
부 산	100.0	35.4	81.5	23.2	21.2	8.9	2.5	1.2	0.4	0.4
대 구	100.0	44.5	83.2	23.4	21.6	8.2	2.7	1.7	0.3	0.1
인 천	100.0	34.3	72.2	32.5	21	12	3.6	1.6	0.6	0.6
광 주	100.0	35.8	75.7	30.2	22.4	15.3	5.7	2.2	0.8	1.3
대 전	100.0	38.7	75.8	30	26.2	9.9	3.9	1.7	1.4	0.7
울 산	100.0	48	87.2	18.5	24	10.5	1.6	2.4	0.9	0.0
남 성										
전 국	100.0	41.0	81.0	15.7	33.1	10.5	4.1	5.1	0.6	0.3
서 울	100.0	33.9	75.5	21.4	34.9	9.5	7.0	4.4	1.7	0.4
부 산	100.0	39.5	82.8	12.0	30.1	11.0	2.6	4.1	1.4	0.1
대 구	100.0	44.9	84.8	14.7	33.7	6.9	4.0	3.9	0.9	0.2
인 천	100.0	37.8	76.1	15.1	33.2	6.7	2.1	4.0	1.4	0.5
광 주	100.0	38.1	79.7	18.0	34.4	12.4	5.1	5.0	3.1	1.1
대 전	100.0	42.8	81.5	15.3	36	11.0	5.1	4.8	1.5	0.2
울 산	100.0	52.7	89.1	9.9	35.9	9.5	1.6	11.6	1.6	0.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그림 2-40]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대전여성, 2006)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 5)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 분야

지난 1년 동안 대전여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5.5%이며, 활동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51.7%)', '환경보전·범죄예방 등과 관련(21.3%)', '자녀 교육 등 관련' 7.4%, '기타 관련(7.5%)', '국가 및 지역행사 등 관련(7.4%)',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수해 복구 관련(4.2%)'순이었다.

여성(15.5%)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남성(13.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참여율(59.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13.9%), 50대 순이며, 60세 이상의 참여율(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전여성 중 76.8%는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도 17.6%는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표 2-43> 자원봉사 참여 및 참여분야**

(단위 : %, 중복응답)

	15세 이상 인구	참여자	환경 보전, 범죄 예방 등	국가 및 지역행사 등	자녀 교육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재소자 등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수해 복구	기타 (헌혈 등)
<b>&lt;전 국&gt;</b>								
여 성	100	14.6	19.2	9.8	16.4	54.8	3.4	11.7
남 성	100	14	35.1	13	4.2	41.6	10.6	12.9
<b>&lt;대 전&gt;</b>								
여 성	100	15.5	21.3	7.4	19.1	51.7	4.2	7.5
남 성	100	13.8	31.8	6.9	5	50	11	11.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주 : 자원봉사 종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수응답으로 집계함.



---

## 대전의 여성정책

---

제1절 여성정책의 흐름

제2절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제3절 여성정책 추진 현황

---

## 제 3 장 대전의 여성정책

### 제1절 여성정책의 흐름

#### 1.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정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의 확보를 위하여 가족법과 상속법 및 민·형사상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시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조치의 강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2001년 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내용은 크게, 여성정책, 여성정책위원회, 여성발전·복지기금,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시정 각 분야의 주요 여성 정책 및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을 포함하여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 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여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 평가 및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공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제 및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 요보호여성에 대한 보호, 여성 단체 지원, 가정·학교·사회교육 과정에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 **2. 대전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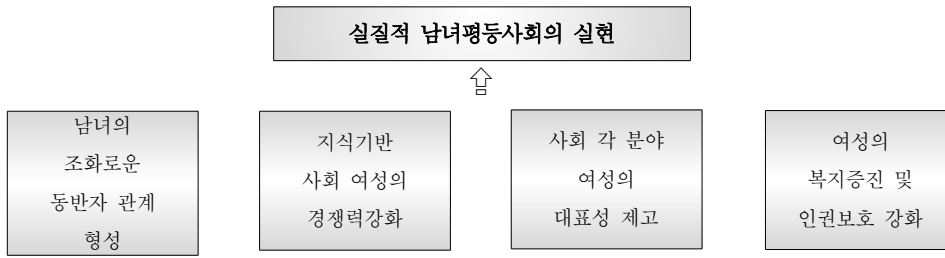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인식을 극복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1998~2002년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여 1998년 6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대전광역시는 1998년 이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3~2007년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대전광역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과 목표**

▣ 정책비전과 목표



▣ 추진전략

성주류화/협력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성정책의 주류화에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그리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로 10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3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1. 제2차 대전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표 3-1> 제2차 대전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1-1.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p>1-2-2.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여성통계연보</li> <li>• 주민등록인구통계작성보고</li> <li>• 통계연보제작(시/구)</li> <li>• 시정백서</li> </ul> <p>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평가교육(한국양성평등진흥원교육과전)</li> <li>• 성인지적 정책형성과정운영</li> </ul>
2.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p>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p> <p>2-1-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실적</li> </ul> <p>2-1-2.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급 행정직 공개채용</li> <li>• 9급 공무원 공개채용</li> </ul> <p>2-1-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li> <li>• 1과 1여성제 운영</li> <li>• 여성공무원 승진확대</li> <li>• 여성공무원 포상확대</li> </ul> <p>2-1-6.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li> </ul> <p>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p> <p>2-2-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지도자아카데미</li> <li>• 여성지도자육성 캠프 및 연수</li> <li>• 여성정치대학</li> </ul> <p>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p>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p>3-1. 여성과학인력 육성 및 지원</p> <p>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p> <p>3-2-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산학협동심의회</li> <li>•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li> <li>• 우리음식사랑회및 생활개선지원육성</li> </ul> <p>3-2-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농촌정주를 위한 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도우미지원</li> <li>• 학자금 지원</li> </ul>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p>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양육비원</li> <li>• 보육료 지원</li> </ul> <p>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 제고</p> <p>3-3-1.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p> <p>3-3-2. 여성기업자금원활화 및 경영개선지원</p> <p>3-3-4.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벤처기업사업공간지원</li> <li>• 경영안정자금지원</li> <li>• 여성기업인제품구매</li> </ul> <p>3-4. 여성정보화 촉진</p> <p>3-4-2. 여성 정보통신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교육실시</li> </ul> <p>3-4-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위민넷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관련인터넷 사이트 운영</li> </ul> <p>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p> <p>3-5-1. 여성평생교육 지원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회관건립</li> <li>• 수강생 보육실 및 상담실 운영</li> <li>•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li> </ul>
<p>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p>	<p>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개선</p> <p>4-2.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p> <p>4-2-2.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인력확보 및 지원</li> </ul> <p>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p> <p>4-3-3.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및 기회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사회교육실시</li> <li>• 고용촉진훈련</li> </ul> <p>4-3-5. 여성고용촉진기반의 구축</p> <p>4-4.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p> <p>4-4-1.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p> <p>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보호와 능력개발</p> <p>4-5-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적용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근로사업자 보험가입</li> </ul> <p>4-6. 보육서비스의 강화</p> <p>4-6-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li> <li>•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li> <li>• 이용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li> <li>• 보육조례제정</li> </ul>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p>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행정전산망 구축</li> <li>4-6-2.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보육시설 확충</li> <li>• 특수보육시설보조교사 배치</li> </ul> </li> <li>4-6-3.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확대지원</li> <li>• 종사자처우개선</li> <li>• 보육도우미 지원</li> <li>•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li> <li>• 특수보육시설 난방비 지원</li> <li>• 교재교구비 지원</li> </ul> </li> <li>4-6-4. 직장보육의 활성화</li> </ul>
<p>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1.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기금사업지원</li> <li>• 시구여성단체장 연석회의</li> </ul> </li> <li>5-1-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li> <li>5-1-3.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 확대</li> </ul> </li> <li>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1.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교육</li> <li>•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li> <li>• 행정도우미 운영</li> <li>• 자원봉사 모집확대</li> </ul> </li> <li>5-2-2.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li> <li>• 자원봉사포상</li> <li>• 선진지 견학</li> <li>• 자원봉사 대축제</li> <li>• 자원봉사박람회 및 나눔축제</li> <li>• 자원봉사자 교육 및 다짐대회</li> </ul> </li> <li>5-2-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li> </ul> </li> </ul> </li> <li>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문화예술활동지원</li> <li>•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5-3-3.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li> </ul> </li> </ul>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p>6.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p>	<p>6-1. 통일대비 여성역량강화 및 참여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6-2-4. 환경관련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2003)          6-3.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활성화            6-3-4.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 여성정책 국제포럼</p>
<p>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p>	<p>7-1. 여성건강증진 대책강화          7-1-1. 여성건강권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구축              • 무료암검진 검사              • 건강검진 검사          7-1-2. 모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 임신부 영유아 등록관리              • 모자건강교실 및 임신부교실              • 저소득 임신부 영양제 지원              • 신혼부부등록 및 건강검진              • 보건교육          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7-2-1.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 모자가정교육 및 캠프              • 모자보호시설 운영          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 제고              • 노인일자리 박람회              • 시니어클럽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7-3-2.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 재가노인식사배달              • 무료급식소 운영              • 노인건강검진              • 노인개안수술              • 치매상담센터 운영          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4-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p>
	<p>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p>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강화	8-1-1. 성매매관련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li> <li>• 성매매인권지원상담소 운영지원</li> <li>•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li> </ul> 8-1-3.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방지 캠페인</li> <li>• 성매매여성 및 집결지 선도보호 활동</li> </ul>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2-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li> <li>•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li> <li>•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li> <li>•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li> <li>•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li> <li>•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li> <li>•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li> </ul> 8-2-3.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li> <li>• 홍보물 보급</li> </ul>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조성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조성 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구축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1-1. 대상별로 전문화된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양성평등의식교육실시</li> <li>• 양성평등교육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li> </ul> 10-1-3.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 2. 여성정책 추진체계

1998년 9월 가정복지국 내 청소년복지과가 체육청소년과로 이전하면서 가정복지국 내 가정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여성정책과로 통합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가정

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이 복지국으로 통합되었으며, 복지국 내보건과와 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통합되기도 하였다. 당시 여성생활계는 여성복지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9년 6월, 복지국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계, 노인복지계, 장애인복지계, 노사협력계), 여성정책과(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가정복지계, 아동복지계), 보건과(보건계, 의약계, 건강증진계)와 위생과(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관리계)가 신설되었다.

2008년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여성정책계는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속해 있다.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보건위생과)의 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여성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청소년담당, 어린이안전담당, 보육담당의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전체 102명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에는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5명, 가정복지 5명, 청소년 4명, 어린이안전 3명, 보육 4명, 기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의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복지 여성 국장	복지 정책 과	노인 복지 과	장애인 복지 과	보건 위생 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계	여성 정책	가정 복지	청소 년	어린 이 안전	보육	기타
인원수	102	1	21	13	12	32	23	5	5	4	3	4	2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

여성정책계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① 양성평등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②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여성의 취업증대와 사회참여 지원 ④ 여성자원활동 지원 사업 ⑤ 여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⑥ 성희롱 예

방교육 및 홍보 ⑦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⑧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및 복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여성정책의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성인지 관점의 폭넓은 확대와 성주류화 정책으로 인한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 인력인 여성정책담당관 신설과 조직의 강화가 요구된다.

### **3. 여성 정책 예산 및 여성발전기금**

#### **1) 여성정책 예산**

2004년도 대전광역시의 예산 중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23,594백만원으로, 여성정책담당부서가 240백만원, 여성복지담당부서가 1,88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아동보육담당은 21,377백만원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관련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2005년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계는 337백만원(국비168백만원, 시비 169백만원), 여성복지 담당은 2,652백만원(국비 1,609백만원, 시비 1,043백만원), 아동보육담당은 27,559백만원(국비 16,135백만원, 시비 11,424백만원), 여성정책위원회는 102백만원(전액 시비)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 의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예산 책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 2006~2008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서명	전년도 본예산	해당년도 본예산	전년도 대비 증감	증가율
2006	● 시 전체예산		20,746		
	● 양성평등과	30,650	52,208	21,558	70.3%
	- 여성정책	439	1,012	573	
	- 여성복지	2,652	3,449	899	
	- 아동보육	27,559	47,639	20,080	
	- 위 원 회	102	108	6	
2007	● 시 전체예산		22,384억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56,872	79,729	22,857	40.2%
	- 여성정책	1,012	3,598	2,586	
	- 가정복지	3,449	3,838	389	
	- 청소년	4,664	6,195	1,531	
	- 아동보육	47,639	65,983	18,344	
- 위 원 회	108	115	7		
2008	● 시 전체예산		24,021억		
	● 여성가족청소년과	88,742	108,407	19,665	22.2%
	- 여성정책	3,716	2,580	1,136	
	- 가정복지	3,911	5,458	1,547	
	- 청소년	6,094	8,257	2,163	
	- 아동 - 보육지원	12,541 62,480	14,756 77,356	22,15 14,876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2) 여성발전기금 운영

대전광역시에서는 1993년 12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단체 및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까지 목표액을 50억으로 정하고, 기금은 시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2001년 12월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으로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이 변경되어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통합되었다.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교육비 및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지원 사업,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기금 집행은 전년도 운용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복지여성국장이 기금 운용관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분임기금운용관이 된다. 기금의 운용을 위해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연2회 정기회의를 통하여 지급 기원 단체 및 개인을 결정한다.

2007년 여성발전·복지기금 이행 실적을 보면,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72,621천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를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을 공모하여 18개 사업을 선정, 총 72,000천원을 지원하였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복지기금의 년도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4> 여성발전·복지기금 년도별 지원현황**

(단위:사업수/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발전복지기금조성	150백만원	15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27개/82.5 백만원	32개/84.7 백만원	25개/72.5 백만원	21개/65.7 백만원	17개/72.6 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9~12월	9~12월	9~12월	9~12월	9~12월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및 캠프	2회/400명	2회/400명	2회/425명	2회/425명	2회/450명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공모	10~12월	10~12월	10~12월	10~12월	10~12월

자료 :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여성발전기금지원은 해마다 10월에서 12월 지원 사업의 공개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 20여 개의 단체와 법인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4. 기타사항**

##### **1)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부 신설**

대전광역시는 2007년부터 지역 정책 개발 전문 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부를 신설하여 여성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2명의 책임연구원과 2명의 위촉연구원(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정책연구부는 2007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 연구, 대전광역시 가족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대전여성 사회참여지표 개발 및 여성정책 현황과 개선에 대한 연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지원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 용역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격월로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을 주제를 변경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가족공동체포럼은 2007년 6회의 정기포럼과 1회의 정책워크숍 외 가족코칭강연 등을 개최하였고, 2008년 현재 5회의 정규 포럼과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대전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부는 여성과 가족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오고 있다.

### **제3절 여성정책 추진 현황**

대전광역시는 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보급, 성별영향평가 실시,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 1. 성인지력 향상과 성별영향평가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양성평등 정책 분석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적 정책 기획 훈련도 실시해 오고 있다.

**<표 3-5> 2007년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실적**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성평등의식 함양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자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횟 수 : 2회</li> <li>- 대 상 : 실국 주무담당 사무관 및 사업소 주무담당주사</li> <li>- 인 원 : 50명</li> </ul> </li> <li>○성별영향평가과정 전문교육 : 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 1회, 53명(男42,女11)</li> <li>- 대상 : 실국 주무담당 사무관 및 사업소 주무담당주사</li> </ul> </li> <li>○성별영향평가 순회교육/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 2회, 201명(男128,女73)</li> <li>- 대상 : 시·구 공무원</li> </ul> </li> <li>○성별영향평가 전문교육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진흥원</li> <li>- 인 원 : 22명(男9, 女12)</li> </ul> </li> <li>○성별영향평가 교육자료 발간 : 3종</li> </ul>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 환류점검 워크숍 : 1회</li> <li>○양성평등 교육강사 워크숍 :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 환류점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 1회 38명(男28,女10)</li> </ul> </li> <li>○양성평등 교육강사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 : 1회 54명(男2,女52)</li> </ul> </li> </ul>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 책임관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실국 주무담당 사무관 및 사업소 주무담당주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 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실국 주무담당 사무관 및 사업소 주무담당주사</li> </ul> </li> </ul>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주과정(35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주과정(36명/男14,女22)</li> </ul> </li> </ul>	정상추진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07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시 뿐 아닌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성별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이수 받은 실적도 나타나 있다. 양성평등 교육 강사 워크숍을 54명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52명을 지정하여 대전시 각 실국에서 양성평등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관련한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2003~2007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	-	4개 과제	14개 과제	24개 과제
성별영향평가 추진기관			시	시, 구	시, 구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제 운영	-	-	-	52명	52명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	-	-	3회, 130명	1회, 36명
성별영향평가 순회교육 실시	-	-	-	-	2회, 201명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	-	-	1회, 14명	3회, 106명
양성평등 교육강사 워크숍	-	-	-	-	1회, 53명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	-	-	30명	30명	36명
성별영향평가 교육교재	-	-	2종	3종	2종
성별영향평가 사례집				1종	1종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과제 수의 면에서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추진 기관도 대전시 단독 수행에서 각 자치구로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제를 실시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성



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대상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9월에는 대전시와 구의 공무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워크숍을 4일간 실시하여, 교육 강화를 통한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정책 기획 및 실행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그 필요성에 대한 저변 확대가 절실하며, 특히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수제 등도 성인지적 정책형성 기반 구축을 위해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1) 성인지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과 성인지 교육은 꾸준히 공무원 교육원과 각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7> 공직자 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의식교육	-	-	27	1,011	767
전문교육	1	2	15	14	19
워크숍	26	26	50	11	52
교육교재 발간	-	-	2종	3종	2종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앞에서 논의된 성별영향평가 교육 과정 외에도 2007년에 대전광역시의 공무원 19명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대전시 중구는 양성평등공직자 교육을 2회,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유성구는 양성평등 의식 교육을 2회 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중구는 여성단체 및 성인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구도 여성단체 교육을 2회, 8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공무원 교육 기관인 대전광역시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양성평등 관련한 교과목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8> 공무원교육원 양성평등 교과 운영 현황**

(단위 : 교과/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양성평등 교과목 운영	-	-	1/26	1/29	1/36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현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은 1개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실시 및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다양한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행이 요구된다.

## 2.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적 역량 강화

### 1) 여성일자리 확대

#### (1)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여성의 창업상담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여성이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과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영 정보 및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여성 창업을 지원한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3-9> 2003-2007 여성 창업 지원 추진성과**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상공인 상담실 운영	41회	46회	40회	40회	40회
소점포 마케팅 교육	1회	1회	4회	4회	4회
임대료 지원	3업체/ 200만원	9업체/ 18백만원	11업체/ 38백만원	11업체/ 38백만원	-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절차 및 자금 지원 안내를 위한 소점포 마케팅 교육도 2007년 4회 개최하였으며, 소자본 창업 강좌도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 기업인에게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어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여성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소규모 점포 지원 및 경영 영역 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 상담실 및 소점포 마케팅 교육의 확대가 요구된다.

대전광역시는 여성기업인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업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여성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여성 기업의 경영을 안정화 시키고, 아울러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03~2007) 대전광역시는 여성벤처기업 사업 공간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집적시설을 두었으며, 여성창업자에게 사무실, 자금, 경영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여성 창업보육센터(2007년 5월 입주)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 기업의 신기술, 신상품 발표회 및 우수 중소기업 판매 기획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경제인에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2007년, 98개 업체 10,565백만원 지원), 여성 기업 제품(공사 및 용역 포함)구매를 통한 수주 기회도 증대 시키고 있다.

**(2) 여성 정보 통신 인력 양성**

대전광역시는 여성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자 여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는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여성회관도 90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5개 자치구도 2,299명을 대상으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추진하였다.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대전광역시가 주관한 여성 정보화 교육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 2003~2007 여성 정보화교육 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여성회관	5개반/450명	5개반/478명	8개반/745명	10개반/874명	10개반/906명
중구 정보화 교육	300명	300명	300명	459명	664명
서구 정보화 교육	642명	839명	892명	921명	450명
유성구 정보화 교육	612명	650명	790명	793명	698명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3년 이후 대전광역시는 평생교육문화센터,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와 5개 구를 중심으로 여성 정보화 강좌를 개설 운영해 왔다. 기존의 사무자동화 자격증반 중심의 운영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홈페이지 제작 및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정보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목 선정과 개발이 요구 된다.

### **(3)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대전광역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오고 있다. 2007년 주부인턴제를 실시하여 41명의 주부 인턴사원을 배출한 바 있으며, 여성취업 만남의 장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 개최하기도 하였다.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의 5개 자치구와 함께 고학력 경력단

절 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개 하였다.

**<표 3-11> 2007년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

세부사업명	대상자(명)	교육과정
1) 유희 간호사 커리어코칭사업	40(유희간호인력 우선)	5개월
2) 방과후 논술지도사 커리어코칭사업	25(교사자격증소지자 우선)	4개월
3) 방과후 컴퓨터강사 커리어코칭사업	20(IT경력자 우선)	4개월
4) 실천과학·수학강사 커리어코칭사업	25(이공계학사학위 우선)	4개월
계	110	

자료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은 대전 지역의 대학교육기관,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대전시 각급 초등학교와 교육청, 대전고용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였고, 실습을 위해 지역 병원과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덕 연구단지 내 연구기관 등이 협조한 사업이다.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은 대전에 있는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상의 선호도 및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선을 꾸준히 고려하고 있다.

#### **(4)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대전광역시는 시 지정 또는 인정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전승, 보존을 위해 전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여성 인력 개발과 취업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표 3-12> 문화관광해설사 여성인력 활용실적**

(단위 : 명)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해설사/수혜인원	18/52,100	18/46,960	26/42,820	26/73,670	26/89,370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3년에서 현재까지 여성 문화 관광 해설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40명 중 26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대전 문화 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 및 관광자원 해설을 하고 있다.

## 2) 여성의 평생능력 개발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은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구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학습자 상담 기능 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담을 통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하며, 여성 근로 고충 상담도 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대전광역시는 여성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가칭)행복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09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인력 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추진된 여성 평생 교육 지원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3> 2007년 여성 평생 교육 지원 추진 상황

계 획	실 적	이행 상황
여성회관교육 : 109과목 11,295명	여성회관 사회교육 : 127과목 11,082명	정상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 50개과목 1900명	여성인력개발센터 : 72과정 2,072명	
프라이드 동구 여성아카데미 :100명	프라이드 동구 여성아카데미 : 93명	
중구 여성대학(중구) : 300명	중구 여성대학 : 377명	
서피아여성지도자아카데미(서구) : 30명	서구 여성지도자아카데미 : 49명	
○ 제3 여성회관 건립추진 (가칭 여성가족문화회관)- 부지선정 및 매입 추진	○(가칭) 여성가족문화회관 건립추진 - 부지 매입 완료	
○(가칭) 행복가족지원센터 신축추진	○(가칭) 행복가족지원센터 건립추진 - 부지매입 완료(2009. 10 완공목표)	정상 추진
○수강생 보육실 운영 - 평생교육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보육실 운영 : 11,339명/년 ○여성인력개발센터 놀이방 : 558명/년	정상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조례 제정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 07. 5.	정상 추진
○여성인력개발 시행계획 수립	○여성인력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정상 추진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의 잠재 능력과 자활 능력을 지원하고 여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장 산하에 있는 사업소인 여성회관은 2007년 한 해 127개 과목을 개설하고 11,082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당초 목표 보다 많은 72개

과정을 개설하여 2,072명의 수강생을 교육하였다. 또한, 동구, 중구, 서구 등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많은 여성 평생 교육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여성의 복지와 인권 강화

#### 1) 여성의 건강 및 복지

##### (1) 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사업

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오고 있다.

**<표 3-14> 2003~2007 여성 보건의료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개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 성 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	19,628	18,955	32,392	37,389	41,40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9	50	109	290	343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	-	1,953	2,326	2,506
출산 축하물품 지원	-	-	1,500	2,400	2,411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상담을 강화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무료 암검진 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을 비롯하여, 태아검진비 지원 등의 임산부 건강 증진 사업도 펼치고 있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검진 사업은 2003년 이후 매 해 수혜 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관절염 환자 관리 교육 대상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 (2) 모성 건강 사업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는 임산부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와 산전, 산후, 분만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대상자나 비정상적인 소견자에 대하여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표 3-15> 2003~2007 모성건강 지원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임산부 건강검진	438	573	616	1,709	2,295
임산부 영양제공급	800	1,000	1,000	1,000	1,000
불임부부지원	-	-	-	549	430
산모신생아도우미	-	-	-	379	1,530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804	806	1,564	666	515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3년 이후 임산부의 건강검진 건수는 대폭 증가 하고 있다. 출산율의 현저한 저하 현상을 감안하면, 건강검진 수혜자의 수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보건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전광역시에 등록되어 관리된 임산부의 수는 7,055명으로 계획된 수 보다 많으며, 도우미 지원도 계획된 수 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3) 한부모 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질병치료비와 직업훈련생계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

다.

**<표 3-16> 2003~2007 한부모 가정 지원 추진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녀학비·양육비지원	690백만원	784백만원	1,134백만원	1,203백만원	1,283백만원
월동비,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 자녀생활교육비 지원	308백만원	364백만원	416백만원	501백만원	536백만원
모범 한부모가정 시상	10가정	10가정	10가정	10가정	10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2개소 264백만원	2개소 276백만원	2개소 293백만원	4개소 580백만원	4개소 666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기금 지원	132명 86백만원	154명 75백만원	210명 66백만원	194명 57백만원	198명 63백만원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난 5년간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생활교육비, 월동비,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모범 한부모 가정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도 2006년 이후 4개소로 증가했으며, 지원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5,391세대, 14,610명은 지원 혜택을 입었으며, 양육 및 학비 지원금은 1,283백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복지기금지원도 63백만원이었으며, 한부모가정 자녀 생활 교육도 당초 계획된 400명 보다 많은 430명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여성 장애인 취업 지원**

장애인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매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관아래 열리고 있으며, 2006년에는 여성 장애인 14명(총 장애인 취업자 35명)이, 2007년에는 19명(총 장애인 취업자 50명)이 채용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주민

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전개해 오고 있는데, 2007년 전체 도우미 취업자 중 45명이 여성 장애인이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도 연 113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8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시설 확충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가 요구된다.

### (5) 여성 장애인 복지 지원

여성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호책을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복지관 5개소, 주간보호15개소, 공동생활가정 18개소, 단기보호 2개소, 심부름센터 1개소, 기타 이용시설 6개소 등으로 2007년 현재 6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3-17> 2003~2007 장애인 복지시설 및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기관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 고
장애인 복지 시설 수	40	48	49	59	68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기관	-	1	1	1	2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위 시설들은 장애인 주간 보호 및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탁아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수는 320(총 738명)이고,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2006년에는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모임이 창립되어 회원 150명을 시작으로 활동 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도 시립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비롯한 2개소에서 교육된 도우미 29명이 2007년 3,213회 서비스 실적을 올렸다.

## 2) 성폭력·가정폭력

### (1) 여성에 대한 가정·성폭력 상담 시설 운영

대전광역시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 3-18> 2003~2007 가정·성폭력 상담 시설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4	4	5	9	7
성폭력상담소 운영	3	3	5	5	6
성매매 피해상담소	-	-	1	1	1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운영	1	1	1	1	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1	1	1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1	1	1	1	1
성매매피해자청소년 보호시설	1	1	1	1	1
one-stop지원센터	-	-	-	1	1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을 긴급보호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피해 신고를 직접 접수하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하며, 보호시설을 안내하고,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2) 가정·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 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표 3-19> 2003~2007 가정·성폭력 예방 활동 상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정·성폭력 예방교육	20회	20회	26회	30회	45회
예방캠페인 등 홍보	5회	5회	12회	12회	17회
예방 홍보교재 제작	20,000매	40,000매	40,000매	60,000매	80,000매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각종 캠페인과 언론 홍보를 통한 폭력 피해 예방뿐 아니라, 여성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상담원 교육을 통해 피해 여성 상담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에는 공무원 직장교육 19회를 통해 5,106명에게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6회,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과, 공익근무요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연극과 문화행사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였다.

### 3) 성매매

#### (1)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지원

성매매 및 관련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운영 및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법률지원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하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 등 자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표 3-20> 2003~2007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추진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	-	1개소	1개소	1개소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5개 사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 운영	-	2회	2회	2회	2회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 청소년과

2007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운영은 연간 799건이 이루어졌으며, 2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 52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 구조 지원이 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요보호 여성 지원 협의회도 연간 2회 운영되었다.

**(2) 성매매 예방 및 인식 교육**

성매매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 여성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1> 2003~2007 성매매 예방 활동 추진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성매매방지 홍보	2회	2회	2회	11회	11회
성매매 유흥업소 선도활동	4회	4회	12회	12회	12회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성매매 예방 홍보교재 제작	1,000매	1,000매	1,000매	1,000매	20,000매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7년에는 성매매 방지 홍보 캠페인 11회, 성매매 집창촌 선도 보호 활동 14회 등이 실시 되었으며,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교재 3종, 70,000부가 제작되었다.

**4. 돌봄의 사회적 지원**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 보육 서비스의 양질화**

대전광역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기준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육시설 안전망 구축으로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22> 2003~2007 보육서비스 개선 추진 상황**

(단위 : 개소,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	-	-	18개소	17개소	214개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	222개소	285개소	410개소
이용불편신고센터운영	-	-	-	41건	16개소
재무회계규칙 전산화	-	-	-	1,016개소	1,184개소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평가인증 보육 시설은 2007년까지 214개소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육 시설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보육행정 업무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쾌적한 보육 환경 구축과 보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계획하여 410개소의 보육시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참여시켰으며, 보육시설 이용 불편센터를 운영하여 41건의 불편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재무회계 전산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대전시 내 1,184개의 보육시설이 재무회계체계를 전산화하였다.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개선이 계속 요구되며, 따라서 평가인증제의 확대추진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 인증 참여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 (2)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의 사회참여율 상승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영아, 장

애아 등을 위한 보육 시설과,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을 책임지는 특수 보육 서비스의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표 3-23>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확충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특수보육시설 확충	60개소	60개소	104개소	143개소	167개소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	-	-	-	1개소	2개소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난 5년간 대전광역시는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보육 아동 건강검진, 보육시설 교재 및 교구비 지원, 보육 도우미 파견, 특수 및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에는 특수보육시설이 167개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 (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행복한 가족 시책 2007~2010> 수립

대전광역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가족시책(6대 핵심영역과 14개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수립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6대 영역과 38개 추진과제가 명시되어 있으며, 6대 핵심영역은 가족돌봄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정책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6대 핵심 영역 중 가족돌봄의 사회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수요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과 노인 및 장애아 가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2)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서비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활동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지원되는 농가 도우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농업 생산 활동과 가사 노동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 또한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5년간 여성농업인 농가소득의 안정과 농촌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해왔다.

<표 3-24> 2007년 여성 농업인 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농가 도우미 지원 : 5명	○농가 도우미 지원 : 5명, 4백만원	정상추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5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 : 24명, 36백만원	정상추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5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13명, 16백만원	정상추진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농업인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농가의 안정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젊은 여성 농업인 감소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 3) 일-가족 양립

### (1) 출산 및 육아 휴직제

대전광역시는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으로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003~2007) 대전광역시는 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대행공무원제 및 대체인력뱅크제를 도입해 왔다. 지난 5년 간의 출산 휴가 이용 및 인력 대체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25> 2003~2007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휴가자 (명)	인력대체					미대체					
		대체자		대체방법			미대체자		미대체 사유			
		대체인원	대체율 (%)	임용 대기자	일용 직	기타	대체인원	대체율 (%)	동료 대행	예산 미확보	대체인 력 확보 곤란	기 타
2003	54	54	100	-	53	1	-	-	-	-	-	-
2004	99	77	77.8	-	-	77	22	22.2	17	2	1	2
2005	54	47	87.0	2	36	9	7	12.9	5	-	2	-
2006	89	63	70.8	1	62	-	26	29.2	24	-	1	1
2007	87	79	91.0	4	49	26	8	9.0	7	-	-	1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표 3-26> 2003~2007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실적**

(단위 : 명)

구분 년도	이용현황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신청자 수			인력대체		신청자 수			인력대체	
	계	여성	남성	대체인원	대체율 (%)	계	여성	남성	대체인원	대체율 (%)	계	여성	남성	대체인원	대체율 (%)
2003	12	12	-	12	100	3	3	-	3	100	9	9	-	9	100
2004	22	22	-	16	72.7	2	2	-	2	100	20	20	-	14	70.0
2005	22	22	-	17	77.2	2	2	-	100	-	20	20	-	17	85.0
2006	35	34	1	24	68.6	2	2	-	-	-	33	32	1	24	72.7
2007	50	46	4	41	82.0	3	3	-	-	0	47	43	4	41	87.0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출산휴가 인원에 대한 대체율은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85%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2006년 2007년에 들어 남성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육아휴직제의 바람직한 정착이 기대된다. 그러나,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뱅크제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업무대행제도도 지속성을 가지고 활성화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2)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 고용의 안정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의 하나로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대 설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전광역시도 직장 내 보육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3-27> 2003~2007 직장보육시설 확충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직장보육시설 확충	10	10	12	12	15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직장 내 보육시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데이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직장 내 보육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 보육수당을 지원하여 기혼 근로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실시가 요구된다.

## 5. 의사결정에의 참여 확대

### 1)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여성정책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대전광역시의 각

분야 정책 결정과 진행에 있어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증진시켜 오고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취지에 맞춰 여성위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목표율은 40%이며, 부서별로 여성 참여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는 전문여성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여성인력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의 2007년 이행 상황을 보면, 여성위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촉확대를 수시로 촉구하였으며, 임기가 도래한 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새로운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협조 요청을 10회 실행하였다.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의 97개 위원회와 구의 200개 위원회 현황에 대한 조사도 2회 실시하였다. 2007년 대전시가 발굴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 여성전문인력은 690명 이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위원회 별로 여성참여 현황 파악을 년 2회, 6월과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여성위원의 위촉율은 2003년 31.1%에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위원의 위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의 위촉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 회소 분야 (도시, 법률 등) 전문인력을 중점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인재뱅크 운영을 통하여 여성 전문 인력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대전광역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 정치지도자 지도력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 실무인력 양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권자 의식 개선 교육을 통한 여성정치참여 저변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 캠프 및 심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대전광역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 참여 지원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8> 2007 여성의 정치 참여 지원 상황**

계 획	실 적	이행상황
○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 기간 : 4-6월중 - 인원 : 40명	○ 서구 씨피아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 기간 : 3월 - 6월 - 인원 : 49명 수료 - 내용 : 여성의 정치참여방안, 인간관계 등	정상 추진
○ 성인지 예산분석 및 의회 모니터링 활동 : 년2회	○ 성인지예산 전국 네트워크 활동(여민회) - 내 용 : 성인지예산 분석 4회 ○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발족 : 07. 1.18 - 토론회 개최 : 민선4기 1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정상 추진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광역시는 지난 5년간 (2003~2007)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3-29> 2003~2007 여성정치 참여 확대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지도자 육성 캠프	1회, 30명	2회,60명	1회, 40명	1회,40명	1회,40명
포럼 및 세미나	1회, 100명	-	-	1회, 105명	1회, 65명
지도자 교육 및 아카데미	3회, 95명-	2회, 77명	3회, 156명	2회, 72명	1회, 49명
지방의회 인턴사업	-	22명	-	-	-
여성정치대학 운영	-	-	1회, 34명	-	-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5년간 대전광역시는 지방의회 인턴십, 여성정치대학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감각을 극대화하고, 여성 지도자 연수회

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개최로 여성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쟁점들을 연결하여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 6. 평등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확대

### 1) 평등문화 확산

#### (1) 평등문화 확산 운동

양성평등한 가정과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양성평등 교육과 캠프, 캠페인을 개최해 왔으며, 가족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전여성상 수상자를 매해 지정하여 시상해 왔다.

<표 3-30> 양성평등문화 확산 운동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양성평등 교육, 캠프, 캠페인(명)	800	1,100	1,900	2,600	3,300
가족문패달기 운동전개(세대)	-	250	100	100	-3)
대전여성상 시상(명)	3	3	3	3	2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7년에는 민간여성단체인 주부교실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가정문화 세우기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교육프로그램 10회, 사례발표대회 9회, 양성평등 문패 달아주기 10회 100가정 등의 성과가 있었다. 여성주간에는 시와 5개 구의 여성주간 행사가 각각 1건씩 모두 6회 개최되었으며, 전시회와 세미나, 교육 및 참여이벤트에 2,700여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대전여민회의 여성인권축제 <여성인권 쑥쑥>을 개최하여 여성인권 현황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 자료 미확보

## (2)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 실시

공직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뿐 아닌,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 교육원은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취지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순회 교육은 지난 2007년 한 해동안 2회 2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구 별로도 양성평등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표 3-31> 2003~2007 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학교 수	29	22	31	44	46
교육인원 수	7,487	6,984	9,779	13,604	15,611

자료 : 대전광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은 2007년 46개교에서 15,6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 강사를 위한 워크숍도 매해 개최하고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은 의식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데, 2003년 이후 교육 대상자는 매해 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의식교육 대상자가 767명, 전문교육 대상자는 19명이었으며, 워크숍에 참여한 공직자도 5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은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육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도 2006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2007년에는 820명의 보육시설종사자가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다. 양성평등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확산은 절실하며, 특히 고위공직자와 각종 시설의 기관장, 그리고 청소년뿐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하다.

## 2) 여성자원봉사활동

### (1) 여성 자원 봉사의 전문성 강화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은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2002년, 12,664명, 54.5%),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영역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전광역시는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여성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

**<표 3-32> 2003~2007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추진 상황**

사업별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자원봉사자 신규 및 기본교육	517명	966명	1,420명	1,507명	1,855명
전문교육, 관리자 교육 등	75명	495명	139명	245명	265명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난 5년간 대전광역시는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교육 인원도 500여명에서 2007년엔 1,800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관리자 교육도 계속 실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265명의 자원봉사 전문가와 관리자가 자원봉사 특화 교육, 상담기법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자원봉사활동과 시 행정의 효율화를 접목하고자 행정도우미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매해 4000여명의 행정 도우미가 대전광역시청과 각 구청, 그리고 자치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자원 봉사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바탕으로 인력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요구된다.

### (2)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여성의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공로 및 활동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지원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 지난 5년간 대전광역시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혜택을 부여함으



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표 3-33> 2003~2007 자원봉사자 지원 상황**

연도별 사업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상해보험 가입	6,815명	8,508명	8,662명	20,382명	33,600명
표창 및 격려	54명	49명	120명	99명	113명
선진지 견학 및 현장체험	180명	270명	90명	-	-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003년에서 2007년 까지 자원 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는 그 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도 2003년엔 6천 여명이었던 가입자가 2007년에 3만3천 여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여 동기유발과 인센티브 제공을 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자원봉사 나눔의 축제를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연합 개최하여 2,400명의 참여자들이 자원 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경험하였다.

### (3) 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 및 지원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은 향후 자원 봉사 활동의 체계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여성 자원 봉사 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봉사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가를 발굴하며, 수요와 공급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6개에 이르며, 중고 상품 판매처인 행복매장 3개소 운영, 나누미 건강 목욕탕 운영,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외출봉사, 독거노인 방문 봉사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 3) 여성단체활동

#### (1) 여성단체 역량 강화

대전광역시는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 단체 지도자를 육성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3-34> 2003~2007 여성단체 지원 현황**

(단위: 사업수/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발전복지기금조성	150백만원	15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	27개/82.5 백만원	32개/84.7 백만원	25개/72.5 백만원	21개/65.7 백만원	17개/72.6 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	9~12월	9~12월	9~12월	9~12월	9~12월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및 캠프	2회/400명	2회/400명	2회/425명	2회/425명	2회/450명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공모	10~12월	10~12월	10~12월	10~12월	10~12월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난 5년간 여성발전복지기금은 꾸준히 100백만원 이상 조성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20여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18개 사업이 여성발전기금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총 72,000천원을 지원 받았다.

### 4) 여성 교류협력 강화

#### (1)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대전광역시는 여성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한 여성 정책의 효율화 및 사업 확산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성 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표 3-35> 2003~2007 여성단체 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사업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추진	-	-	4개사업 64백만원	2개사업 15백만원	4개사업 45백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 (10~11월)	100명	100명	100명	300명	50명
여성단체회원 관련기관 견학 및 캠프	4회/300명	4회/300명	4회/300명	4회/300명	4회/300명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대전광역시는 여성단체들과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5년 이후 전개된 공동사업은 매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전국여성대회에 여성단체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여성단체 회원의 관련 기관 견학 (대덕 특구 견학, 나로우주센터 견학 등) 및 캠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여성단체 참여 확대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여성단체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여성 관련한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여성단체 간 정보의 교류와 자료 수집 및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표 3-36> 2003~2007 여성단체 참여 현황**

연도별 사업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단체장 정례간담회 개최	12회 33개 단체	12회 33개 단체	12회 33개 단체	12회 34개 단체	12회 34개 단체
여협소식지 발행	2회 1,100부	2회 1,100부	2회 1,100부	2회 1,100부	2회 1,100부
여성정책·정보제안 창구 마련운영	시홈페이지	시홈페이지	시홈페이지	시홈페이지	시홈페이지

사업별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대회를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발휘	700명	700명	800명	800명	1,000명
여성단체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확대	11명	18명	37명	49명	55명
각종 사업평가 평가위원 참여	2회/6명	3회/8명	3회/8명	3회/8명	3회/8명
여성단체 활성화 유공자 표창	3명	3명	4명	4명	5명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난 5년간 여성 단체들은 만남을 정례화 하고 협의회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상호 협조와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3년 이후 여성단체의 각종 위원회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정책과 여성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소식지도 매년 2회 발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매년 여성단체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5명의 여성단체장이 수상한 바 있다.

## 7. 지역 특수사업

### 1) 특수과제: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대전광역시는 양성평등헌장 실천으로 양성평등 수범 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 여성정책위원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양성평등도시! 대전 (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2회, 6000부 발간하였다. 여성정책과 관련한 연구 과제 3건을 추진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양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 강사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003~2007)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7>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 과제, 부, 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양성평등 헌장 제정	2003.7.2	-	-	-	-
대전양성평등 지표 개발	-	2004.12	-	-	-
여성·양성평등 정책연구	6개 과제	6개 과제	8개 과제	8개 과제	3개 과제
성별영향평가	-	-	4개 과제	14개 과제	24개 과제
정책홍보지(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발간	-	-	2회/6,000부	2회/6,000부	2회/6,000부
양성평등 세미나, 포럼	2회	3회	3회	1회	1회
양성평등 교육강사뱅크 운영	26명	26명	47명	47명	47명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2) 여성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대전광역시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여성의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여성단체회원과 주부, 여대생, 전문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여성과 가족 정책 관련한 전문 정보 제공 및 사이버 상담을 위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치구에도 여성 관련 배너를 운영하여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3-38> 2007년 여성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상황

계 획	실 적	이행 상황
○대전시 여성종합정보 「여성시대」 운영	○여성시대 홈페이지 운영 - 여성전문인력 등록코너 운영 ○홈페이지에 “여성” 사이트 개설(메인화면) - 출산지원시책, 여성정책, 가정복지 등 8개 메뉴	정상 추진
○동구 「여성정보」 운영	○동구 「여성정보」 운영 -여성정책, 정보제안, 행사안내 등	정상 추진
○서구 「여성 서구청」 운영	○서구 「여성 서구청」 운영 - 패션, 웰빙, 여성단체소식 등	정상 추진
○대덕구 「여성정보」 운영	○대덕구 「여성정보」 운영 - 정보마당, 나눔터, 행사안내 등	정상 추진

자료: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온라인을 통해 여성과 가족 관련한 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인터넷 사용 확대에 맞춰 보다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에 걸맞는 콘텐츠의 개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 제 4 장

---

###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제1절 설문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 제 4 장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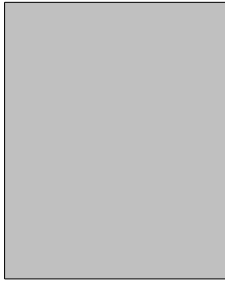
### 제1절 설문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2차 여성 정책 기본 계획(2003~2007)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수요 파악을 위하여 설계되었다. 여성 시설 및 기관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파악을 위한 문항을 비롯하여, 여성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수요, 여성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사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전문가 및 관련자 Focus Group</li> <li>▪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여성단체, 연구자, 교수, 기타 여성정책 전문가</li> </ul>
표본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0명 (개별 응답자)</li> </ul>
표본추출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화표집 Stratified Sampling</li> <li>▪ 각 분야의 전문가 비율 책정 후 설문조사 착수</li> <li>▪ 각 분야 별 설문 목표 비율: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40%, 여성단체 25%, 연구자 및 교수 25%, 기타 여성정책 전문가 10%</li> </ul>
자료수집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대인면접조사</li> </ul>
설문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li> <li>▪ 분야별 여성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li> </ul>





- 분야별 여성 정책 수요
  - 여성정책 관련 예산
  - 여성경제활동 촉진
  - 여성인적자원 개발
  - 보육 사업
  - 여성인권 및 복지
  - 여성의 정치력 향상
  - 양성평등 확산

조사 일정



- 설문조사지 작성 및 사전 조사: 4월~5월
- 설문조사지 완료 및 본조사: 6월
- 자료 입력 및 통계 분석: 6월~7월

## 제2절 조사결과 분석4)

### 1. 전문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전시의 여성정책 평가와 수요도 설문 조사에는 총 220명이 참여하여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51명으로 약 23%를, 여성은 168명으로 응답자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상당수가 여성인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관련 복지시설 관계자가 전체 응답자의 36.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24.5%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단체 실무자와 간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도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이 설문에는 2명의 시와 구의원이 참여하였다.

4) 자세한 조사결과는 부록의 조사결과표를 참조.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51	23.2
	여자	168	76.4
	무응답	1	0.5
직업	공무원	54	24.5
	여성단체 실무자, 간사	33	15.0
	연구자 및 교수, 정책연구전문가	20	9.1
	시 및 구의원	2	0.9
	여성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81	36.8
	기타	28	12.7
	무응답	2	0.9
활동기간	1년 미만	45	20.5
	1년 이상 3년 미만	86	39.1
	3년 이상 5년 미만	38	17.3
	5년 이상 10년 미만	24	10.9
	10년 이상	19	8.6
	무응답	8	3.6
연령	20대	36	16.4
	30대	74	33.6
	40대	71	32.3
	50대	34	15.5
	60대 이상	3	1.4
	무응답	2	0.9
전체	220	100.0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33.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40대(32.3%)이다. 20대는 16.4%를 차지하였으며, 50대 여성 관련 전문가도 15.5%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종사 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60%에 달하고 있어, 여성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기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10년 이상 여성 관련 일을 해온 전문가는 8.6%

에 불과하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여성 관련 일에 종사한 전문가도 10.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3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가 응답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설문 응답자가 설문의 주된 내용인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추진 상황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객관식으로 응답하여야 하는 설문의 특성상 이들이 지닌 대전시 여성정책에 관한 평가나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설문결과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에는 이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주관식 답변을 실었으며, 이들의 주관식 답변을 정책 제언에 반영하여 설문의 의의와 그 결과에 따른 함의를 충분히 드러내려 하였다.

##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인지도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은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이란 비전 아래 ①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②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③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④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인권 보호 강화라는 네 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응답자들은 이 같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35.9%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9%의 응답자는 목표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가 본 설문 응답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공무원인 아닌 기타 여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모름	잘 모름	그저 그러함	조금 알고 있음	매우 잘알고 있음	무응답	전체	인지도 평균 <sup>5)</sup>
1) 목표	40 (18.2)	50 (22.7)	31 (14.1)	79 (35.9)	18 (8.2)	2 (0.9)	220 (100.0)	2.9
2) 10대 핵심 정책과제	41 (18.6)	56 (25.5)	33 (15.0)	74 (33.6)	14 (6.4)	2 (0.9)	220 (100.0)	2.8
3) 34개 소 정책과제	47 (21.4)	68 (30.9)	41 (18.6)	51 (23.2)	10 (4.5)	3 (1.4)	220 (100.0)	2.5
4) 115개의 세부정책 과제	49 (22.3)	75 (34.1)	48 (21.8)	39 (17.7)	5 (2.3)	4 (1.9)	220 (100.0)	2.4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10대 핵심과제는 ①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②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③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④ 남녀고용평 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⑤ 사회문화분야 여성 참여 확대, ⑥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⑦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⑧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⑨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조성, ⑩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으로 구성되 있다. 이러한 10대 핵심 과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응답자들의 40%가 조금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4.1%의 응답자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러하다’라는 응답을 부정적 답변으로 해석한다면, 인지도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부정적 답변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34개 소 정책과제와 115개 세부정책과제에 이르면 더욱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우선 두 항목에 대해 ‘그저 그러하다’는 응답이 목표와 10대 핵심 과제에 비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혀 모르겠다’와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도 34개 소 정책과제에서 115개 세부 정책과제로 갈수록 높

5)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명시함.

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지도 관련된 주관식 응답을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답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응답자가 이러한 시책과 정책에 늘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점도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 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34개 정책과제 성과 평가<sup>6)</sup>

#### 1) 핵심과제 1 -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에 대한 성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과제 중 첫 번째 핵심과제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이며 이 핵심과제는 '여성정책 추진 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과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이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관련 전문가 220인은 두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주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1)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8 (3.6)	21 (9.5)	123 (55.9)	60 (27.3)	7 (3.2)	1 (0.5)	220 (100.0)	3.1
2)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4 (1.8)	28 (12.7)	130 (59.1)	52 (23.6)	5 (2.3)	1 (0.5)	220 (100.0)	3.1

6) 각 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자료가 설문에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각 정책 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에는 여성과 관련한 각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별로 이해도와 인식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개선사항을 제언하기 위한 각 영역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대전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양성평등 관점, 즉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제시된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항목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약 30%의 응답자들은 '성과가 조금 있거나 크다'라고 답하였다.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약 1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저그리하다'라는 평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에 있어 대전광역시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저그리하다'는 비율이 높았다(59.1%). 그러나,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항목에 비해 '성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중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이 '여성정책 추진 기구의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에 비해 좀 더 실행 노력이 필요한 항목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핵심과제 2 -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대한 성과**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두 번째 핵심과제는 '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에는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기업의 여성 관리직 진출 촉진'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그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표 4-4>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3)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 결정 참여 확대	4 (1.8)	26 (11.8)	97 (44.1)	83 (37.7)	9 (4.1)	1 (0.5)	220 (100.0)	3.3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3 (1.4)	37 (16.8)	102 (46.4)	73 (33.2)	4 (1.8)	1 (0.5)	220 (100.0)	3.1
5)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 출 촉진	8 (3.6)	26 (11.8)	108 (49.1)	72 (32.7)	4 (1.8)	(0.0)	220 (100.0)	3.2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앞선 정책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에 비해 다소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우선, '그저 그러하다'라는 평가가 45%선에 머물고 있어 다소 줄었으며, '조금 성과가 있거나 성과가 매우 크다'라는 평가도 핵심영역 1에 비해 다소 수치가 상승했다. 세부 정책 과제 중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는 성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41.8%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35%)'나 '기업의 여성 관리직 진출 촉진(34.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3) 핵심과제 3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성과 평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여성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에는 '여성과학인의 육성 및 지원,' '여성 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 경쟁력 제고,' '여성정보화 촉진,'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강화'로 구성된 정책과제들이 있다.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성과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렇 하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 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6) 여성과학인의 육성 및 지원	4 (1.8)	24 (10.9)	119 (54.1)	64 (29.1)	8 (3.6)	1 (0.5)	220 (100.0)	3.2
7)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9 (4.1)	40 (18.2)	123 (55.9)	42 (19.1)	5 (2.3)	1 (0.5)	220 (100.0)	3.0
8)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6 (2.7)	28 (12.7)	101 (45.9)	75 (34.1)	9 (4.1)	1 (0.5)	220 (100.0)	3.2
9) 여성정보화 촉진	2 (0.9)	18 (8.2)	95 (43.2)	91 (41.4)	13 (5.9)	1 (0.5)	220 (100.0)	3.4
10)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강화	4 (1.8)	9 (4.1)	80 (36.4)	109 (49.5)	16 (7.3)	2 (1.0)	220 (100.0)	3.8

‘여성과학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성과에 있어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54.1%). 이에 비하여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2.7%에 불과해,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여성 과학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과학인보다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은 여성농업인에 관한 것이다. 이는 대전이 농업 중심 도시가 아닌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여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여건의 강화는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56.8%에 이르고 있어, 이 영역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항목의 정책과제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핵심과제 4 -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에 대한 성과 평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네 번째 핵심과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것으로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모성 보호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그리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영역에 있는 각각의 정책 과제에 대하여 여성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표 4-6>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 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1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5 (2.3)	22 (10.0)	98 (44.5)	84 (38.2)	10 (4.5)	1 (0.5)	220 (100.0)	3.3
1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5 (2.3)	34 (15.5)	85 (38.6)	80 (36.4)	15 (6.8)	1 (0.5)	220 (100.0)	3.3
1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5 (2.3)	25 (11.4)	99 (45.0)	76 (34.5)	14 (6.4)	1 (0.5)	220 (100.0)	3.3
14)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	6 (2.7)	17 (7.7)	91 (41.4)	91 (41.4)	13 (5.9)	2 (0.9)	220 (100.0)	3.4
15) 비정규직 여성 근로 자 등의 근로조건 보 호와 능력개발	11 (5.0)	44 (20.0)	97 (44.1)	53 (24.1)	14 (6.4)	1 (0.5)	220 (100.0)	3.1
16) 보육서비스의 강화	7 (3.2)	27 (12.3)	70 (31.8)	94 (42.7)	21 (9.5)	1 (0.5)	220 (100.0)	3.4

‘남녀 고용 평등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제고’의 영역 중 응답자들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강화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52.2%가 보육서비스 강화 정책이 성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의식도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47.3%가 남녀고용 평등의식의 확산 정책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유발된 사회 문화적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 서비스의 강화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속화되면서 부수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인프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경제 활동 참가 여성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과 양의 향상은 계속 논의되고 있고, 다양한 보육 형태를 갖춘 시설의 증가는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보육 서비스 강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 5) 핵심과제 5 - 사회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성과 평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다섯 번째 핵심과제는 '사회 문화 분야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것으로 여성의 다양한 사회 분야 참여에 관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정책 과제, 여성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확대 방안, 여성 자원 봉사 활동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4-7>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17)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3 (1.4)	21 (9.5)	99 (45.0)	80 (36.4)	16 (7.3)	1 (0.5)	220 (100.0)	3.4
18)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3 (1.4)	15 (6.8)	87 (39.5)	89 (40.5)	25 (11.4)	1 (0.5)	220 (100.0)	3.5
19)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참여 확대	2 (0.9)	15 (6.8)	101 (45.9)	85 (38.6)	15 (6.8)	2 (0.9)	220 (100.0)	3.4

여성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51.9%는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 정책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성과도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45.4%). 자원 봉사나 문화 예술 영역에 있어 여성의 활동은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 분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경제활동 주력 집단이 아닌 여성의 자원 봉사 참여 활성화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 반면,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여성이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 6) 핵심과제 6 -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에 대한 성과 평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여섯 번째 핵심과제는 평화통일 및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에 관한 것으로, 통일문제와 국제교류, 그리고 평화와 환경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에 대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220명의 여성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 영역의 과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 4-8> 평화통일 국제 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20)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13 (5.9)	47 (21.4)	116 (52.7)	39 (17.7)	4 (1.8)	1 (0.5)	220 (100.0)	2.9
21) 평화·환경분야에서 의 여성역할 강화	11 (5.0)	40 (18.2)	105 (47.7)	56 (25.5)	7 (3.2)	1 (0.5)	220 (100.0)	3.0
22)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14 (6.4)	39 (17.7)	117 (53.2)	42 (19.1)	6 (2.7)	2 (0.9)	220 (100.0)	2.9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평화통일 및 국제 협력 영역에서의 여성의 기여 및 참여 확대 성과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하여 통일이나, 국제 협력에 있어 여성 참여 성과는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19.5%, 21.8%), 세 가지 과제 들 중 평화 및 환경 분야에서의 여성 역할 강화가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이다

(28.7%).

### 7) 핵심과제 7 -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일곱 번째 핵심과제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여성 건강 증진 대책 강화,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그리고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에 대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성과를 평가하였다.

**<표 4-9>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23)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6 (2.7)	27 (12.3)	93 (42.3)	81 (36.8)	12 (5.5)	1 (0.5)	220 (100.0)	3.3
24)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6 (2.7)	28 (12.7)	99 (45.0)	75 (34.1)	11 (5.0)	1 (0.5)	220 (100.0)	3.3
25)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3 (1.4)	34 (15.5)	87 (39.5)	80 (36.4)	14 (6.4)	2 (0.9)	220 (100.0)	3.3
26)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7 (3.2)	26 (11.8)	100 (45.5)	72 (32.7)	14 (6.4)	1 (0.5)	220 (100.0)	3.3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영역 안에서 여성 건강 증진 대책 강화나 여성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는 다른 두 과제에 비해서도, 또 다른 영역의 과제들에 비해서도 성과 평가가 더 긍정적이다. 42.3%의 응답자들이 여성 건강 증진 대책 과제가 지난 5년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며, 42.8%의 응답자들이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과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두 과제에 비해

여성 장애인 관련 과제는 그 성과가 적다고 평가하였다.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 보장권 확대 과제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과제는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각각 39.1%였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 상태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이 전반적인 여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 반면, 취약 계층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아직 그 성과가 미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8) 핵심과제 8 -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에 대한 성과 평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여덟 번째 핵심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에 대한 것으로,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그리고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 강화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표 4-10>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 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27)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8 (3.6)	31 (14.1)	99 (45.0)	66 (30.0)	15 (6.8)	1 (0.5)	220 (100.0)	3.2
28)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11 (5.0)	26 (11.8)	86 (39.1)	81 (36.8)	15 (6.8)	1 (0.5)	220 (100.0)	3.3
29)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예방과 구제강화	13 (5.9)	21 (9.5)	85 (38.6)	80 (36.4)	20 (9.1)	1 (0.5)	220 (100.0)	3.3

여성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45.5%는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과제가 성과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과제도 성과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43.6%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와 개선 노력의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과제는 성과가 같은 영역의 다른 과제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6.8%). 성매매 방지에 관한 과제는 성과가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5%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9) 핵심과제 9 -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에 대한 성과 평가

여성정책 기본과제의 아홉 번째 핵심과제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에 대한 것으로, 통합적 가정(가족)복지 정책 기반조성 과제와 양성평등한 가족법 및 제도 구축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이 과제들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 4-11>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 조성**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 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30) 통합적 가정(가족)복지 정책 기반 조성	8 (3.6)	28 (12.7)	101 (45.9)	70 (31.8)	12 (5.5)	1 (0.5)	220 (100.0)	3.2
31) 양성평등한 가족법· 제도 구축	6 (2.7)	24 (10.9)	96 (43.6)	77 (35.0)	15 (6.8)	2 (0.9)	220 (100.0)	3.3

응답자의 41.8%가 양성평등한 가족법 및 제도 구축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통합적 가정 복지 정책 기반 조성 과제에 있어서는 37.3%의 응답자만이 성과가 있다고 답하였다. 양성평등한 가족 구성을 위한 법 및 제도라는 형식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있었으나, 실질적 가족 복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 약하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10) 핵심과제 10 -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 대한 성과 평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열 번째 핵심과제는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 대한 것으로,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과제,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과제, 그리고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2>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 수준 평균
<b>32)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b>	4 (1.8)	19 (8.6)	99 (45.0)	79 (35.9)	16 (7.3)	3 (1.4)	220 (100.0)	3.4
<b>33)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b>	5 (2.3)	23 (10.5)	82 (37.3)	89 (40.5)	18 (8.2)	3 (1.4)	220 (100.0)	3.4
<b>34)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b>	6 (2.7)	26 (11.8)	91 (41.4)	82 (37.3)	12 (5.5)	3 (1.4)	220 (1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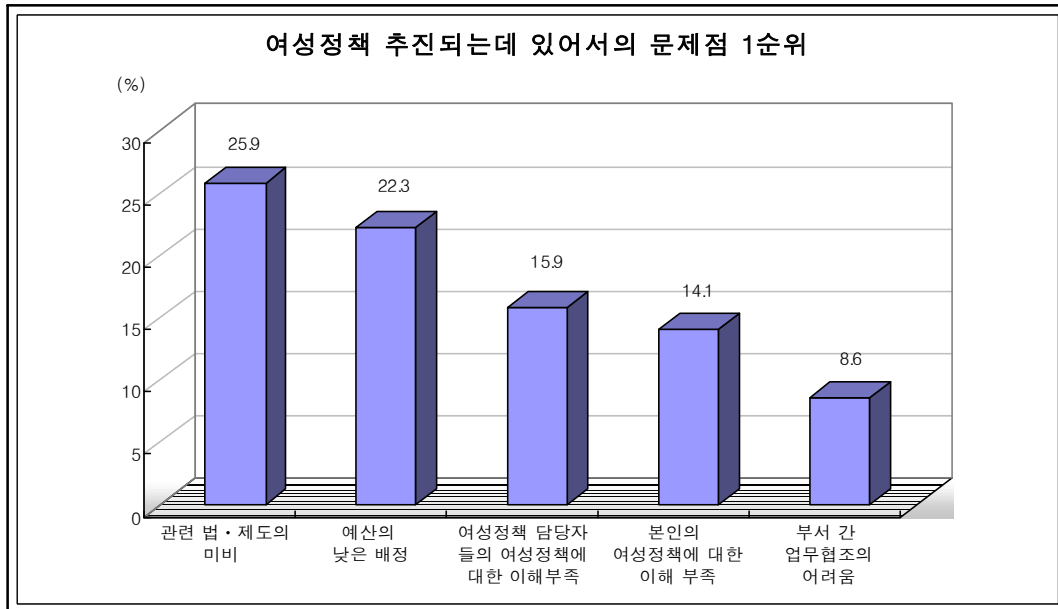
이 영역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 영향으로 응답자들은 다른 영역의 과제들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 가지 과제에 있어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모두 40%를 넘고 있어,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성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여성 정책 발전 방향과 정책 수요

### 1)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220명의 전문가들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과제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각자의 위치와 전문 영역에서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림 4-2]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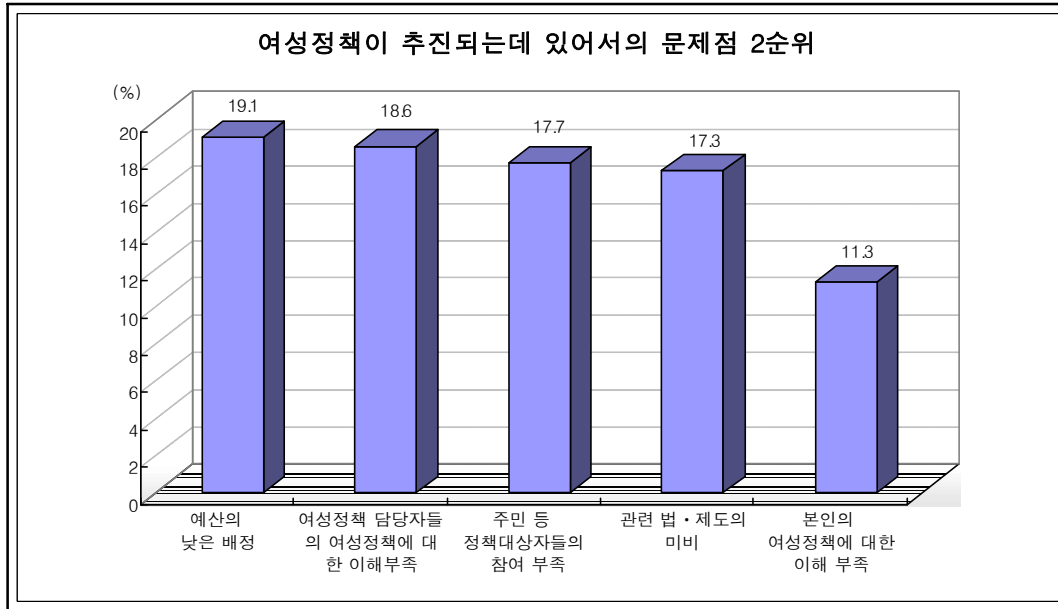
응답자 전문가들은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제도의 미비라고 지적하였다. 25.9%의 응답자들이 여성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여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제도의 미비는 주관식 응답에서도 드러났다. 여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어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 양성평등한 고용과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도 선언에 그치고 있거나 구속력이 약하여 실질적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제도의 미비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여성 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은 예산 부족이었다. 여성 정책 분야에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 부족의 심각성은



여성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 2순위를 뽑아 달라는 항목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4-3]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2순위**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낮게 배정된 예산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낮은 예산 배정은 여성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문제점 2순위 선택 항목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책정되었다. 여성 정책 추진의 문제점 1순위와 2순위에 선택된 항목 중 중요한 것은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항목이다. 앞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정책의 변화 및 여성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도 여성 정책에 대한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공무원들은 여성정책에 낮은 관심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위 설문 결과는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여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요소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여성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여성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응답자들은 여성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각의 항목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하였다.

**<표 4-13>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요소들의 필요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무응 답	전체	필요 정도 평균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	2 (0.9)	4 (1.8)	23 (10.5)	93 (42.3)	97 (44.1)	1 (0.5)	220 (100.0)	4.2
2) 여성정책 전담부서 장의 리더십	1 (0.5)	2 (0.9)	26 (11.8)	96 (43.6)	94 (42.7)	1 (0.5)	220 (100.0)	4.4
3)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조직 체계	3 (1.4)	6 (2.7)	28 (12.7)	101 (45.9)	82 (37.3)	0 (0.0)	220 (100.0)	4.1
4)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평등 의식	2 (0.9)	3 (1.4)	29 (13.2)	87 (39.5)	99 (45)	0 (0.0)	220 (100.0)	4.2
5) 여성정책 예산	1 (0.5)	3 (1.4)	27 (12.3)	80 (36.4)	109 (49.5)	0 (0.0)	220 (100.0)	4.3
6)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1 (0.5)	3 (1.4)	27 (12.3)	86 (39.1)	103 (46.8)	0 (0.0)	220 (100.0)	4.3
7) 중앙과 지방 간 협조	1 (0.5)	1 (0.5)	27 (12.3)	88 (40.0)	103 (46.8)	0 (0.0)	220 (100.0)	4.3

설문을 통하여 제안된 여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전담부서장의 리더십,' '전담부서 조직체계,' '담당인력의 양성평등 의식,' '예산,' '중앙 행정 기관 간 협조,'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 협조'였다. 필요도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필요한 편임'과 '매우 필요한 편임'을 하나로 묶어, 필요하다에 공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 '중앙과 지방 간 협조' 항목에 대하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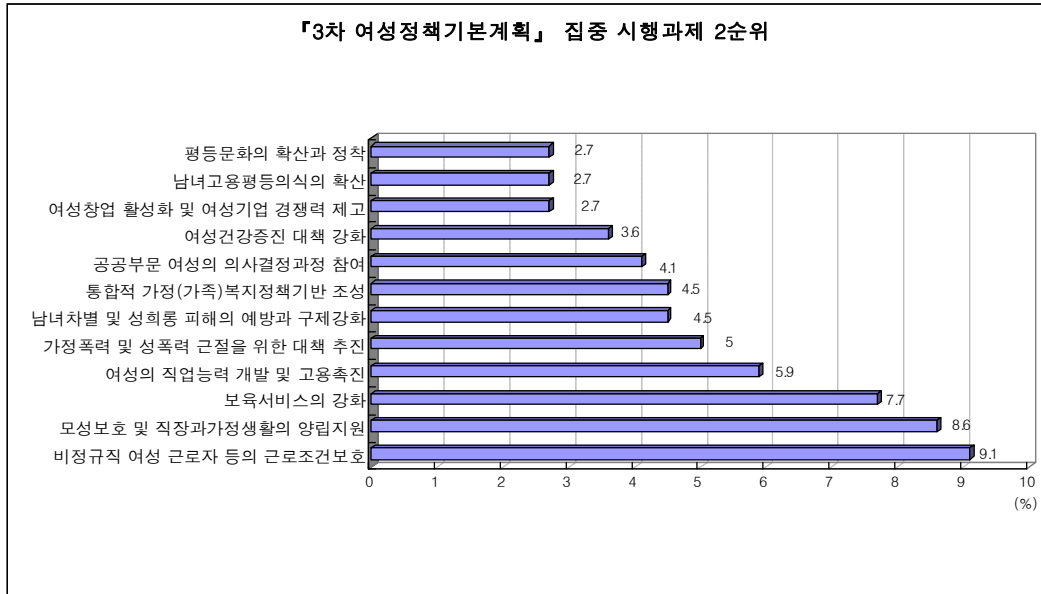
자의 86.8%가 그 필요도를 가장 깊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공감대가 아직 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중앙 행정기관의 정책 수행이 지방 행정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은 여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중앙 행정 기관만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 간극을 극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각 항목에 따른 필요도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 각 항목 모두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86.4%가 답하였다. 이는 미미한 차이지만, 이 설문 중 두 번째로 응답 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즉, 많은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여성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닌, 전담부서장과 각 계 리더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 **3)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대전광역시에는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본 계획의 내용으로 담아야 할 과제들을 나열하고 그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여성정책 기본계획 내용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두 가지를 중요도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4-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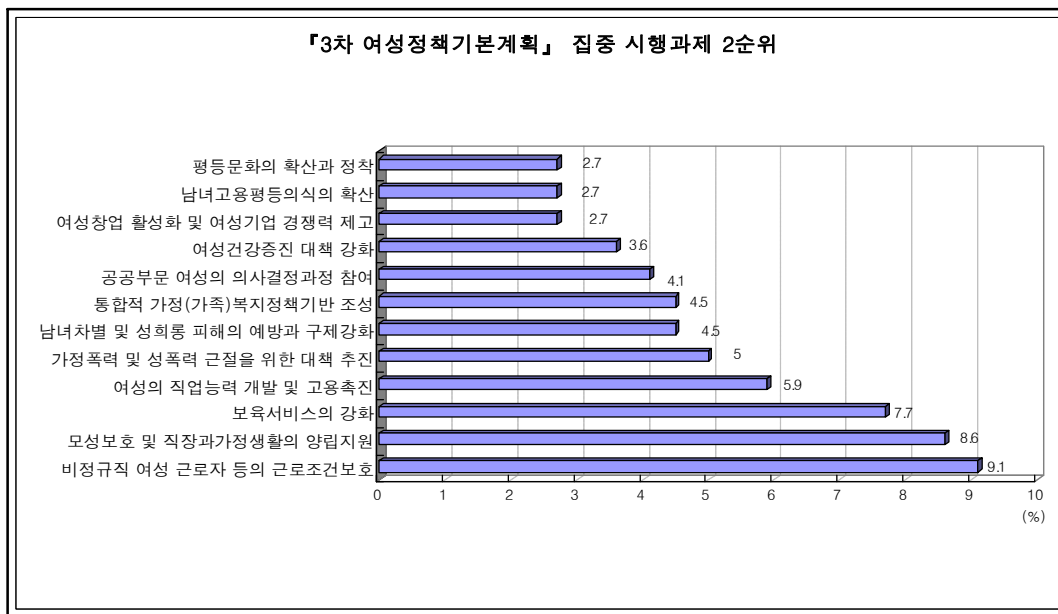
위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 관련 시설과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내용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이다.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7년 50.2%였고, 대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7년 47.6%를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요구는 강하다. 또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주력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한 여성 자신의 직업 능력 개발 노력과 사회적인 고용 촉진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로 전문가들은 1순위로 ‘모성의 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다음으로

뽑았다. 이 역시 앞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 참여는 모성의 보호가 뒤 따라야 가능하며,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은 저출산 현상을 억제하고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올 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족친화환경조성법의 적극적 시행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문가 응답자들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그림 4-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2순위**



앞서 1순위 선택 결과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이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게,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도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것이었다.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야할 과제 2순위로 뽑았다. 통계청이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발표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살펴보

면, 임시직 및 일용직 여성 근로자는 43.6%로 남성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비율인 24%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 여성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체 여성 경제 활동 인구(비임금 근로자 포함) 중 43.6%가 임시직과 일용직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근로 연건 개선과 보호가 시급하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의 응답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제 5 장

---

### 여성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의 특성

제2절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

## 제 5 장 여성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의 특성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도 1998년 이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그리고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 여성 정책의 목표는 양성평등한 의식의 보편적 확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잠재력 개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 제공 등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 정책의 기본 요소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은 국제 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과 양성평등의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특수과제로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과제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여성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설계된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의 지난 5년간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복지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지원도 사회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안에서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 고용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을 위한 경제 영역에서의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2007년, 여성 취업 만남의 장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기업과 민간단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업주부 및 여성 유휴인력,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알선과 상담, 그리고 각종 지원 클리닉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취업 정보 제공 기회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와 2007년부터 전개해 온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화교사, 과학교사, 간호사 등의 취업교육과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을 대전의 경력 단절 여성의 실정과 시장 실정에 맞추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 많으며, 이들이 출산 후 비정규직에 많이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및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요구된다.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는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과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모든 행정 정책이 대전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성평등의 이상에 얼마나 다가가 있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추진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5년간 대전의 여성정책은 보건 복지, 즉 노인, 장애인,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 성매매여성, 모부자 가정 등 취약 여성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업무의 성격상 복지 부분이 타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할지라도 복지 부분을 제외한 타 부분의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있어야 한다. 특히, 과학도시인 대전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높은 여성 대학 진학률을 고려한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제고는 대전광역시가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여성정책 부분이다.

## 제2절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 1. 전문가집단의 정책 평가와 그 함의

### 1) 정책 계획과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

대전광역시 소재 여성 관련 기관과 시설에 종사하는 220명의 전문가들은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기초한 대전시 여성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평소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73.2%가 여성정책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지만,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볼 때, 여성정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이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매우 필요하다.

**<표 5-1>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시행 시 관련자의 의견 반영 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음	그저 그러함	조금 반영하고 있음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무응답	전체	의견 반영도 평균
1) 관계전문가	5 (2.3)	17 (7.7)	83 (37.7)	92 (41.8)	23 (10.5)	0 (0.0)	220 (100.0)	3.5
2) 이해당사자	6 (2.7)	28 (12.7)	103 (46.8)	77 (35.0)	6 (2.7)	0 (0.0)	220 (100.0)	3.2
3) 일반시민	14 (6.4)	61 (27.7)	105 (47.7)	38 (17.3)	2 (0.9)	0 (0.0)	220 (100.0)	2.8

전문가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18.2%의 응답자만이 일반 시민의 의견이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조금 반영되거나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성정책 시행 대상자의 의견도 낮게 반영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는데, 37.7%의 응답자만이 여성정책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여성정책의 계획과 수립 및 시행에 조금 반영되거나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과 비교해서,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52.3%).

대전광역시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 여성 관련 기관

웹사이트, 기초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나, 여성정책 수행 대상자인 여성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평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해당사의 의견 반영률이 전문가 의견 반영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앞으로 대전시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볼 수 있다.

## 2) 정책 홍보와 교육

여성 관련 전문가들의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설문 응답을 보면, 정책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시민과 이해 당사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표 5-2 > 여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해당 부처나 부서의 시민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충분치 않음	충분하 지 않음	그저 그러함	상당히 충분함	매우 충분함	무응답	전체	홍보 정도 평균
해당 부처나 부서의 홍보정도	24 (10.9)	109 (49.5)	64 (29.1)	23 (10.5)	0 (0.0)	0 (0.0)	220 (10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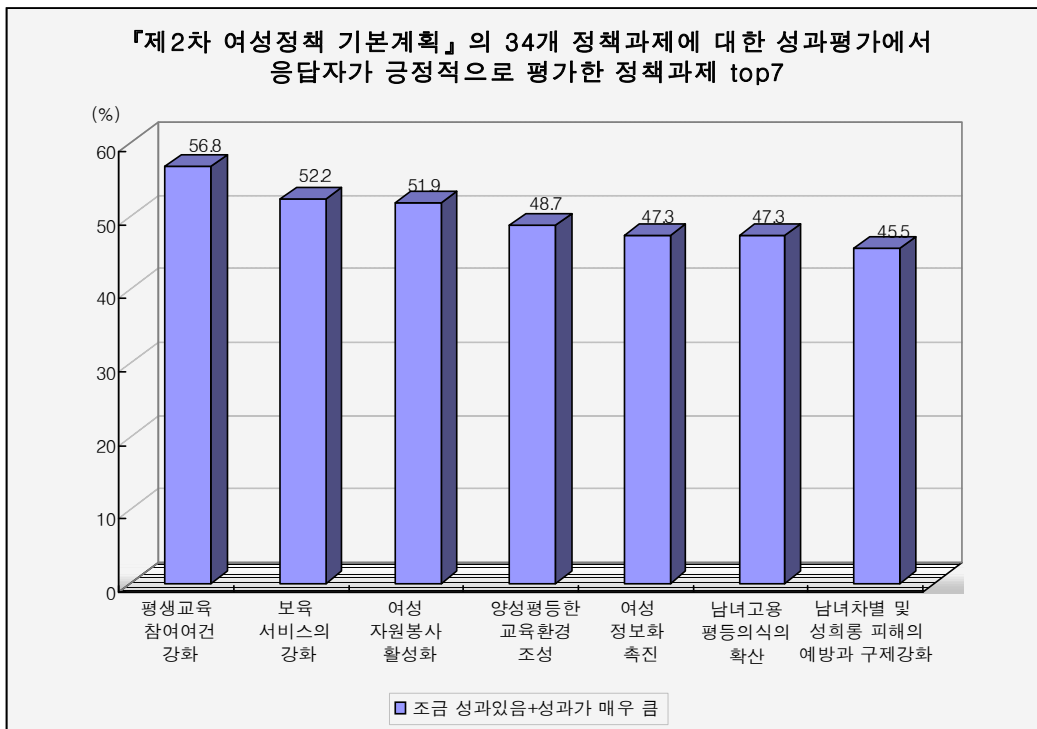
해당 부처나 부서의 홍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평가이다. 홍보가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상당히 충분하다는 응답도 10.5%에 불과하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1%나 되는 결과를 볼 때, 여성 정책의 홍보 및 교육이 여성정책의 실행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 3) 새로운 정책 과제의 발굴

기반을 갖추고 다른 영역의 과제들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여성

정책 과제들과 취약한 과제들을 접목한 새로운 과제의 발굴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은 대전광역시의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선 전문가 응답자들이 지난 5년간 추진된 여성정책 과제 중 성과가 있다고 평한 항목들을 몇 가지 지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34개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과제 top 7**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34개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를 묻는 문항 결과에서, 응답자가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에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그 중 합산결과가 높은 상위 7가지의 정책과제를 선택하였다.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의 평생교육과 보육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대하여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도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여성의 평생교육 분야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과제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기반 시설이 구축된 평생교육 영역의 물질적, 지적 자산을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경제 활동 참여 촉진 과제와 연결하여 여성의 재취업 교육 및 커리어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의 강화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큰 반면, 아직도 질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문가 응답자들은 주관식 응답란을 통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민간단체와 더불어 꾸준히 활성화 되어 오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원봉사를 개인적 차원의 사회 참여나 봉사가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여성과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여성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대전시의 여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봉사 및 사회 참여를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행사에 이러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홈스테이 프로그램, 국제 교류 및 교육 사업 등에 대전의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할 프로그램과 그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 **2. 여성 정책 발전 방향과 과제**

### **1)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개념이나 정책이 특정 성(性)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 전제로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및 현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안

이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다양한 행정 정책에 적용하여 각각의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 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 분리 통계를 산출해 내는 것이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 정책, 특히 복지 정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은 필수적이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지원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이 더욱 요구된다.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의 일반적 특성, 즉 등급에 따른 지원만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과 남성 장애인을 분리하여 통계 자료를 구축하거나, 성별에 따른 특성과 요구의 차별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노인 지원 정책도 여성과 남성 노인의 차이를 우선 파악하기 보다는 연령과 건강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노인의 빈곤 문제라든가, 여성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배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 2)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2002-2006)가 여성관리자 비율 10%를 목표로 시행되었으나, 대전광역시 2006년 12월 조사 시 6.7%에 머물렀고,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배치도 12%밖에 되지 않았다.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을 6급 공무원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0.2%,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7.5%에 이르렀다.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인사, 기획, 예산 등과 같은 주요 부서에 대한 1과 1여성제를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각종 정책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어 여성의 의견이 다양한 정책 계획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수한 여성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도 여성 고급 공무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세대 여성 지도자 교육을 또한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 3) 여성정책 추진 체계의 강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여성정책 전반의 이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성 정책 담당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여성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5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도, 광주, 충남)에는 여성정책 담당관 혹은 여성가족(청소년)담당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각 지방 자치단체 마다 여성담당부서 및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과업, 그리고 한계는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성 업무의 독자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는 제도화된 노력의 결정체가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성 정책 전문 인력이 조직력을 기반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좀 더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여성정책담당관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혜 (2004),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옥 외 (2007),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주 (2006),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연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 대전광역시 (2002), 「대전 여성 백서」.
- 마경희 외 (2006),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중간점검 및 보완책 마련」,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부산광역시 (2004), 「부산여성백서」.
- 송인자 (2007),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과 환류방안」,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자료집.
- 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연구센터 (2008),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 본 기업과 여성인적자원개발」.
- 여성가족부 외 여성정책조정회의 (2007),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2012」.
- 여성가족부 (2004), 「여성 백서」.
- 이은아 (2007), 「경기도 시·군 여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연숙 외 (2007), 「2007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조영미 외 (2006), 「2007~2010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 계획」, (재)서울여성.



## 부 록

---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조사결과표

부록 3. 자문회의 기록

부록 4. 대전여성 현황 통계표

---

## 부록 1. 설문지

## 여성정책 수행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여성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의 여성정책 수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여성정책 발전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대전광역시의 정책안 개발과 여성정책 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사용되는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약속드리며,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대전발전연구원장      육 동 일

연락처 : (302-784)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대전광역시청 16층

Tel :      042-471-5696 (주혜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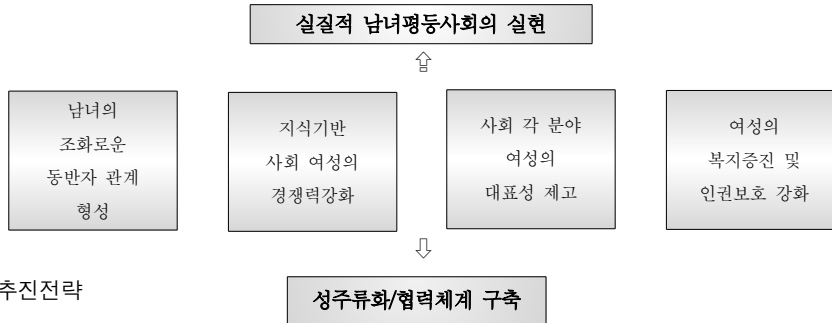


##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자번호	고유번호

※ 이 설문은 1995년 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된 대전광역시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에 대한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계획의 기본내용을 소개하오니 설문작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정책비전과 목표



### ■ 추진전략

- 10대 핵심과제 :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2. 정책결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3. 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5. 사회문화분야 여성 참여확대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34개 정책과제 : 1-①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②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2-③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④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⑤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3-⑥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⑦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⑧ 여성창업활성화 및 여성기업경쟁력 제고, ⑨ 여성정보화 촉진, ⑩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4-⑪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개선, ⑫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지원, ⑬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⑭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 ⑮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보호와 능력개발, ⑯ 보육서비스의 강화, 5-⑰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⑱ 여성자원봉사활성화, ⑲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참여확대, 6-⑳ 통일대비 여성역량강화 및 참여확대, ㉑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㉒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활성화, 7-㉓ 여성건강증진 대책강화, ㉔ 여성의 자활능력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㉕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8-㉖ 성매매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㉗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㉘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9-㉙ 통합적 가정(가족)복지 정책기반조성, ㉚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10-㉛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㉜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㉝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I. 다음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혹은 V표를 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여성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전혀 관심 없음
- ② 거의 관심 없음
- ③ 그저 그러함
- ④ 조금 관심 있음
- ⑤ 매우 관심 있음

2. 귀하께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다음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 목	전혀 모름	잘 모름	그저그러함	조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 목표	①	②	③	④	⑤
2) 10대 핵심 정책과제	①	②	③	④	⑤
3) 34개 소 정책과제	①	②	③	④	⑤
4) 115개의 세부정책과제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등 여성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십니까?

- ① 시, 구 혹은 중앙정부 발행의 관보를 통해서
- ② 업무지침을 통해서
- ③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 ④ 주변사람을 통해서
- 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 ⑥ 기타( )
- ⑦ 여성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4.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역량에 대한 항목입니다.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음의 각 요소들의 필요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2) 여성정책 전담부서 장의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조직체계	①	②	③	④	⑤
4)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평등의식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정책 예산	①	②	③	④	⑤
6)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①	②	③	④	⑤
7) 중앙과 지방 간 협조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는 여성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있어 전담부서의 역량이 현재보다 향상되기 위한 다음 요소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중요치 않음	별로 중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다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3) 전체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	①	②	③	④	⑤
4) 전담부서 장의 강력한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5)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적극적 노력	①	②	③	④	⑤
6)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7) 여성정책 관련 재원의 확보	①	②	③	④	⑤
8) 여성의 적극적 참여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6. 귀하께서는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이 여성의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부응하지 못함
- ② 거의 부응하지 못함
- ③ 그저 그러함
- ④ 대체로 부응하고 있음
- ⑤ 매우 잘 부응하고 있음

7. 귀하께서는 현재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의 협조체계
- ②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
- ③ 여성정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 ④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확보
- ⑤ 여성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리더십
- ⑥ 여성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 ⑦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⑧ 기타( )

8. 귀하께서는 해마다 여성정책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여론수렴 등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
- ②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음
- ③ 그저 그러함
- ④ 상당히 이행되고 있음
- ⑤ 매우 충분히 이행되고 있음

9. 귀하께서는 여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해당 부처나 부서가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충분하지 않음
- ② 충분하지 않음
- ③ 그저 그러함
- ④ 상당히 충분함
- ⑤ 매우 충분함

10.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수행 시에 국민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 ② 기관의 안내책자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 ③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매체를 통하여
- ④ 해당 이해당사자에게 공문 등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 ⑤ 거리의 전광판을 통하여

⑥ 기타( )

⑦ 홍보할 필요가 없다

11. 귀하께서는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시행 시 다음 관련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음	그저 그러함	조금 반영하고 있음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1) 관계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2) 이해당사자	①	②	③	④	⑤
3) 일반시민	①	②	③	④	⑤

12. 대전시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을 10대 핵심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과제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0대 핵심과제	매우 부적합	부적합한 편	그저 그러함	적합한 편	매우 적합
1)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①	②	③	④	⑤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①	②	③	④	⑤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①	②	③	④	⑤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①	②	③	④	⑤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①	②	③	④	⑤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께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34개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각 항목별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내 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 과 가 매 우 크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1)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①	②	③	④	⑤
	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①	②	③	④	⑤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5)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①	②	③	④	⑤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6) 여성과학인력 육성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①	②	③	④	⑤
	8)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정보화 촉진	①	②	③	④	⑤
	10)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①	②	③	④	⑤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1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①	②	③	④	⑤
	12)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 생활의 양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①	②	③	④	⑤
	14)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	①	②	③	④	⑤
	15)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 보호 와 능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16) 보육서비스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확대	17)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①	②	③	④	⑤
	18)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19)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평화·통일 국제 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20)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21)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①	②	③	④	⑤
	22)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23)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24)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①	②	③	④	⑤
	25)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26)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 과 가 매 우 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27)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28)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29)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①	②	③	④	⑤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30)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31)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①	②	③	④	⑤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32)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①	②	③	④	⑤
	33)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34)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께서는 위의 34개 정책과제 가운데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세 가지만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제 1순위:                    2) 제 2순위:                    3) 제 3순위:

14-1. 위에 제시된 여성정책 과제 외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과제 한 두 가지를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15. 여성정책을 강화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대해 보기 대상 중에서 해당 번호를 찾아 쓰십시오. 보기에 없다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① 전업주부	②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③ 농어촌 여성
	④ 장애인 여성	⑤ 미혼여성	⑥ 근로여성
	⑦ 한 부모 가정 여성	⑧ 노령여성	⑨ 미혼모

15-1. 가장 취약한 여성 정책분야의 대상을 위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하나만)\_\_\_\_\_

15-2.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여성 정책분야의 대상을 위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하나만)\_\_\_\_\_

15-3. 가장 크게 보완해야 할 여성 정책분야의 대상을 위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하나만)\_\_\_\_\_

16. 귀하께서는 여성정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중요도 순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 ① 관련 법·제도의 미비
  - ② 본인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 ③ 여성정책담당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부서간 업무협조의 어려움
  - ⑤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의 참여부족
  - ⑥ 인력의 부족
  - ⑦ 예산의 낮은 배정
  - ⑧ 애로사항 없음
  - ⑨ 기타(\_\_\_\_\_)

17. 귀하의 여성정책 담당 경험을 토대로 하여 향후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할 여성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1) 법·제도 분야

2) 경제 및 고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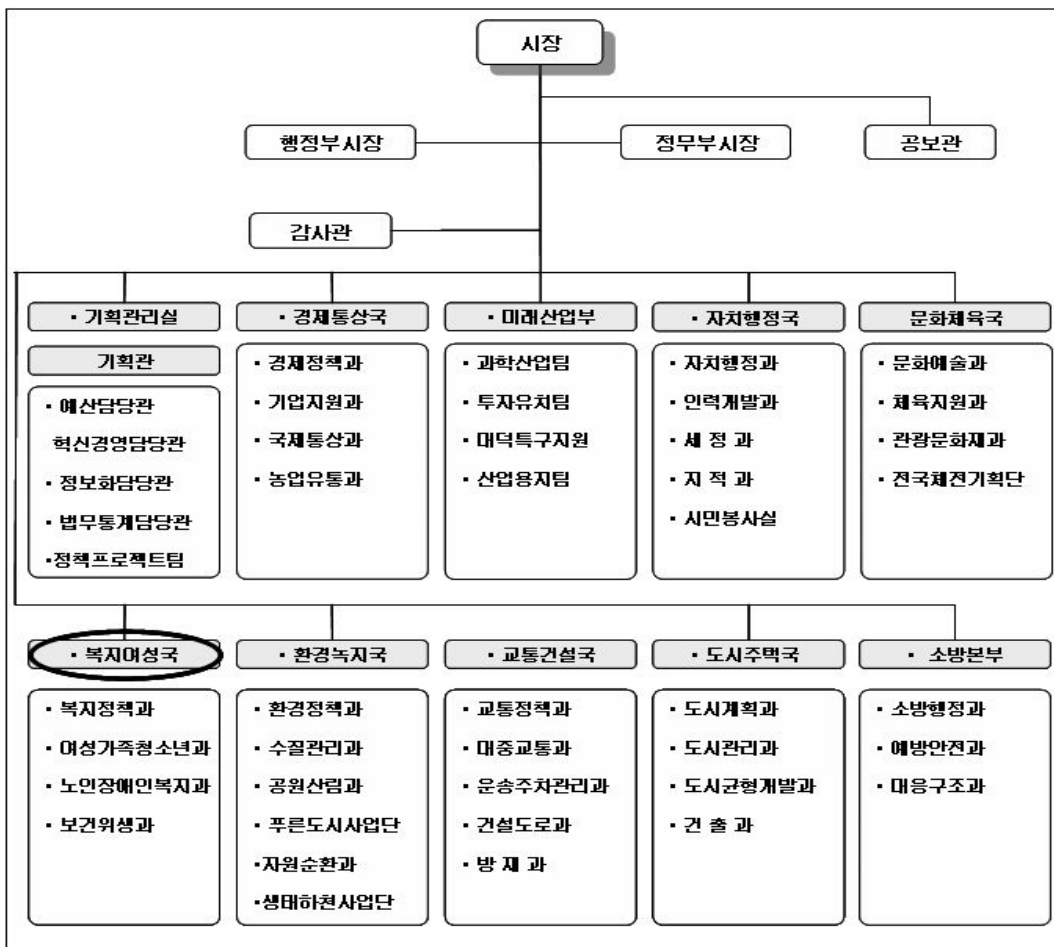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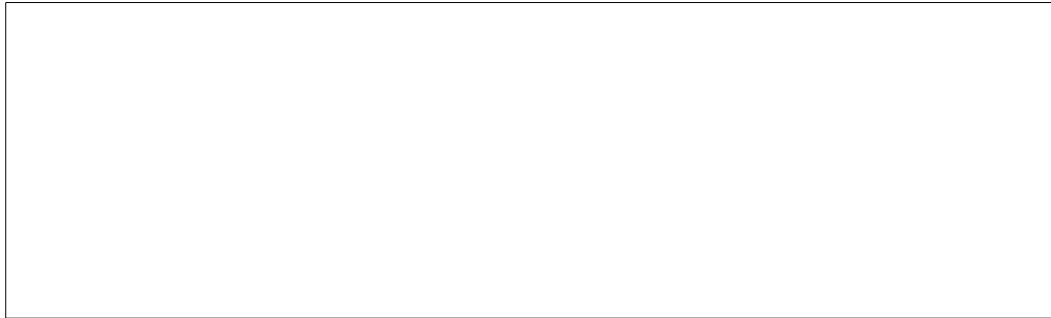
3) 교육 및 사회참여분야

4) 가족 및 복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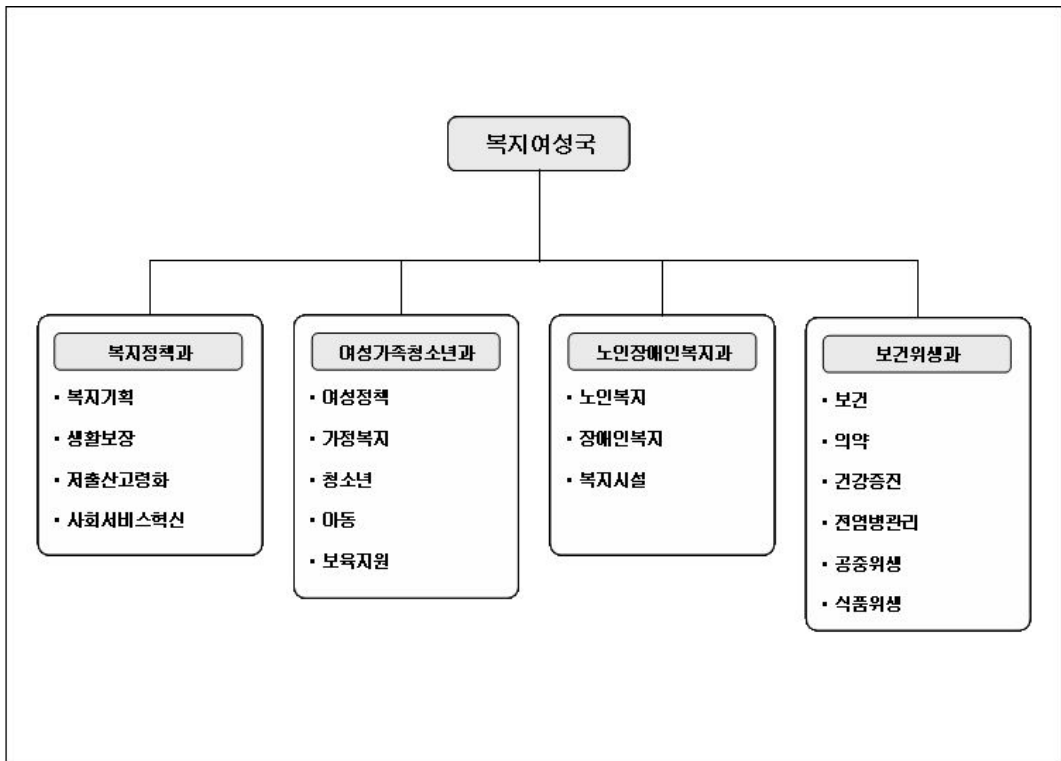
5) 의식 및 문화분야

6) 국제분야

18. 현재 대전시 여성정책 담당조직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의 조직형태가 대전시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9. 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위생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하위 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정책에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물음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20.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여성                      ② 남성

21. 귀하의 직업을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공무원  
② 여성단체 실무자, 간사  
③ 연구자 및 교수, 정책연구전문가  
④ 시 및 구의원  
⑤ 여성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상담, 보호, 육아시설 등)  
⑥ 기타(                      )

22. 귀하가 여성 정책 관련 전문가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성 관련한 활동을 하신 기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3. 귀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2. 조사결과표

### 20-2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명, %)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51	23.2
	여 자	168	76.4
	무응답	1	0.5
직 업	공무원	54	24.5
	여성단체 실무자, 간사	33	15.0
	연구자 및 교수, 정책연구전문가	20	9.1
	시 및 구의원	2	0.9
	여성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81	36.8
	기 타	28	12.7
	무응답	2	0.9
활 동 기 간	1년 미만	45	20.5
	1년 이상 3년 미만	86	39.1
	3년 이상 5년 미만	38	17.3
	5년 이상 10년 미만	24	10.9
	10년 이상	19	8.6
	무응답	8	3.6
연 령	20대	36	16.4
	30대	74	33.6
	40대	71	32.3
	50대	34	15.5
	60대 이상	3	1.4
	무응답	2	0.9
전 체		220	100.0



## 1.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표 2>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관심 없음	2	0.9
거의 관심 없음	19	8.6
그저 그러함	38	17.3
조금 관심 있음	95	43.2
매우 관심 있음	66	30.0
전 체	220	100.0
평 균	3.9	

## 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표 3>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모름	잘 모름	그저 그러함	조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무응답	전체	인지도 평균
1) 목표	40 (18.2)	50 (22.7)	31 (14.1)	79 (35.9)	18 (8.2)	2 (0.9)	220 (100.0)	2.9
2) 10대 핵심 정책과제	41 (18.6)	56 (25.5)	33 (15.0)	74 (33.6)	14 (6.4)	2 (0.9)	220 (100.0)	2.8
3) 34개 소 정책과제	47 (21.4)	68 (30.9)	41 (18.6)	51 (23.2)	10 (4.5)	3 (1.4)	220 (100.0)	2.5
4) 115개의 세부정책과제	49 (22.3)	75 (34.1)	48 (21.8)	39 (17.7)	5 (2.3)	4 (1.9)	220 (100.0)	2.4

### 3. 여성 관련 정보 인지 경로

<표 4> 여성 관련 정보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시, 구 혹은 중앙정부 발행의 관보	36	16.4
업무지침	28	12.7
교육 및 훈련기관	23	10.5
주변사람	8	3.6
TV 등 대중매체	96	43.6
기 타	7	3.2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6	7.3
무응답	6	2.7
전 체	220	100.0

- ※ 기타 : • 스스로 찾아서(여성부 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검색)  
 • 알기회가 없어서 적어서 솔직히 잘 몰랐음. 알기회가 제공이 많고 더 쉬웠으면 함  
 • 정부 홈페이지

### 4.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요소들의 필요정도

<표 5>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요소들의 필요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무응답	전체	필요도 평균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2 (0.9)	4 (1.8)	23 (10.5)	93 (42.3)	97 (44.1)	1 (0.5)	220 (100.0)	4.2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무응답	전체	필요도 평균
2) 여성정책 전담부서 장의 리더십	1 (0.5)	2 (0.9)	26 (11.8)	96 (43.6)	94 (42.7)	1 (0.5)	220 (100.0)	4.4
3)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조직 체계	3 (1.4)	6 (2.7)	28 (12.7)	101 (45.9)	82 (37.3)	0 (0.0)	220 (100.0)	4.1
4)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평등 의식	2 (0.9)	3 (1.4)	29 (13.2)	87 (39.5)	99 (45)	0 (0.0)	220 (100.0)	4.2
5) 여성정책 예산	1 (0.5)	3 (1.4)	27 (12.3)	80 (36.4)	109 (49.5)	0 (0.0)	220 (100.0)	4.3
6)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1 (0.5)	3 (1.4)	27 (12.3)	86 (39.1)	103 (46.8)	0 (0.0)	220 (100.0)	4.3
7) 중앙과 지방 간 협조	1 (0.5)	1 (0.5)	27 (12.3)	88 (40.0)	103 (46.8)	0 (0.0)	220 (100.0)	4.3

## 5.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량이 향상되기 위한 요소들의 중요도

**<표 6>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량이 향상되기 위한 요소들의 중요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무응답	전체	중요도 평균
1) 대통령의 여성정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1 (0.5)	2 (0.9)	26 (11.8)	77 (35.0)	114 (51.8)	0 (0.0)	220 (100.0)	4.4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1 (0.5)	1 (0.5)	23 (10.5)	74 (33.6)	121 (55.0)	0 (0.0)	220 (100.0)	4.4
3) 전체 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	2 (0.9)	2 (0.9)	33 (15.0)	75 (34.1)	108 (49.1)	0 (0.0)	220 (100.0)	4.3
4) 전담부서 장의 강력한 리더십	2 (0.9)	2 (0.9)	29 (13.2)	76 (34.5)	111 (50.5)	0 (0.0)	220 (100.0)	4.3
5)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적극적 노력	2 (0.9)	0 (0.0)	26 (11.8)	83 (37.7)	108 (49.1)	1 (0.5)	220 (100.0)	4.4

항 목	전혀 필요치 않음	별로 필요치 않음	그저 그러함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한 편임	무응답	전체	중요도 평균
6)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확보	2 (0.9)	1 (0.5)	30 (13.6)	82 (37.3)	105 (47.7)	0 (0.0)	220 (100.0)	4.3
7) 여성정책 관련 재원의 확보	2 (0.9)	2 (0.9)	20 (9.1)	84 (38.2)	112 (50.9)	0 (0.0)	220 (100.0)	4.4
8) 여성의 적극적 참여	2 (0.9)	1 (0.5)	19 (8.6)	66 (30.0)	129 (58.6)	3 (1.4)	220 (100.0)	4.5
9) 기타								

※ 기타 : • 민관의 협력체계

-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청소년도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알아야 함
- 예산확보
- 여성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인식기반 확대 필요(사회적 인식 기반)

## 6.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여성 욕구 부응 정도

<표 7>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여성 욕구 부응 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부응 하지 못함	거의 부응 하지 못함	그저 그러함	대체로 잘 부응	매우 잘 부응	무응답	전체	욕구 부응 정도 평균
여성의 욕구 부응	10 (4.5)	42 (19.1)	117 (53.2)	50 (22.7)	1 (0.5)	0 (0.0)	220 (100.0)	3.0

## 7.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

**<표 8>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의 협조체계	26 (11.8)	38 (17.3)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	25 (11.4)	14 (6.4)
여성정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16 (7.3)	34 (15.5)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확보	54 (24.5)	39 (17.7)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리더십	31 (14.1)	28 (12.7)
여성정책 전달체계의 정비	5 (2.3)	17 (7.7)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63 (28.6)	46 (20.9)
기 타	0	0
무응답	0 (0.0)	4 (1.9)
전 체	220 (100.0)	220 (100.0)

## 8. 여성정책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여론수렴 정도

**<표 9> 여성정책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지자체의 여론수렴 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음	거의 이해되고 있지 않음	그저 그러함	상당히 이행되고 있음	매우 충분히 이행되고 있음	무응답	전체	여론 수렴 평균
지자체의 여론 수렴 정도	9 (4.1)	77 (35.0)	108 (49.1)	25 (11.4)	1 (0.5)	0 (0.0)	220 (100.0)	2.7

## 9. 여성정책 수행 과정에서 해당 부처, 부서의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정도

**<표 10> 여성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해당 부처나 부서의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충분히 않음	충분하지 않음	그저 그러함	상당히 충분함	매우 충분함	무응답	전체	홍보 정도 평균
해당 부처나 부서의 홍보정도	24 (10.9)	109 (49.5)	64 (29.1)	23 (10.5)	0 (0.0)	0 (0.0)	220 (100.0)	2.4

## 10. 여성정책 수행 시에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방법

**<표 11> 여성정책 수행 시에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방법**

(단위: 명, %)

항 목	빈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31 (14.1)
기관의 안내책자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27 (12.3)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매체를 통하여	110 (50.0)
해당 이해당사자에게 공문 등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39 (17.7)
거리의 전광판을 통하여	6 (2.7)
기 타	3 (1.4)
홍보할 필요가 없다	1 (0.5)
무응답	3 (1.4)
전 체	220 (100.0)

## 11.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시행 시 관련자의 의견 반영 정도

<표 12> 지자체의 여성정책 수립·시행 시 관련자의 의견 반영 정도  
(단위: 명, %)

항 목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음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음	그저 그러함	조금 반영하고 있음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무응답	전체	의견 반영도 평균
1) 관계전문가	5 (2.3)	17 (7.7)	83 (37.7)	92 (41.8)	23 (10.5)	0 (0.0)	220 (100.0)	3.5
2) 이해당사자	6 (2.7)	28 (12.7)	103 (46.8)	77 (35.0)	6 (2.7)	0 (0.0)	220 (100.0)	3.2
3) 일반시민	14 (6.4)	61 (27.7)	105 (47.7)	38 (17.3)	2 (0.9)	0 (0.0)	220 (100.0)	2.8

## 12.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10대 핵심과제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적합한지의 여부

<표 13>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10대 핵심과제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적합한지의 여부  
(단위: 명, %)

항 목	매우 부적합	부적합한 편	그저 그러함	적합한 편	매우 적합	무응답	전체	적합도 평균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6 (2.7)	18 (8.2)	71 (32.3)	97 (44.1)	28 (12.7)	0 (0.0)	220 (100.0)	3.6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6 (2.7)	21 (9.5)	88 (40.0)	84 (38.2)	21 (9.5)	0 (0.0)	220 (100.0)	3.4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3 (1.4)	17 (7.7)	66 (30.0)	86 (39.1)	47 (21.4)	1 (0.5)	220 (100.0)	3.7

항 목	매우 부적합	부적합한 편	그저 그러함	적합한 편	매우 적합	무응답	전체	적합도 평균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6 (2.7)	16 (7.3)	58 (26.4)	93 (42.3)	46 (20.9)	1 (0.5)	220 (100.0)	3.7
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3 (1.4)	16 (7.3)	61 (27.7)	98 (44.5)	41 (18.6)	1 (0.5)	220 (100.0)	3.7
6)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6 (2.7)	19 (8.6)	94 (42.7)	75 (34.1)	26 (11.8)	0 (0.0)	220 (100.0)	3.4
7)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6 (2.7)	12 (5.5)	53 (24.1)	95 (43.2)	54 (24.5)	0 (0.0)	220 (100.0)	3.8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5 (2.3)	15 (6.8)	50 (22.7)	79 (35.9)	70 (31.8)	1 (0.5)	220 (100.0)	3.9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5 (2.3)	13 (5.9)	54 (24.5)	86 (39.1)	61 (27.7)	1 (0.5)	220 (100.0)	3.8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4 (1.8)	13 (5.9)	62 (28.2)	79 (35.9)	61 (27.7)	1 (0.5)	220 (100.0)	3.8

### 13.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34개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

<표 14-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1)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	8 (3.6)	21 (9.5)	123 (55.9)	60 (27.3)	7 (3.2)	1 (0.5)	220 (100.0)	3.1
2)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4 (1.8)	28 (12.7)	130 (59.1)	52 (23.6)	5 (2.3)	1 (0.5)	220 (100.0)	3.1



**<표 14-2>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3)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4 (1.8)	26 (11.8)	97 (44.1)	83 (37.7)	9 (4.1)	1 (0.5)	220 (100.0)	3.3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3 (1.4)	37 (16.8)	102 (46.4)	73 (33.2)	4 (1.8)	1 (0.5)	220 (100.0)	3.1
5)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8 (3.6)	26 (11.8)	108 (49.1)	72 (32.7)	4 (1.8)	2 (0.9)	220 (100.0)	3.2

**<표 14-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6) 여성과학인의 육성 및 지원	4 (1.8)	24 (10.9)	119 (54.1)	64 (29.1)	8 (3.6)	1 (0.5)	220 (100.0)	3.2
7)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9 (4.1)	40 (18.2)	123 (55.9)	42 (19.1)	5 (2.3)	1 (0.5)	220 (100.0)	3.0
8)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 경쟁력 제고	6 (2.7)	28 (12.7)	101 (45.9)	75 (34.1)	9 (4.1)	1 (0.5)	220 (100.0)	3.2
9) 여성정보화 촉진	2 (0.9)	18 (8.2)	95 (43.2)	91 (41.4)	13 (5.9)	1 (0.5)	220 (100.0)	3.4
10)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여건 강화	4 (1.8)	9 (4.1)	80 (36.4)	109 (49.5)	16 (7.3)	2 (0.9)	220 (100.0)	3.8

**<표 14-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1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5 (2.3)	22 (10.0)	98 (44.5)	84 (38.2)	10 (4.5)	1 (0.5)	220 (100.0)	3.3
12)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5 (2.3)	34 (15.5)	85 (38.6)	80 (36.4)	15 (6.8)	1 (0.5)	220 (100.0)	3.3
1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5 (2.3)	25 (11.4)	99 (45.0)	76 (34.5)	14 (6.4)	1 (0.5)	220 (100.0)	3.3
14)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	6 (2.7)	17 (7.7)	91 (41.4)	91 (41.4)	13 (5.9)	2 (0.9)	220 (100.0)	3.4
15)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11 (5.0)	44 (20.0)	97 (44.1)	53 (24.1)	14 (6.4)	1 (0.5)	220 (100.0)	3.1
16) 보육서비스의 강화	7 (3.2)	27 (12.3)	70 (31.8)	94 (42.7)	21 (9.5)	1 (0.5)	220 (100.0)	3.4

**<표 14-5>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17)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3 (1.4)	21 (9.5)	99 (45.0)	80 (36.4)	16 (7.3)	1 (0.5)	220 (100.0)	3.4
18)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3 (1.4)	15 (6.8)	87 (39.5)	89 (40.5)	25 (11.4)	1 (0.5)	220 (100.0)	3.5
19)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2 (0.9)	15 (6.8)	101 (45.9)	85 (38.6)	15 (6.8)	2 (0.9)	220 (100.0)	3.4

**<표 14-6> 평화·통일 국제 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20)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13 (5.9)	47 (21.4)	116 (52.7)	39 (17.7)	4 (1.8)	1 (0.5)	220 (100.0)	2.9
21)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11 (5.0)	40 (18.2)	105 (47.7)	56 (25.5)	7 (3.2)	1 (0.5)	220 (100.0)	3.0
22)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14 (6.4)	39 (17.7)	117 (53.2)	42 (19.1)	6 (2.7)	2 (0.9)	220 (100.0)	2.9

**<표 14-7>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23)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6 (2.7)	27 (12.3)	93 (42.3)	81 (36.8)	12 (5.5)	1 (0.5)	220 (100.0)	3.3
24)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6 (2.7)	28 (12.7)	99 (45.0)	75 (34.1)	11 (5.0)	1 (0.5)	220 (100.0)	3.3
25)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3 (1.4)	34 (15.5)	87 (39.5)	80 (36.4)	14 (6.4)	2 (0.9)	220 (100.0)	3.3
26)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7 (3.2)	26 (11.8)	100 (45.5)	72 (32.7)	14 (6.4)	1 (0.5)	220 (100.0)	3.3

**<표 14-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단위: 명, %)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27)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 성 제고	8 (3.6)	31 (14.1)	99 (45.0)	66 (30.0)	15 (6.8)	1 (0.5)	220 (100.0)	3.2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28)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 절을 위한 대책 추진	11 (5.0)	26 (11.8)	86 (39.1)	81 (36.8)	15 (6.8)	1 (0.5)	220 (100.0)	3.3
29)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13 (5.9)	21 (9.5)	85 (38.6)	80 (36.4)	20 (9.1)	1 (0.5)	220 (100.0)	3.3

**<표 14-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기반 조성**

(단위: 명, %)

p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30) 통합적 가정(가족)복지 정책 기반 조성	8 (3.6)	28 (12.7)	101 (45.9)	70 (31.8)	12 (5.5)	1 (0.5)	220 (100.0)	3.2
31) 양성평등한 가족법·제 도 구축	6 (2.7)	24 (10.9)	96 (43.6)	77 (35.0)	15 (6.8)	2 (0.9)	220 (1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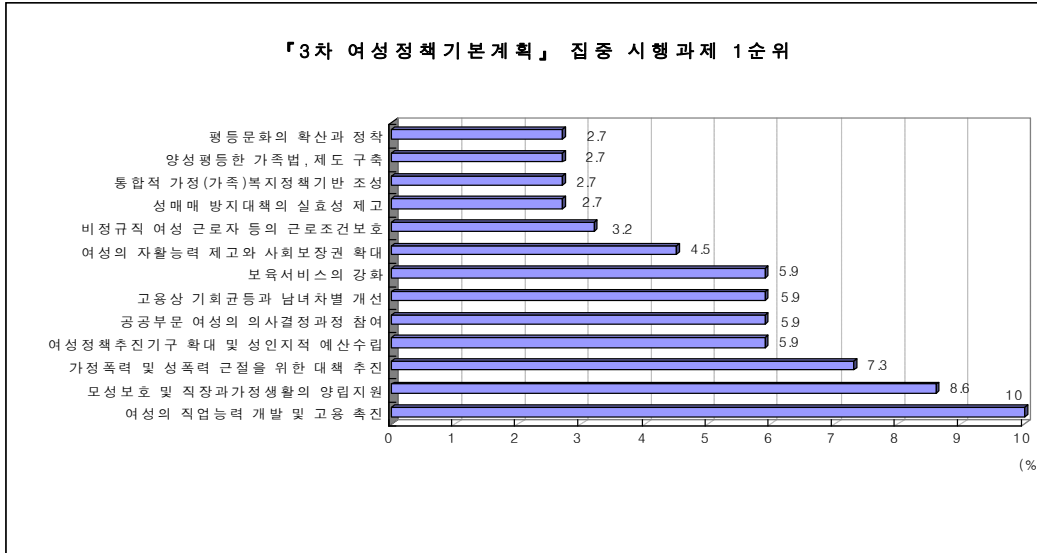
**<표 14-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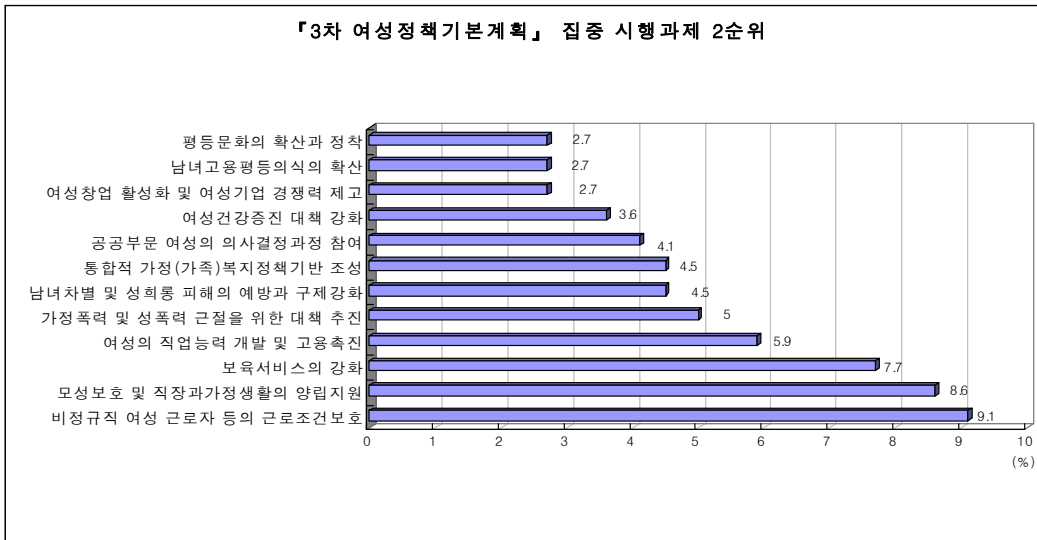
항 목	전혀 성과 없음	거의 없음	그저 그러함	조금 성과 있음	성과가 매우 큼	무응답	전체	성과도 평균
32)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4 (1.8)	19 (8.6)	99 (45.0)	79 (35.9)	16 (7.3)	3 (1.4)	220 (100.0)	3.4
33)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 성	5 (2.3)	23 (10.5)	82 (37.3)	89 (40.5)	18 (8.2)	3 (1.4)	220 (100.0)	3.4
34)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 의 정착	6 (2.7)	26 (11.8)	91 (41.4)	82 (37.3)	12 (5.5)	3 (1.4)	220 (100.0)	3.3

## 14.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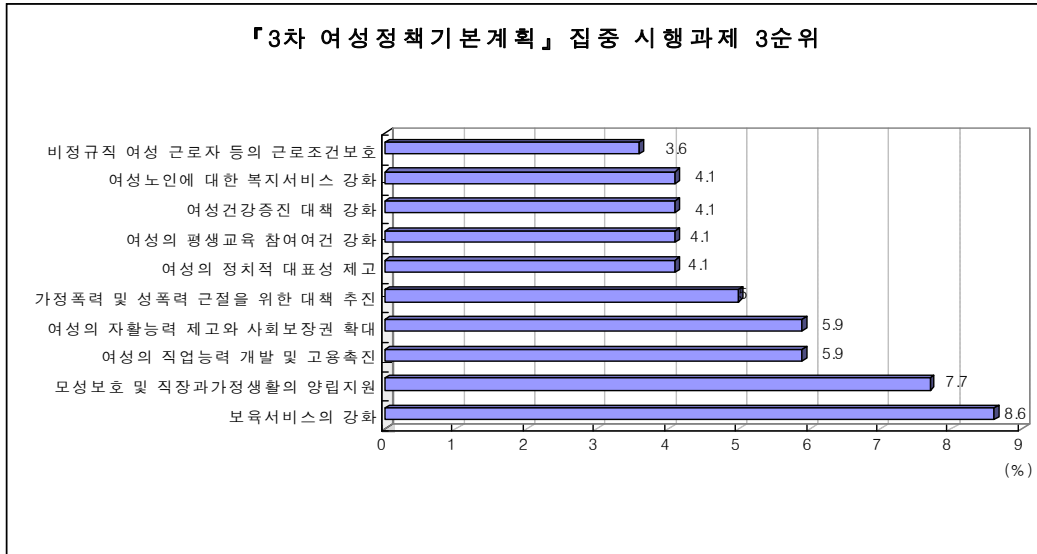
[그림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1순위



[그림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2순위



**[그림 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과제 3순위**



**<표 1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단위 : 명, %)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수립	13 (5.9)	4 (1.8)	4 (1.8)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4 (1.8)	3 (1.4)	1 (0.5)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13 (5.9)	9 (4.1)	6 (2.7)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2 (0.9)	2 (0.9)	9 (4.1)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4 (1.8)	3 (1.4)	3 (1.4)
여성과학인력 육성 및 지원	0 (0.0)	4 (1.8)	3 (1.4)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0 (0.0)	3 (1.4)	1 (0.5)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3 (1.4)	6 (2.7)	3 (1.4)
여성정보화 촉진	2 (0.9)	1 (0.5)	1 (0.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4 (1.8)	3 (1.4)	9 (4.1)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13 (5.9)	5 (2.3)	5 (2.3)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	19 (8.6)	19 (8.6)	17 (7.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22 (10.0)	13 (5.9)	13 (5.9)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	3 (1.4)	6 (2.7)	2 (0.9)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7 (3.2)	20 (9.1)	8 (3.6)
보육서비스의 강화	13 (5.9)	17 (7.7)	19 (8.6)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	3 (1.4)	4 (1.8)	1 (0.5)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1 (0.5)	1 (0.5)	2 (0.9)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0 (0.0)	1 (0.5)	1 (0.5)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1 (0.5)	2 (0.9)	2 (0.9)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1 (0.5)	0 (0.0)	1 (0.5)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0 (0.0)	2 (0.9)	2 (0.9)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2 (0.9)	8 (3.6)	9 (4.1)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10 (4.5)	5 (2.3)	13 (5.9)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5 (2.3)	2 (0.9)	9 (4.1)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5 (2.3)	5 (2.3)	3 (1.4)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제고	6 (2.7)	5 (2.3)	5 (2.3)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16 (7.3)	11 (5.0)	11 (5.0)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4 (1.8)	10 (4.5)	5 (2.3)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 조성	6 (2.7)	10 (4.5)	5 (2.3)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6 (2.7)	2 (0.9)	8 (3.6)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6 (2.7)	6 (2.7)	6 (2.7)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3 (1.4)	4 (1.8)	5 (2.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0 (0.0)	0 (0.0)	4 (1.8)
무응답	23 (10.5)	24 (10.9)	24 (10.9)
합계	220 (100.0)	220 (100.0)	220 (100.0)

## 14-1. 34개 여성정책 과제 외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보육서비스의 강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고용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1~2년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음. 일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사회의 기반환경은 아직도 썰렁함 (공무원, 교 육자...등의 보장된 신분만 누리는 복지정책은 정말 속상함. 모두가 하나되는 그날을 위해...)</li> <li>▪ 육아휴직에 대한 강한 기관의 수용이 필요함</li> <li>▪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육아정책 현실화와 기관에 적용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양성평등한 문화 혁신이 필요하고, 안정된 지원 속에 사회활동이 가능한 정책적 체계가 시급함</li> <li>▪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조성 (인사, 보수 등)</li> <li>▪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육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li> <li>▪ 여성의 근로여건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필요 (실현 가능한 것, 정책제도로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여성입장에서 엄마와 직장에서의 일하는 여성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li> <li>▪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육아휴직제도의 개선</li> <li>▪ 근로여성 탄력근무제 시행</li> <li>▪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은 하나라고 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보육비용 100% 지원 부담 보육에 대한 보장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방안 연구</li> <li>▪ 통합적 가정복지정책을 위한 보육, 일자리, 평등의식 고취 및 실질적 환경변화 요구</li> </ul>

여성정책 추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필요. 대전시 여성통계 작성</li> <li>▪ 여성정책 추진기구의 유기적 연대</li> <li>▪ 여성리더 양성, 성별영향평가 기반조성</li> </ul>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조성 (인사, 보수 등)</li> <li>▪ 양질의 여성 일자리창출 활성화</li> <li>▪ 여성문제의 일자리 문제 등에 심각성이 많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문제해결이 되었으면 함</li> <li>▪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li> <li>▪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li> </ul>



#### 여성·가족복지 향상

- 청소년 및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방안 마련
- 자모원 등 미혼모에 대한 복지시설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혼 및 재혼가정의 증가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미혼모 또는 비혼모(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 제시
- 여성노인 등 홀로노인 보호

#### 취약계층 여성 인권 강화

- 가정폭력 예방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함. 따라서 예방차원에서의 상담이 실시되어야 함
- 요보호 여성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환경적 여건개선
- 성평등 기반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 -인권의식 확산, 인권교육확대

####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 여성의 평화, 통일 분야 인식향상을 위한 장기적 교육지원
-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여성의 정치, 경제, 다양한 면에서 국제교류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여성의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국제교류 필요

#### 교육

- 새롭게 변화해가는 환경적 변화에 대응해 여성들에게 주어져야할 교육들도 뒤따라야 한다고 봄.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사람들로 고려하여
- 직업훈련강화

#### 기타

- 여성과학인력 육성 및 지원
-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람
-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친근한 여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
- 정책홍보방법의 다양화
- 남녀평등문제 외국에서는 남녀 간의 평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함

## 15. 여성정책을 강화하고자 할 때, 해당 대상

<표 16-1> 가장 취약한 여성 정책분야 대상

(단위: 명, %)

구 분	가장 취약한 여성 정책분야 대상
전업주부	35 (15.9)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	34 (15.5)
농어촌 여성	8 (3.6)
장애인 여성	33 (15.0)
미혼여성	3 (1.4)
근로여성	14 (6.4)
한 부모 가정 여성	18 (8.2)
노령여성	23 (10.5)
미혼모	27 (12.3)
결혼이주여성	22 (10.0)
무응답	3 (1.4)
전 체	220 (100.0)

<표 16-2>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여성 정책분야 대상

(단위 : 명, %)

구 분	가장 잘 시행되고있는 여성 정책분야대상
전업주부	25 (11.4)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	22 (10.0)
농어촌 여성	5 (2.3)
장애인 여성	16 (7.3)
미혼여성	12 (5.5)
근로여성	52 (23.6)
한 부모 가정 여성	34 (15.5)
노령여성	14 (6.4)
미혼모	6 (2.7)
결혼이주여성	27 (12.3)
무응답	7 (3.2)
전 체	2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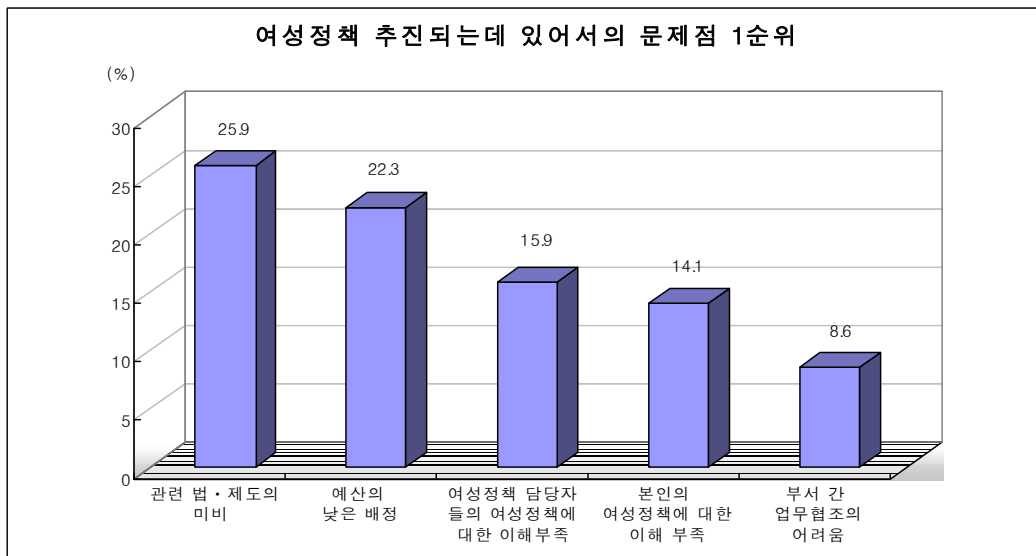
<표 16-3> 가장 크게 보완해야 할 여성 정책분야 대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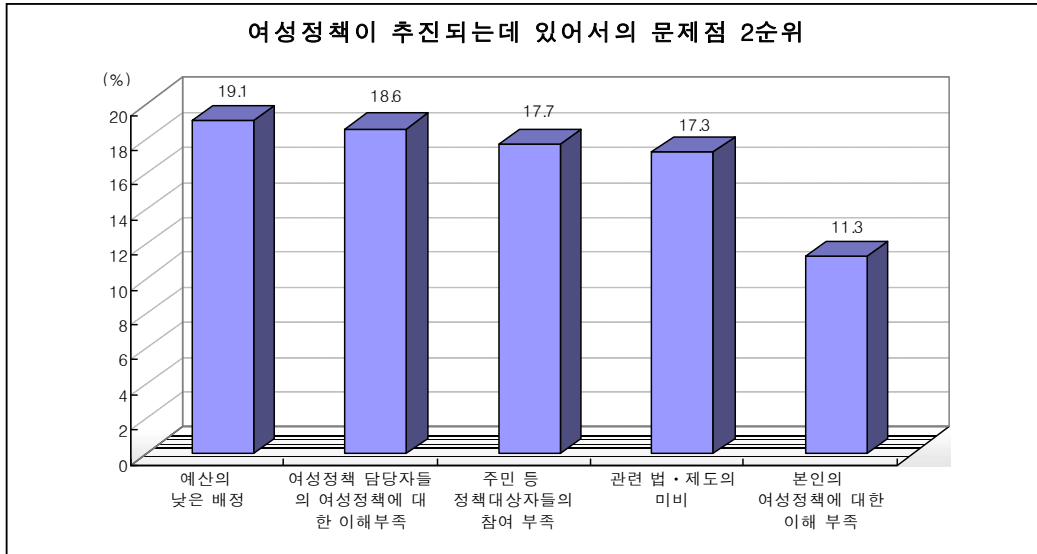
구 분	가장 크게 보완해야 할 여성 정책분야 대상
전업주부	16 (7.3)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	59 (26.8)
농어촌 여성	5 (2.3)
장애인 여성	26 (11.8)
미혼여성	7 (3.2)
근로여성	22 (10.0)
한 부모 가정 여성	21 (9.5)
노령여성	15 (6.8)
미혼모	18 (8.2)
결혼이주여성	28 (12.7)
무응답	3 (1.4)
전 체	220 (100.0)

## 16.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림 4]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1순위



[그림 5]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2순위



<표 17>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관련 법·제도의 미비	57 (25.9)	38 (17.3)
본인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31 (14.1)	26 (11.8)
여성정책 담당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35 (15.9)	41 (18.6)
부서 간 업무협조의 어려움	19 (8.6)	18 (8.2)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의 참여 부족	18 (8.2)	39 (17.7)
인력의 부족	5 (2.3)	14 (6.4)
예산의 낮은 배정	49 (22.3)	42 (19.1)
애로사항 없음	1 (0.5)	0 (0.0)
기 타	2 (0.9)	0 (0.0)
무응답	3 (1.4)	2 (0.9)
전 체	220 (100.0)	220 (100.0)

## 17. 향후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할 분야별 여성정책

### 1) 법·제도 정비 분야

여성근로자 노동, 근로조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근로자의 임금불균형 해소</li> <li>▪ 비정규, 임시 계약직에게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음</li> <li>▪ 직장 내 성희롱 등 대책 강화</li> <li>▪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보육제도나 고용상의 균등적인 제도가 개선, 보완되어야 함</li> </ul>

인권개선과 요보호여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법, 가정폭력법에 대한 법·제도 강화</li> <li>▪ 성폭력법 강화</li> <li>▪ 여성 내 소수자(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보장 및 복지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li> <li>▪ 성폭행 및 성희롱 엄중처벌</li> <li>▪ 여성장애인</li> <li>▪ 가정폭력예방법 보완</li> <li>▪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li> <li>▪ 다각적인 분야의 여성인권에 대한 법적 장치 필요</li> </ul>

가족보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육아, 출생에 대한 법 정비</li> <li>▪ 편모가정 혜택</li> <li>▪ 이혼자녀양육비</li> <li>▪ 한 가정 부모여성에게 대한 지원 확대</li> </ul>

양성평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남녀차별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든 기본 정책 수립 시에 청소년, 노인 등과 같이 여성도 하나의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음</li> </ul>

추진체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관련 부서 활성화</li> <li>▪ 여성정책추진기구의 정비와 예산, 인력 확보 및 충원</li> </ul>

여성정책관련 예산 확대

- 성인지예산 추진체계 강화(지방재정법 개정 후 지자체 지방재정관련 조례제정 필요)
- 예산지원의 한계액 명시
- 여성부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었으면 좋겠음. 일을 할 때 경제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에 힘이 없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무관심해질 수 있음. 법, 제도를 정비하여 힘 있는 여성부가 되었으면 함
-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법·제도 관련

- 관련법, 제도 미비
- 가족정책기본법
- 여성정책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법, 제도 정비
- 양성평등법 제정 실시
- 여성 경제활동지원 관련 조례제정
- 양성평등법의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 분석 후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법률로 개정
- 법이나 제도 또는 지방자치법에 남녀 기회 균등을 명시
- 양성평등을 위한 고령법, 군기법 중 여성관련 조항 강화
- 관련법에 명시하여 매년 정기적인 계획수립의 준거 마련
- 현재 상태로도 충분. 실질적 실행이 문제
- 법 전체적으로 선언적인 것이 아닌 강제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적극적 조치, 할당제 적극실시)
-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방안

기타

- 솔직히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 여성 정책 연구의 전문성 강화
- 법이 정비된다고 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지에 대한 의문 있음
- 여성의 교육을 향상시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 지금보다 사소한 것까지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되어야함
- 정책적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사례를 통해 보완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영구임대 자격에 여성가장도 포함

## 2) 경제 및 고용분야

### 고용안정 및 취업확대

- 고용이 불안한 곳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이 되었으면 함
- 여성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보완)하는 방안 확대
- 여성도 임시직 아닌 정규직으로 남자들과 같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을 균등하게. 고용상 말만 균등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남녀균등
- 여성경제분야 일자리확대
- 여성인력 확산
- 비정규직 여성 보호 및 지원,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보호와 능력개발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
- 고용안정화 및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조건보호와 고용안전

### 고용상 기회균등 및 직장 내 차별적 처우 개선

- 차별고용 폐지
- 기회균등
-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여성인력을 확대해야 함.
- 적극적인 양성평등
-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여성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기회균등(남녀차별개선)
-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
-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 남녀고용평등 강화
- 양성평등하게 고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필요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 개선
- 기업의 여성 관리직 진출 추진

### 취약계층 여성

- 여성장애인, 미혼모, 여성 가장 등 결손여성을 위한 특별채용방안 기획수립
- 저소득층 여성 자활능력 지원강화
- 저소득층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음.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함
- 폭력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

- 전업주부의 경제인구 유입정책 개발
- 전업주부들의 근로기회 창출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

직업교육 프로그램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같은 세미나를 통한 개인적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고용 시 남녀균등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여성인력의 직업교육지원을 통한 취업확대 (현재 평생교육방향이 생활문화적 프로그램에 집중)해외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양성평등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
- 여성의 능력 개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관련

- 지자체에서 여성노동정책 펼칠 수 있도록
- 경제발전 참여토록 국가적 지원

일·가정 양립 관련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 일과 가정양립의 문화 제도적 강화
- 일, 가정 양립지원방안 강화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강화
- 보육지원의 문제해소
- 보육서비스 강화
-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야간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필요

정책·법·제도 관련

- 직장교육 법정화
- 여성노동정책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제도 필요

기타

- 고용현황 미비
- 사회복지분야에 여성인력 확대
- 무조건적 양적 확산보다는 남녀의 특징을 파악하고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음



### 3) 교육 및 사회참여 분야

####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여성 정치 참여 강화
- 여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 여성단체 지원
- 여성단체지원하고 여성의 의견반영
- 사회참여기회 미비

#### 여성 교육

- 여성의 평생교육기회강화
- 평생교육 관련필요
- 여성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 교육기회제공
- 전업주부나 여성노인도 정보화 교육이나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그에 따른 조건 보호가 필요함
- 여성정보제공
- 주부나 여성노인도 정보화교육과 복지시설 구비와 지지가 필요함
- 중증여성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 및 보육서비스제공
- 여성의 평생교육기회를 위한 예산지원
- 자격증이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시간이 주말이나 저녁 늦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 직업능력교육
- 복지관 시설에서의 무료교육과 교육후의 취업 적극 동참
- 교육 정책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장치나 제도 마련 필요
- 정책이 이주여성쪽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을 받음. 장애인 여성에 대한 교육확대
- 능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공적 교육강화와 단순 직업에만 종사하던 것을 전문직의 사회참여
- 한정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교육들을 여성들만을 위해 열었으면 함
-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공교육 차원에서 확대해야함
-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실행 구체화
- 기업, 학교 등 성평등/인권교육확대실시
- 남성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 여의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 보육

- 보육시설에서 교육문제와 육아문제

보육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도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고 있는 가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보육서비스강화

기타

- 여성 과학 인력 육성 지원
- 여성전문인력 의무고용
- 여성 취업지원 강화(취약계층)
- 참여분야의 폭넓음이 부족함

#### 4) 가족 및 복지분야

양성평등 문화 및 정책

- 여성 복지정책 개발
- 보육, 양성평등 가족문화
- 양성평등 확산
- 젠더관점에 기반한 가족정책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성추행, 폭력 관련법을 강화함
- 여성장애인과 여성성폭력피해자의 복지와 가족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가정폭력과 편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 구비와 지지가 필요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 피해자 지원확대
- 성추행 폭력 관련법 강화
-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 강화

여성·가족복지 향상

- 혼합가정문제(재혼)
- 여성의 권익신장과 함께 목격되는 냉담가족, 가족해체가 증가하므로 가족관계 지원이 필요
- 결손가정, 한 부모가정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
- 다양한 가족정책 추진(한 부모, 미혼, 비혼, 공동체 가족지원 확대)

### 여성·가족복지 향상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함
- 여성장애인취업과 역량강화와 건강증진대책 강구
- 함께하는 가족복지 문화의 확산
- 통합적 가족복지정책구축. 편부모나 이혼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적극적인 도움주기
-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강화
-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 노령여성에 대한 복지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
- 미완전 (한부모 가족, 미혼모, 노령여성) 에 대한 구성원의 경제적 지원과 복지혜택 증가
- 폭력이나 해체 위기에 가정들을 위해 다양한 방안 요구됨

### 보육

- 보육
- 가정 내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균등. 사회활동 강화하도록 자녀양육을 사회에서 책임지도록.
- 근로여성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부양, 보육
-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시설(질 높은) 확대와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지원
- 영유아 보호시설확대
- 직장여성에 대한 양육문제
-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물린 민감한 부분이므로 가복 복지차원의 대대적인 육아지원정책의 지원이 필요함

### 기타

- 의료보험의 다양성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 분야의 대비책 마련
- 출산 후 직장복귀 미비
- 빈곤문제
-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

## 5) 의식 및 문화 분야

###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의 확산

- 시민들의 양성평등의식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시민, 여성단체와의 역할(간담회, 여성축제…) 확대
- 양성평등 의식개선
- 사회의식을 양성평등화
- 남녀평등의식 강화
- 양성평등교육 꼭 필요함
- 세분화된 문화, 의식교육분야 설치
- 양성평등 개념 정립
- 양성평등 문화증진
- 시민의식
- 여성부터 당당하게 의식의 전환필요하고 교육하고 재서비스하는 제도필요
-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 고취
- 많은 사람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함
- 의식은 교육에서 이루어지며, 매체를 통해 달라진다고 보고 지속적 추진을 요함

###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 남녀평등의 의식을 위한 홍보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위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들의 문화활동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함
-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수립 및 지원
- 많은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누리기 위해서 공연이 더욱 많아야 하며, 공연료가 저렴해야 함
-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

### 기타

- 가족 문화복지 시스템개발
- 여성의 권익신장은 비교적 성공적인 사회발달분야로 생각되며, 사회일반 취약계층인 노령 여성, 농어촌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 관련법상 균등대우 및 실질적 사회적응 프로그램 발굴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성매매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남녀기회균등의 고용안정

## 6) 국제분야

###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 통일과 세계평화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부서 설치
-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 통일대비 여성 역량 강화

###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 평화,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지자체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선진국 견학(스웨덴 등 양성평등이 발전해 있는 나라 보고 배움) 및 정기적 국제교류(국제세미나 개최 등)
-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를 확대해야 함
-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여성들의 능력증진을 도모하여 국제적 교류를 도모해야 함
- 장애여성에 대한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
- 여성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 여성모임을 통한 국제교류(문화, 경제, 정치)의 다변화

### 기타

- 여성과학자의 육성
- 이주여성 정착에 대한 문제
- 성문제
- 국제, 국내의 여성인력을 충원하고 능력으로 여성역할 확대시키기
- 여성정책에 성공했다고 보이는 국가의 사례를 우리나라 인식에 맞도록 조정하는 일을 학계와 함께 추진

## 18. 대전시 여성정책 담당조직 형태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 추진체계의 강화(조직 개선)

-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의 관계를 묻고 싶음. 대등관계라면 굳이 분리하여 정책을 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정책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한다는 것은 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여성정책의 관계와는 맞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문제를 다루는 전반적 여성정책의 주무부서는 국-과-여성정책이 아닌 독립적인 부서로 분리되어 대전시 정책전반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여성국이라는 이름아래에 속해있는 과들의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됨. 여성정책은 전 부서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구조도 전혀 아니며 실질적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조직 형태임. 최소한 독립적인 여성국내에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배치해야함
- 수년전 양성평등과로 독립해 있었던 '여성전담부서'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통폐합했으니 잘못됐음
- 시정의 전반적 성인지적관점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기구 순위에서 좀 더 앞에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나 실제 정책수립 업무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조직구조가 이상하지는 않지만 조직표자체가 밀레니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지향하는 느낌이 듦
- 복지 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음. 문화, 경제, 산업복지 부문 등 고루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이동함이 좋을 것 같음
-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1개부서(복지여성국)로 여성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함. 각 국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여성위원회를 통해 시정책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성인지적 관점은 사회전반의 문제로, 통합정책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현재방안이 적합함
- 여성정책은 전 부처의 정책에 녹여져야 된다고 봄. 권한 강화와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임(일개부처에서의 파급력은 zero). 예) 부시장 밑 직속기구로 있을 수 있음
- 여성인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현복지여성국의 조직형태에서 인력개발과의 역할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여성정책담당 신설
-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 기획관실 추진이 효율적일 것
-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조직명에 <여성>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모든 정책에 양성모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 적합하지 않음(시장 직속 자문,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통합이 가능함)
-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연계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복지여성국' 내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있는 조직구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추진체계의 강화(조직 개선)

-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복지적 관점도 필요하지만 기획관실과 연결된 시스템구축 필요
- 복지여성국에 보건위생보다는 근로여성과 미혼여성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여성의 발전사는 여성의 복지발전사와 따로 떼어낼 수 없으며,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모두 여성이 존재함. 따라서 여성정책 담당 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음으로 인해 정책이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음. 별도의 조직체계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정책에 임해야 함
- 복지는 보건복지가족부이고 여성정책은 여성부로 중앙차원에서는 복지분야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이지 않음
- 복지여성국에서 순수여성만을 위해 일하고 '과' 자체를 여성만을 위한 것으로 하면 더 좋겠음
- 여성정책에 대한 부서가 따로 없고, 복지와 여성을 함께 두는 조직형태는 여성을 복지대상자로만 보려는 시각으로 보여짐
-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를 신설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나 여성 실무 담당과를 없앤 것은 적절하지 않음. 여성정책과를 부활시켜야함
-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분야는 현 체제로는 부서 간 협조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기획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봄(또는 기획조정부서의 적극적 협조, 지원 필요)
- 전달체계가 복잡함
- 업무의 효율 면에서 미흡 업무의 중복성이 내재되어 있음
-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물론 하부조직으로 여성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성정책담당 직원들의 활동에 성패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미하다고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국명칭 :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이 담긴 명칭으로 개명한다면 보다 더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
- 과명칭 및 구성 :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다소 작은 구성일지라도 전문정책만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여성정책 전담 전달체계 구성)

### 업무영역의 전문화, 내실화

- 복지와 여성이 통합되어 전문성 결여
- 여성정책 담당조직은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여성이 독립하는 경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책 전반적으로 여성(양성)인지가 제고될 수 있는 역할요구
- 여성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음. 그래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함
- 국에 4개 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어진 업무전문가가 최선을 다했으면 함
- 조직형태는 좋으나 복지여성주의 인력을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업무영역의 전문화, 내실화

-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복지에 경험이 많은 일선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함
- 현 체제는 외형상으로는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집중보다는 가족, 청소년정책에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기타

- 적절함
-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 잘 모르겠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 내,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걱정 또는 과대하다고 사료됨; 10개국 중 1개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인력의 규모 측면에서 걱정 또는 과대하다고 사료됨
- 여성정책에 수많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성보호관점도 없는 가운데 문제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함.
- 잘 모르겠음
-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입안자 및 수행자의 의지가 중요
- 아동에 대한 부분을 가족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청소년에 포함시키는지 알 수 없으며, 아동도 하나의 분야로 분리되어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듯
- 적절치 않다고 봄. 여성정책은 전체그림을 그릴 줄 알고 볼 줄 알고 설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함
- 복지여성국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음. 제가 특별히 받은 혜택도 없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음.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음
-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여성경제활동 참여 과제 부분은 찾기 힘들. 그 부분을 추가하면 좋을 듯
- 고령여성에 대한 정책 확대 필요
- 현재조직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양성평등 시대에 여성은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오히려 불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19. 복지여성국의 조직형태가 여성 정책 수행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추진체계의 강화(조직 개선)

- 복지여성국내에 여성정책과로 독립한 조직이든(국-여성정책과-여성정책) 더 요구해보면 독립적인 여성국이 필요함(여성정책을 정책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구조, 여성정



### 추진체계의 강화(조직 개선)

- 책을 연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 필요
- 여성정책과가 필요함. 또는 담당인력 확충
- 여성은 노인, 장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통합적인 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듯함. 교육, 직업 관련 서비스부족
- 앞에서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복지부문만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의견과 같이 여성관련 별도의 부서 분리가 필요함
- 여성의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복지여성국이라 하면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과 더불어 여성이 돌봄의 대상으로 느껴짐.
-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없고 업무 비중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적절치 않음. 적어도 과 정도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전달체계가 복잡함
- 여성가족복지청소년과에서 여성 정책을 세분화하여 과 단위로 신설 재편할 필요 있음
- 구조상 적합하지만 타 전문가와 유기적 구성체(위원회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산, 인력

- 현재 대전시 여성정책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아동, 보육지원을 제외하면 예산과 추진인력이 너무나도 미흡함(대전시 절반여성에 비하면). 정책은 곧 예산이며, 예산은 곧 정책추진의지임. 6%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정책수행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청소년과 여성정책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필요
- 현 여성부의 업무를 대전시의 경우는 1개의 계(담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책수행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 여성정책 담당을 세분화하거나 여성정책 담당 내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향 검토
- 여성정책과 관련된 분야가 너무 한정적임. 가족과 연계, 사회정책과 연관 지어 구체적인 운영시스템과 인력풀이 필요함
- 예전에 비해 정책이 세분화되었고 복지전문인력을 활성화되어졌으면 함
- 조직보다도 조직구성원의 실천의지와 예산배정이 중요
- 여성정책을 다루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조직형태
-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님  
담당관 및 하위팀 구성원이 전문여성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책의 조정 및 감사기능이 있는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었으면 함

### 업무영역의 전문화, 내실화

- 적합함. 전문지식과 실제경험이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자칫하면 여성정책보다 복지와 노인, 보건에 치우칠 내용이 많을 것 같음

#### 업무영역의 전문화, 내실화

- 하위팀의 수가 너무 많음. 가정복지, 보육지원, 저출산고령화 등 목적이 유사한 업무에 대해 통합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함
-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아동, 보육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여성정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음
- 여성복지과에는 여성에 관련된 것을 묶어서(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되었으면 함
- 보육지원은 아동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편이 행정상 편리성과 일관성 있을 듯 함
-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음(보건 위생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음), 여성국으로 1개의 일만 해도 힘들 것 같음
- 구조보다는 담당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음. 과도한 업무라면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 기타

- 적합함
-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적합하다고 생각함. 왜냐면 복지, 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보건 위생이라는 문제들이들 기관에서 잘 다루어질 것 같음
- 여성정책을 시정책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관련 사안이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지어 사고한 듯한 체계로 보임. 특히 구성의 편협성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마인드일 것임
- 잘 모르겠음
- 적합하지 않음. 여성정책은 복지분야의 한파트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인식 제고하는 방향으로..
- 기존의 보호위주 여성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전시가 모범을 보여주기 바람

## 부록 3. 자문회의 기록

### 1.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관한 제1차 자문회의

설문조사가 완료된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관한 제1차 자문회의(2008. 7. 9)에 김경희, 김서희, 오현숙, 송정옥, 주혜진, 함은미가 참석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 1) 총평 및 구조(체계)에 대한 논의

-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게 결과가 나옴. 대표성을 띤다고 생각되는 결과들이 대체로 나왔음.
- 조사대상자를 전문가 집단 외에 일반여성들에게도 여성정책에 대한 설문지를 받아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 이번 설문조사의 연구과제비가 5백만원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다른 설문조사를 한 후 남은 답례품을 모아 설문조사를 했고, 공무원분들은 답례품 없이 해주셨음. 착수 연심회 때도 일반인에 대한 수요도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문가 설문조사도 사소한 답례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일반인은 더욱 더 답례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례품 없이 설문조사원을 내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할 수 없었음.
- 전문가에 준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어떤 문항은 이 정도로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까하는 부분들도 있음. 대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저그러함은 보통 부정적인 응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간주할 것인지 궁금함.

- 조사결과에 대한 평균은 5점 척도의 경우 응답이 전부 3점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서 미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음. 통계 처리하는 방법상 평균을 내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긍정적인 4, 5 값만 긍정으로 봐서 그것만 실제로 얼마인가(몇 %를 차지하는가)를 계산하는 것 필요함. 그렇게 하면 평균값이 많이 달라지고, 정말 긍정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있음. 평균값이라 것이 3번 값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결과를 희석시킴. 4,5번 값만 추려서 %를 내는 것 필요. 예를 들어 만족한다가 40%가 넘었다의 경우 해석할 때 만족한다가 40%가 넘었다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60%가 넘었다고 해석.(그저그러함은 만족은 아님.) 이런 식으로 하면 3에서 0.1, 0.2정도 차이 밖에 안 나는 현재의 연구 결과 값에 의미를 부여하기 나올 것 같음.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이 2점대로 좀 낮은 것 같음.
- 인지도에 대한 홍보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매체임.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실제 여성정책 담당자들한테는 공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한 번 짚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담당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정책에 대해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수혜자)가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에 대한 홍보도 자꾸 해줘야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 인지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 다각화시킬 필요 있음.
- 전문기관의 정보공유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보로부터 제일 먼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여성가장의 경우 여성가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뉴스를 접하지 못해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서만 여성가장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소식이 전달이 됨. 또한 정보가 nonstop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 예를 들어 여민회에서 여성가장들 중에 4인가족 이면서 의료보험이 몇 만원 이하인 경우에 아이들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 등

5백만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루트를 동사무소를 통해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실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경우도 있었음.

- 개인적으로 여성정책이라는 단어자체가 마음이 잘 안 움직여짐.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이제는 여성정책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인 정책을 벗어나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들 마인드도 전체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안에서 체크, 조정, 진행되는 기능을 작동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됨. 제3차 여성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데 여전히 수준은 여성정책대상에게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공무원들 중에도 여성정책을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 않은 공무원들은 여성정책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안 될 것 같음. 그런 수준에 있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평가, 설문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함. 여성정책평가 조사에 있어서 정책 추진체계에서 일반인들이 여성정책에 대해 알고자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접할 수 있는 경로도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임.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진행하고 체크하는가가 중요함.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 관련부분이 진행될 때 공무원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작동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체계 안에서 우선 네트워킹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안에서 내부에 어떻게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함. 현재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있는지의 여부, 몇 년 동안 여성정책을 해본 사람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 결과가 다를 것임. 그 잭이 도대체 얼마나 나눈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야 변화의 지점이 보인다고 생각함. 공무원 안에서 여성정책을 바라보는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급수의 어디를 먼저 교육해야 할 지 알 수 있을 것임. 공무원 교육의 내용도 2년 전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용이 잘못되었음. 지난번에 시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시수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

임. 내용이 매뉴얼화 되고 교육 받는 공무원 그 개인에게만 너무 안 맡겼으면 좋겠음. 교육이라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하게끔 하고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인데 이것이 순서가 맞아야 함.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려면 순서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맞지 않음. 성별영향평가가 이런 것이고 이럴 수 있을 거야까지 알게 하면 교육적으로 관찰할 것 같고 교육을 시킬 때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될 지점인가를 보고 교육해야 하는데 강사한테 시간을 맞추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 효과가 없음. 예산낭비임.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짜지면 강사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정멤버로 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다르면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지 억지로 강의를 해주는 사람한테 이것을 맞춰 교육의 효과가 없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음.

- 공감하는 부분임. 담당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조사대상자의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국장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조사된 공무원들의 답변만 뽑아놓을 수 있다면 여성정책에 대한 그들의 인식부분을 미온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고 생각함.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인지도가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함. 그나마 이렇게라도 알았던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임. 여성관련 정보 인지경로를 보면 업무지침, 관보, 교육, 훈련기관을 통해서인데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봐서는 %가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 제도화, 체계화된 nonstop 정보 전달체계가 필요함.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전문성 유무에 따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진행될 때에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것이 진단되었으면 함. 아니면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2차때와는 다르게 이런 점들이 보완되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을 명시해서 설문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인지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음. 성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부분, 성별 영향평가가 진행될 때 대전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될 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음. 여성정책이란 앞으로 모든 정책에 여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 추진되기 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론화되어야 함. 성별영향평가가 처음 시행될 때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연스런 흐름으로 감. 성별 영향평가가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주관식 답변 중에 여성정책담당관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한 개부서가 여성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이 있음.
- 여성정책담당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칭과 상관없이 여성정책전반에 대한 부분을 각 구에서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공무원 안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한 단계 올라서서 조정하고 진행시키는 사람이 필요함. 그것이 예전으로 치면 여성정책담당관이 할 일인데 사이드에서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와서 확인하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돈만 아까운 자리이고 조직체계 안에서 누군가 실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성인지적 예산과 관련된 부분,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짜서 교육도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반을 체크하고 정책이 각 실국과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공무원 교육과 실제 집행되는 정책에 계속 개입해서 공무원 안에서 실제 이 일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있었으면 함. 이 일을 지고 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 직급도 올리고 전권을 주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시장님 임기 안에 이일이 시행되었으면 함.
- 성인지적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담당관들이 없다는 것이 회의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여성학을 전공한 계약직 공무원 한 명이 성별영향평가만을 하고 있음.

## 2)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1순위 1위가 관련 법·제도의 미비, 2순위 1위가 예산의 낮은 배정임.
- 사실은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이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음.
- 여성관련 법 규정이 권장사항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게 문제임. 이번에 저희가 실시했던 조사를 보면 근로여성의 95%가 원하는 것이 출산휴가의 실질적 시행임. 이렇게 쉬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아니라 최소한 여기까지는 강제적으로 하라는 강제조항을 두어서 강력하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함.
- 실제 여성근로자들은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노동법 관련한 것은 실제 특수계층에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음.

### 3) 가장 취약한 여성 정책분야대상 1위가 전업주부인 것에 대한 논의

- 주부의 개념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여성의 계층화,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전업주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업주부의 층화를 어떻게 세분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그런 점에서 질문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가정 내에서의 수입, 가사노동 전담 부분 등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점검되어야 함.
-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특별한 소수에 맞춰진 복지정책에 한 마디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음.
- 전업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취약대상은 요보호대상자들임. 전업주부는 적극적 복지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서 그런 것 같음. 전업주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 대상으로 넣는 부분도 앞으로 찾아야 하는 분야임.
- 보육의 사회화, 체계화가 전업주부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전업주부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제일 높는데 이런 것을 어



떻게 인정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함.

- 앞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해야 함. 성주류화 정책이 제대로 정착만 되면 이것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음. 지금까지 잔여적 서비스를 하다 보니 요보호여성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고 전업주부는 뒤 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성인지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면 됨.

#### 4)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 여성과학인의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여성과학인의 양극화가 심함. 정규직 여성과학인의 경우 본인들이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지원이 잘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여성과학인에 대한 처우는 너무 심함. 작년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에 연구단지 내의 모든 위촉연구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됨.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재은행의 개념을 이제까지 생각하듯이 너무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DB를 구축하고 하다못해 복덕방 역할을 해주면 됨.
- 조사결과에서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에 대한 성과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2순위 1위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9.2%)로 나타났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고용창출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실에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함.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대상자들에게 성과평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듦. 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고 피상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함.
- 보고서를 만들 때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분들만 따로

떼어내서 성과평가를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

- 인지도가 높은 분들만 따로 분리해서 성과평가를 다시 물어보는 것은 편향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차라리 직업별로 분석하는 등 주어진 변수를 두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미리 모니터요원을 두어서 그 후에 이루어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면 좋겠음. 처음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후에 이루어진 과정을 평가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응답은 지금의 대상자들보다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지금의 조사대상은 가장 많이 투입되어야할 부분 문항에 있어서 성폭력, 가정폭력 실무자가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5) 보고서에서 부각시켰으면 하는 부분

- 집중 과제 1, 2, 3순위는 조사대상자의 관심분야가 우선적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1, 2, 3순위 외의 다른 부분들도 이 조사에서는 채택이 안 되었지만 설문집단이 바뀌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음. 우선순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서술도 구체화되었으면 함.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제가 아니라 보육 문제 같은 실생활에 와 닿는 욕구와 그것에 대한 해결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면 함. 모든 문제는 정치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들이 들어가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6)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요소들의 필요정도

- 담당부서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양성평등과의 경우 명칭이 바뀐 것도 문제지만 행정기관에 있던 여성정책관련기구를 정책개발원 쪽으로 옮긴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함. 아무리 정책을 제안해도 그걸 집행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의 강력한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조직체계로는 어려움. 연구원은 단순히 제안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집행기구이어야 함.

#### 7)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

-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1위로 나타났는데 공감대 형성의 기본은 교육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만들 수 밖에 없음. 시, 구의원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면 좋겠음.

#### 8) 여성정책 수행 시에 국민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방법

- 상당히 충분함 10.5%, 매우 충분함 0%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음. 이해당사자들이 주로 열악한 계층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 TV나 대중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실제로 본인이 보육비지원 대상인지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위에서 말했던 인재은행, 복덕방처럼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nonstop지원체계가 필요함
-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보고서의 내용에 실렸으면 함. 그 보고서를 보고 객관화될 수 있는 평가를 알 수 있었으면 함.  
카테고리별 주제별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전국자료가 아닌 시도별 정확한 통계 DB 구축 필요.

## 2.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관한 제2차 공무원 자문회의

설문조사가 완료된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관한 제2차 공무원 자문회의(2008. 7. 22)에 김옥희, 김정태, 송영자, 이봉희, 송정옥, 주혜진, 함은미가 참석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 1)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여성관련 정보 인지 경로

- 10대 핵심 정책과제, 34개 소 정책과제에 대해 전혀 모름, 잘 모름의 비율이 높고 여성관련 정보 인지 경로는 TV 등 대중매체에 집중되어 있음. 여성 개개인에 따라 충분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개별안내책자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TV로 일부부만 스쳐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게 됨.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행정기관도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틀이 나와서 정말로 필요한 여성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활동할 수 있게 돕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함. 공무원들은 업무지침 등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10대 핵심 정책과제, 34개 정책과제에 대한 어떤 틀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단체, 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어디를 들어가든 찾아볼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함. 미디어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회복지기관 모든 단체, 여성관련 단체들 사이트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올려 있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합체 노력 필요.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내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한계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10대 정책과제, 34개 정책과제가 있다는 것을 직장에서 일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필요. 공무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복지관이나 여성관련 단체조차도 모를 수

있음. 여성관련단체 등은 더욱 협조적으로 해줘야 함.

여성관련 정보 인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 체계에서 항상 그 부분이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간구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부분이 제대로 안되면 그 다음 방향은 굉장히 힘들.

- 복지관련 단체, 여성관련 단체, 여성관련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번이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는지 궁금함.
  - 각 시설별로 교육기간이 있음. 보육시설이 제일 많고 여성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음. 하지만 그런 기회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만 할 뿐 여성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하는 것은 그 동안 없었고, 실제적으로 어려움.

## 2)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요소들의 필요정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에 따라 좌우됨.
- 전담부서장의 리더십이 중요함. 남성과장님의 경우 여성업무에 별 관심이 없고 여성업무는 주변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중간관리자의 마인드가 중요함. 5개 구 중 서구만 주무계가 여성계인데 주무계로서의 주무계이지 여성업무에 대한 주무계로 안 되어 있음.
-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성계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동장으로 나갔음. 제가 여성계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1호, 제 다음에 온 여성계장이 남성보다 23년 빠르게 우대 승진했음. 그런 것을 보면 단체장의 의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 자리에 아주 유능한 여성직원들 3명을 두고 생각하고 있음. 그만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성업무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고 여성들이 그 자리를 오려고 함.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 자리에 와야 승진을 한다는 마인드가 잡혀 있음.
- 여성정책 담당인력의 평등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영국에 갔을 때 여성의

장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영국에도 여성업무 전담인력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음. 영국에서는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없어서 20년 전에 없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여성전담인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함.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은 이렇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라는 생각을 함. 동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여자라고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여성의식이 함양되면서 술을 권하지도 않고 남자직원들이 자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줌. 지금까지 여성들이 여성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담당인력, 조직이 확대되어 위에서 세부적,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중요함. 행복도시에 대해 처음에는 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행복도시 책자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봄. 책자에 글을 써서 올렸더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인터넷의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했음. 발전연구원에서 여성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하고 대전시에서도 마인드 있는 공무원들이 여성업무를 더 많이 확산시켜야 함.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완전히 정착 되서 여성평등의식, 여성참여가 잘 되어갈 것임. 아직까지는 인력 때문에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음. 이런 것을 확산하다면 여성참여가 많이 확대될 것임.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마무리 작업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여성이 사회의 고급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임.

### 3) 조직

-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담당관 필요함. 대전시의 경우 여성가족청소년과 한 계만 있는데 하위부서에 있다 보니 탄력을 받지 못함. 담당관실이 있어서 기획과 맞물려서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탄력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함. 현재의 체계 안에서는 탄력 받기 어려움.
- 여성가족청소년 과장님이 대부분 남성이고 오셨다가 1-2년 있다가 거쳐가는 식으로 생각함. 대전시의 경우 여성정책의 발전이 거의 없고 몇 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여성정책에 대한 이유가 없음.

- 현재 조직 상 여성정책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서임. 그러다 보니 과 속의 섬이 되고 탄력을 받을 수 없음. 과장님도 여성정책에 올인 할 수 없음. 크지 않더라도 별도 조직이 상위부서에 위치하면서 탄력 받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여성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짐.

동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양성평등의식이 되려면 사회전반적인 구조상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는 힘들.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 정책부분을 달성하려면 조직부분이 변해야 함. 동장님 말씀대로 보편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때는 없어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끌어가는 집단 즉 주축세력이 있어야 함.

- 한 10년만 그렇게 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임. 여성리더가 같이 끝나간다면 10년이면 정착될 것 같음.

#### 4)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집중 시행 과제

-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리더쉽
- 여성정책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 우선 예산만 있으면 추진이 됨. 예산확보가 기본전제가 되어야 위의 것들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짐. 복지를 하면서 느낀 것이 관심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다는 것임. 관심이 예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말씀하신 인력이라는 부분이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양성평등에 있어서 남성들도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됨. 여성회관에 가면 여성 사회복지사만 있고 남성 사회복지사를 보내달라면 안 보내주는데 역차별임. 이름도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역으로 그 자리에 남성을 앉혀봐야 생각이 달라지고 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함. 전담인력을 만든다면 여성 반, 남성 반으로 하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사실 이 부분은 순위를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모든 부분이 필요한 부분

이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가 같이 나가야 함

- 위의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필요함.

## 5)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대안

- 여성단체연합, 대전발전연구원 등이 여성에 대한 주제로 시장부터 구청장까지 기관 단체장 워크숍 기회를 계획하는 방안. 여성단체가 초청해서 앉혀놓고 대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주제를 잘 선정해서 현 상황을 분명히 설명해주고 각 기관장들이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진행. 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식 전환시키는 방안을 뽑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서 하루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겠음.

외국의 사례도 보여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합목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룹에 있어서도 단체장들,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의 장들까지 포함한다면 모임자체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정보를 많이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임. 단체장의 의식전환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음.

- 프로그램명에 있어서 꼭 여성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 없이 '리더십 아카데미', '창의적 리더십'과 같은 타이틀로 거부감을 줄이면서 그 안에 여성과 소수자를 생각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음.
- 시청 고급 공무원들의 연찬회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활용 여성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여성부에서 실적을 받는 중앙기관을 분리하는 것 필요함. 해당부처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여성부로 옮기면 더 잘 될 것임.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1순위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으로 나왔음. 현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입안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함. 시급한 문제임.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 1순위, 2



순위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 보호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업임. 중앙에서 할 수 밖에 없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육 부분 같은 경우 지난 5년 동안 어떤 부분보다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지만 시설장이 아니라 교사의 문제가 심각함. 대전에 보육교사가 4000여 명 정도 있는데 최저월급이 87-89만원으로 저임금화 되어 있음. 시에서 8-14만원을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보육교사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아주 낮은 임금에 여성들이 포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적인 합법화가 되어 있음. 이런 저임금화 되어 있는 법적인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앙부처, 법 관계,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함. 지금 70-80만원 정도 최저임금의 장기요양보호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교육 받고 있음. 보육을 포함하여 모든 복지분야가 여성으로 채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저임금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음. 대전시가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보육교사들은 힘들. 전국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책이 있어야 함.

## 6) 여성정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 인센티브가 있으면 추진의 의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함. 인센티브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
- 내년부터 개별평가가 없어지고 모든 평가가 합동평가로 통합될 예정임.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000억원을 지원함. 다른 분야는 그 동안 평가와 특별교부금 같은 인센티브가 많이 있었는데 여성분야는 평가는 있되 인센티브가 없었고 장관상 하나면 끝났음. 그러므로 여성정책이 크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
- 보육부분에서 일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평가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었음. 올해는 1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평가제도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함. 여성정책 부분에 한해서 만이라도 여성부 자체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장, 과장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여성부가 복지부로 통합되서 일하는 것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함.

## 7) 그 밖의 의견

- 1차, 2차,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나온 부분들이 다른 영역의 변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임.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 이전에 1, 2차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1차, 2차를 거쳐 오면서 평가결과는 나왔을 것이고 1차, 2차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1, 2순위에 대한 정책의 노력의 결과가 몇 % 와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선행 투자해야 함.
- 여성정책이 넓은 영역, 공유가 되는 부분이 많음. 가령 보육은 남성, 여성, 모든 가족이 관계된 부분임. 여성정책이 결코 여성정책의 대상만은 아님. 여성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혼동하지 말고 공통분모는 빼야됨. 꼭 여성정책이 다뤄야만 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에서 다루는 문제로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 여성부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부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 보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듦.

### 3.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관한 제3차 연구자 자문회의

설문조사가 완료된 '여성정책 수행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관한 제3차 연구자 자문회의(2008. 9. 17)에 윤경아, 정연정, 황창연, 송정옥, 주혜진, 함은미가 참석하였고 다음의 사항들이 제기되었다.

#### 1) 보고서 구성

- 설문지상에는 여성정책수행평가 및 발전방향이라고 해서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자문회의에 와서 보니 여성백서임. 평가라고 생각하면 지표개발, 실적자료들을 참고해서 설문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여성백서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설문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거에 앞서 현황자료가 들어가야 하고 훨씬 중요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대전시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예를 들어 34개 정책과제 중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대전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수행실적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그 다음에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음. 현황과 개선방향 나올 때 설문자료와 섞어서 의견을 종합하면 될 것 같음. 어쨌든 수행실적, 목표가 나와야 함. 3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설문내용만 가지고는 여성백서에 기본계획을 싣기가 어려움.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윤곽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음. 34개에 대해서 하기 어려우면 10개의 큰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그것만이라도 보여줘야 백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135개의 지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만족도가 조사된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 3차 기본여성계획도 각 시도별로 여성부에 올렸음. 지표별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함.
- 그 동안 측정이나 평가에는 거의 치중하지 못했고 수립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3차 계획부터 측정지표를 만들 예정임.

-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미지를 보는 것 같음. 실적을 볼 수 없어서 이미지만 갖고 잘했다, 못했더라를 말하는 것이어서 평가라고 하기도 애매함.
- 여기서 평가는 3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1-5점 평점이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각 문항에 대해서 잘 시행되고 있다, 성과가 없다 등의 평균점수가 일종의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평가의 의미는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실적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기 어려움.
- 시 자체평가를 하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평가의 성격은 그래야 할 것 같음. 지금 이 설문은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큼.
-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함. 제가 보기에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부 내부에서 하는 수용도 평가의 성격을 많이 띠.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의 정책 수혜대상자들에게 사업이 어땠는가 예를 들어 관심도, 만족도, 이해정도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일정부분 가중치를 두어서 포함시킴. 거시적이고 불완전한 정책평가라는 제목으로 가지 말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도 평가의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최종보고서에 명기하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관심도의 문제, 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되는 바람직 하다라는 expectation 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인지,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도를 보고서에서 포장을 해주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도 평가라는 관점에서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음. 전문가라 하지만 실제로 여성관련 분야의 정책이슈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여성공무원정도이고 NGO 관계자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은 노동을 제공하는 쪽이고 정책의 거시적인 조정, 패러다임, 방법론, 추진체계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 주로 여기 샘플 안에 응답자로 포함된 사람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사전 이해 차이가 상당히 심함. 공무원들은 정책의 흐름을 알지만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음.

전문가들도 그들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동상이몽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보면 fluctuation이 많고 그저그리함의 답변이 많음. 이런 output은 실제로 대상자들간에 일정부분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임. 그런 부분을 앞쪽에서 어떻게 정당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함.

- 자문회의 중에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서 차라리 대상별로 나누어 결과를 따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음.
- 본질적으로 그런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임. 이미 질문자체에 대한 선형적인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몇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동일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질문자체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의 가능성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좁혀보려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충분한 사전대상자들의 교육, 정보제공을 했었다는 것을 서술할 수도 있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측면들을 향후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야 함. output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임. 그리고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뉘앙스를 갖는 질문들이 많음. 예를 들어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 요소들의 필요정도와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임. 또한 기타를 빼고는 선택문항이 비슷함.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필요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조작화를 해서 쓰고 7번 같은 경우 기타 답변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정책이슈로 정해 기술해주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 관심이 높더라라든가, 그런 것을 독립적으로 얘기할 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나음. 전략적인 것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음.

또 하나는 output 자체가 다음 기본계획 수립의 아젠다 세팅 기능을 한다면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된 게 있으신지 궁금함.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는데 어떤 implication을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포인트로 선별화가 가능한지 여쭙보고 싶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주제, 정책영역이 중요함. 설문조사대상자들이 여러 여성정책분야와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계획안에 반영해서 거기에 예산투입을 늘리고 하는 등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면이 있음.

-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점으로 이야기 된 것이 첫째, 인지도 부분, 홍보,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들, 둘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셋째, 조직체계 개선에 있어서의 문제들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집중 시행할 과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제안사항 중에는 예산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같은 고용촉진에 관한 부분,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저임금에 포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음.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평가, 인센티브제가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 얘기 되었음.
- 저의 포커스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실용적인 목표와 연동해서 생각해 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여성기본계획도 그렇지만 부처, 정부에서 추진되는 기본계획을 단위별로 세울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선회해야 할 지 말지 이런 체계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여성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방향조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이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임. 아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기본방향 밑의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한 단위사업 중 실제로 해왔던 것들 중에서 사업을 발굴할 아이디어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하도록 뭔가 implication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아니면 폐기를 해라, 어떤 것들은 좀 더 확장을 해서 강화를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만 여기서 얻을 수 있어도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성하시는 담당자께서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임. 그런 차원에서 설문조사 된

것에 좀 더 기술방식을 가져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계속 말씀하신 설문문항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 관점임. 홍보의 중요성, 네트워크의 중요성, 추진체계의 효율성 등은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사업의 기본임. 그런 것을 하이라이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함. 설문조사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억지로라도 재해석해보는 것이 한 방법일수도 있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음. 기본계획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implication을 주는 답변이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reflection을 해보는 것이 필요함.

- 말씀하신 방향을 선회하기가 쉽지 않음. 4번 필요정도에 관한 문항을 말씀하셨는데 필요정도가 다 중요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냥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니까 어느 쪽으로 예산분배를 하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움 상황임. 전체사업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자라고 할 때 얘기할 거리가 없음. 현황을 봐야 얘기할 수 있음.
-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12번(지자체의 여성 정책 수립·시행 시 관련자의 의견 반영 정도), 13번(2차 여성계획의 10대 핵심과제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든 과제에 대한 평가를 했고, 13번 같은 경우 34개 정책과제 작은 사업단위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output이 나왔을 때 매우 적합이 높게 나온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 중심으로 선택과 집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든지 매우 적합이 많아지면 거기에 단위사업과제를 좀 더 개발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34개에 대한 구체적인 여성정책 사업 데이터가 있을 것임. 이 조사의 성과 있음, 성과 없음 대담한 것을 쓰는 것은 질문을 보면서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실적하고 옆에 나온 성과 있음, 없음의 결과를 대충 매칭시켜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34개 사업이 전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이고 거기에서 실적을 받아서 취합하는 것임. 실적을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려움.
-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주체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임. 불충분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이라는 형태로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매우 높음 부분이 많이 나온 사업들에 대한 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안을 내는 것이 필요함.

## 2) 정책제언

- 경제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들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도 있고 핵심적인 사업인데 실제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함. 또 하나는 내년도에 국제행사, 컨벤션 산업이 있는데 앞으로 시행될 주요 시책들과 여성인력의 연동가능성에 대해 시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함.
- 그 동안 여성인력고용에 대해 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부가 주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못했고 작년부터 시작했음. 작년 처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인턴사업, 경력단절 여성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사업 등을 했고 올해 많이 됐고 내년에 그쪽으로 주력하려고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공무원 자신들도 이쪽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관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과제들 예를 들어 대전 여성인력을 컨벤션산업과 연동해 특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그런 쪽의 인력수요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 대전시가 안 되면 인근지역에서 유치해서 지역으로 여성을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든지 하는 이런 제안을 역으로 계획서나 보고



서를 통해서 리더십에게 할 수 있어야만 보고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대전시 여성사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전여성사업은 매력적인 면이 없다는 것임. 선거가 가까오니까 자치단체장도 지지와 관련해서 여성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존에 해왔던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완전히 탈피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사업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안하고 보고하실 때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함.

- 여기에 나온 결과보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함. 시장 선거도 있으니까 공감하는 아이디어는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음. 아이디어(사업) 제안해야 함.
- 유천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음. 그런 사례가 이미 한번 있었기 때문에 대전지역 여성 성매매 실효성 제고 문제를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협조문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내용 중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기사를 쭉 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찰과 제도적으로 그런 면을 강화시켜나가야 할지 제안하면서 5가지 정도 그런 사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리더십의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음. 성매매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음.
- 3차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로 보육이 높게 나왔는데 보육과 관련하여 연동시켜서, 보고서의 설문조사와 연동시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공약사업과 관계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함.
- 시장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공약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임. 일자리 사업에 노인도 들어가고 여성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자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는 많지만 사실 미미함. 1년에 100

여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작년에는 100여명 했으니까 올해는 좀 더 늘려가고 내년에도 하고 그런 순환 고리가 있음.

- 여성정책을 담당하시면서 이거는 꼭 해야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함.
- 여성들의 인력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마인드를 강화시켜야 하겠 다는 생각이 듬. 그것만 있어도 여성복지, 여성의 사회지위가 달라질 것 같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질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듬. 그런데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것을 같은 공무원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벽임. 제가 다음 주부터 공무원 800여명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킬 예정임. 성인지력향상워크숍이란 주제로 하루과정으로 진행됨.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한번쯤은 하겠지란 생각이 들어서 함. 사실 성과관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음. 그래서 성과관리의 공통지표로 성별영향평가를 넣었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공통지표에서 채택이 안 되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채택되었을 것임.
- 또 하나 여성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자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컨벤션 산업이 홈스테이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음. 제가 염려되는 것은 홈스테이 안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들임. 그런 노동력에 대한 지원, 보상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계획이 없음. 여성들의 노동가치도 보존하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하고 컨벤션 산업을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노동을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쪽 부서에서 시장님이나 관계부처에 주면 당장 예산 배분을 안 할리 없음. 대전시 같은 경우 그것이 갈급한 문제이고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홈스테이로 결정했지만 이게 오히려 루틴화된 방식으로 갈 가망성이 높음. 그러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대전의 전체 컨벤션 산업을 유지해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함. 홈스테이 하면서 여성들이 단순히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이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함. 그런데 그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음. 컨벤션 산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런 체계를 계속 갖춰나간다는 노력의 일환이고 그게 바로 아이디어임. 노동에 대한 가치를 보존해주면서 질도 높여서 시에서 오히려 마음 놓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win-win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시장이라도 no할 이유가 없는 사업임. 그러면서 이안에 관련되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고 여성교육과도 연동됨. 이런 식으로 사업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함.

- caring하는 여성들을 caring하는 정책이 있어야 함.
- 케어링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있으나 퀄리티 관리는 안 되고 있음. 지금 보육도우미, 가사도우미, 장애인도우미 등 각종 도우미를 교육시켜서 파견은 하되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음.
- 정교수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해서 실제로 반영되거나 호감을 가지면 분명히 좋을 것 같음. 그러나 이 설문조사 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어떤 의미에서 별개로 추진이 가능한 걸로 보여짐. 그래서 이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상당부분 사장될 소지가 있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관점을 이 연구의 방향을 그야말로 제언, 어필, 활용될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것에 대한 총괄점검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음. 13번 34개 정책과제 중 성매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안을 설정해 놓으면 전혀 성과 없음으로 나오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면 될 거 같고 만일 매우 성과가 크다고 하면 크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것 같음. 그런데 13번 같은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제언과 연결하는 중심을 선행해야 함.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본취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임. 내년도 여성관련되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는데 기본자료로 쓰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서의 그런 취지로 한다면 하나의 패키지로 봤을 때 수용도 조사라고 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제언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제언들을 하면 됨.

- 그렇게 하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할 수 없음. 현황 없이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백서에 항상 수용도 평가에 대한 부분,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결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토리텔링만 잘 끌고 간다면 이렇게 라도 가능하겠단 생각이 드는 것임.
- 컨벤션 산업을 일자리창출에 넣어서 특성화시키는 것도 생각해볼만함.
- 대전지역 대학 중에 컨벤션이나 호텔경영과 관계된 학과가 유난히 많음. 여대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여성인력임.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업들, 지역문화 홍보, 지역사회 홍보, 정책성과 관련된 것,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페스티벌임. 홈스테이 여성들이 다 해놓고 그 노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페이를 해줄 것인지 잘 모르겠음. 홈스테이하면서 여성들의 노동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함. 그리고 시에서 컨벤션에 대한 부서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음.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프로그램들도 여성 쪽에서 한 번 생각해봐주고 여성이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유지해가는 프로그램 매니저가 되는 것임.
- 대전시의 기금 중 대학의 프로젝트에 돈을 대주는 것이 있음. 컨벤션학과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음. 관련학과에서 홈스테이가 다루는 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프로그램 매니저를 하는 아주머니들의 교육도 하고 돈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아니면 기업 쪽에서 인건비를 보존해주는 펀드를 받아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이 조사는 활용하려면 제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현황은 꼭 들어가야 함.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는 어려움.

## 부록 4. 대전여성 현황 통계표

### 1. 경제활동

<표 1>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인구(대전)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7	2000	2003	2005	2007
성 별	남 성	247(59.8)	354(61.0)	358(59.1)	394(59.5)	399(59.4)	416(59.1)
	여 성	166(40.2)	226(39.0)	248(40.9)	267(40.4)	273(40.6)	288(40.9)
연령별	15-19세	14(3.4)	11(1.9)	14(2.3)	9(1.4)	9(1.3)	6(0.9)
	20-29세	107(25.9)	146(25.2)	146(25.2)	152(23.0)	141(21.0)	140(19.9)
	30-39세	124(30.0)	187(32.2)	187(32.2)	196(29.6)	196(29.6)	195(27.7)
	40-49세	92(22.3)	138(23.8)	138(23.8)	187(28.2)	187(28.2)	198(28.1)
	50-59세	54(13.1)	70(12.1)	70(12.1)	86(13.0)	86(13.0)	119(16.9)
	60세 이상	21(5.1)	28(4.8)	31(5.1)	33(5.0)	33(5.0)	46(6.5)
학력별	초졸이하	102(24.7)	84(14.5)	79(13.0)	60(9.1)	56(8.3)	55(7.8)
	중 졸	87(21.1)	91(15.7)	80(13.2)	62(9.4)	66(9.8)	62(8.8)
	고 졸	154(37.3)	246(42.4)	265(43.7)	283(42.7)	271(40.3)	275(39.1)
	대졸이상	70(16.9)	160(27.6)	182(30.0)	257(38.8)	28.0(41.7)	312(44.3)
전 체		413(100.0)	580(100.0)	606(100.0)	662(100.0)	672(100.0)	704(100.0)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표 2>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전국여성							
2000	18,664	9,101	8,769	332	9,564	48.8	3.6
2002	19,042	9,486	9,225	261	9,556	49.8	2.8
2004	19,405	9,690	9,364	326	9,716	49.9	3.4
2005	19,683	9,860	9,526	334	9,823	50.1	3.4
2006	19,899	10,001	9,706	294	9,898	50.3	2.9
2007	20,086	10,092	9,826	266	9,994	50.2	2.6
전국남성							
2000	17,522	13,034	12,387	647	4,488	74.4	5.0
2002	17,921	13,435	12,944	491	4,486	75.0	3.7
2004	18,312	13,727	13,193	534	4,584	75.0	3.9
2005	18,616	13,883	13,330	553	4,734	74.6	4.0
2006	18,863	13,978	13,444	533	4,885	74.1	3.8
2007	19,084	14,124	13,607	517	4,960	74.0	3.7
대전여성							
2000	543	249	-	-	295	45.9	-
2002	562	281	-	-	281	50.0	-
2004	580	273	261	12	308	47.0	4.3
2005	590	275	263	12	315	46.6	4.3
2006	599	282	270	12	317	47.1	4.2
2007	609	290	280	10	319	47.6	3.4
대전남성							
2000	513	359	-	-	154	70	-
2002	533	386	-	-	46	72.4	-
2004	553	404	388	17	148	73.1	4.1
2005	564	401	383	18	163	71.1	4.5
2006	575	410	391	19	166	71.2	4.6
2007	86	419	400	19	166	71.6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구직기간 4주 기준

**<표 3> 경제활동참가율(대전)**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7	2000	2003	2005	2007	'97'07 차이
성 별	남 성	69.2	72.8	69.8	72.7	70.7	71.1	-1.7
	여 성	43.8	44.2	45.7	46.9	46.3	47.3	3.1
연령별	15-19세	12.4	8.6	11.3	8.2	9.4	6.1	-2.5
	20-29세	59.4	60.3	60.4	62.9	60.3	61.3	1.0
	30-39세	75.6	74.5	73.1	75.0	73.7	73.5	-1.0
	40-49세	76.7	79.3	76.9	78.7	77.0	78.2	-1.1
	50-59세	66.7	68.6	62.3	65.6	62.0	69.7	1.1
	60세 이상	27.3	27.7	26.5	23.7	26.2	26.7	-1.0
학력별	초졸이하	51.3	44.9	42.5	35.9	33.7	33.7	-11.2
	중 졸	45.8	46.2	42.8	37.8	38.9	34.6	-11.6
	고 졸	58.8	59.6	59.4	62.2	59.6	60.5	0.9
	대졸이상	82.4	80.0	76.8	78.5	76.7	78.5	-1.5
전 체		56.2	58.1	57.4	59.5	58.2	59.0	0.9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주 : 구직기간 1주 기준

**<표 4> 대전 및 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 울	48.8	49.7	50.0	51.6	52.0	51.9	51.7
부 산	47.5	49	45.4	46.1	46.9	47.1	47.5
대 구	47.4	49.9	49.1	50.2	50.8	49.8	48.9
인 천	46.5	48.5	47.3	48.3	47.1	47.9	48.8
광 주	45.8	49.4	46.3	47.5	48.5	48.2	48.7
대 전	45.9	50.0	47.1	47.0	46.6	47.1	47.6
울 산	41.1	44.1	42	44.2	43.5	41.9	4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주 : 구직기간 4주 기준

**<표 5> 평소 구직자의 성별 희망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2006)**

(단위 : 천명)

구 분	총수	희망고용 형태			희망소득 수준			
		임금근로자	시간제	전일제	비임금 근로자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전 체	30	27	5	22	3	9	15	6
남 자	13	11	1	10	2	3	5	5
여 자	17	16	4	12	1	7	10	1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표 6>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실직경험 및 구직계획(2006)**

(단위 : 천명)

구 분	총수	지난 5년내 직장 있었음	1년내 구직계획 있음			비임금 근로
			임 금 근 로	시간제	전일제	
전 체	452	73	91	42	45	5
남 자	156	25	34	13	19	2
여 자	296	48	58	29	26	3

자료 : 통계청, KOSIS(<http://kosis.nso.go.kr>)

**<표 7>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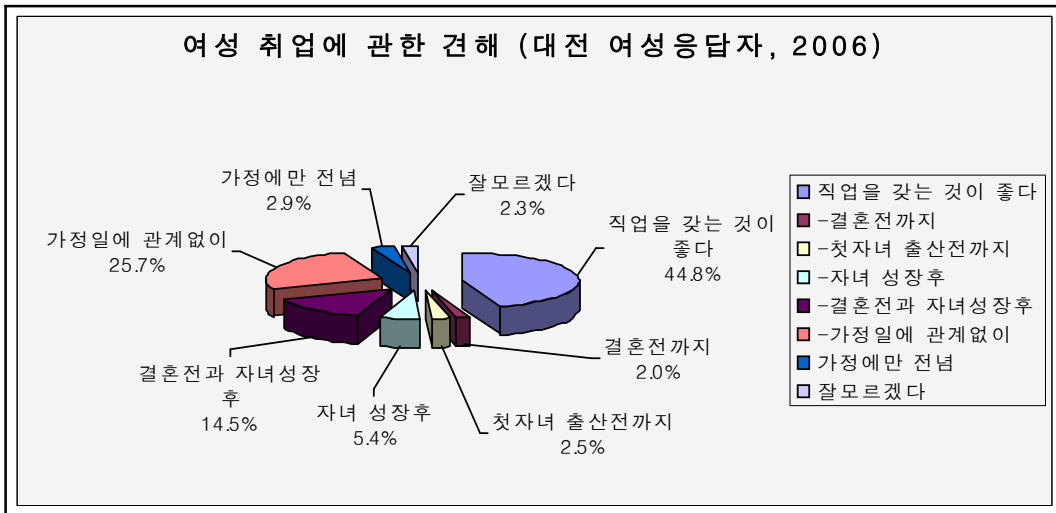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가정에만 전념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결혼 전 까지만 취업	첫 자녀 출산전까 지 취업	자 녀 성장 후 취업	결혼전과 자녀성장 후 취업	가정 일에 관계없이 취업	잘 모르겠다
<전 국>	8.7	85.5	5.0	7.3	13.0	27.4	47.3	5.8
남	10.9	81.8	5.9	8.8	14.3	27.6	43.3	7.4
여	6.7	89	4.1	6.0	11.9	27.2	50.8	4.3
<대 전>	8.6	85.2	4.4	6.5	12.1	28.8	48.2	6.2
남	11.4	80.7	4.8	8.3	13.6	28.7	44.6	7.8
여	5.8	89.5	4.0	4.9	10.8	28.9	51.4	4.6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그림 1]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대전 여성응답자, 2006)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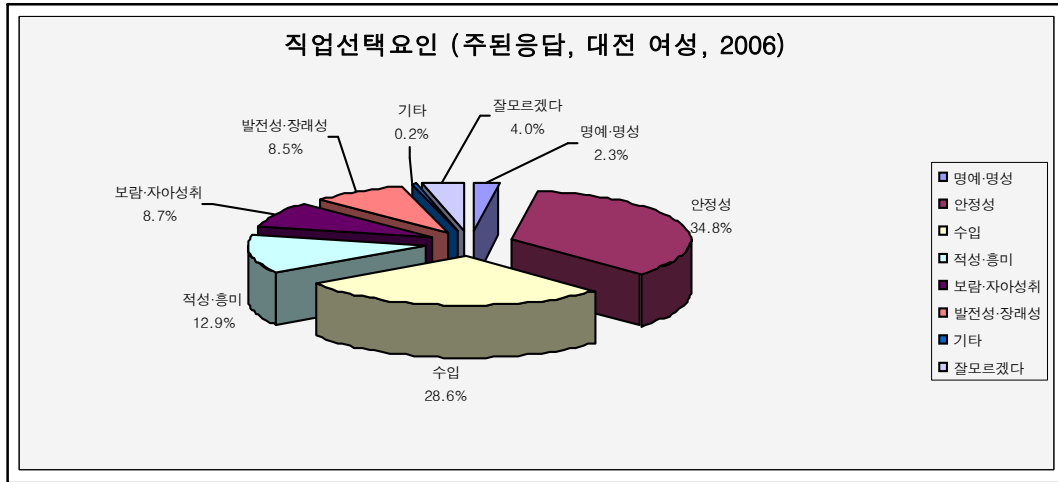
<표 8> 직업선택요인

(단위 : %)

구 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잘 모르겠다
여 성								
서울	2.4	29.6	32.4	14.7	7.3	9.7	0.1	3.8
부산	2.2	34.5	34.9	11.6	4.9	7.8	0.1	4.1
대구	2.1	33.1	33.9	12.2	6.3	9	0.1	3.4
인천	1.7	32	32.7	11.4	7.7	8.3	-	6.4
광주	2.8	36.5	29.3	10.8	6.5	9.2	0.3	4.5
대전	2.3	34.8	28.6	12.9	8.7	8.5	0.2	4
울산	1.5	32.3	35.3	12.6	5.9	9.7	0.1	2.7
남 성								
서울	3.2	30.4	31.3	12	8	13	0	2
부산	3.7	35.1	32.2	10.6	5.4	10.7	0.1	2.2
대구	2.7	31.3	34.7	11.1	5.9	11.8	0.1	2.3
인천	2.7	33.2	33.3	10.9	5.1	11.8	0	3
광주	3.3	36.3	29.9	10.1	6	12	-	2.4
대전	3.4	34.5	29.1	10.8	7	12.6	0.1	2.4
울산	3.1	36.3	34.1	9.2	3.9	12.3	-	1.2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그림 2] 직업선택요인



자료 : 통계청, 『200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2. 여성의 교육

<표 9> 대전지역 성 및 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단위 : 명, %)

	계	일반계	실업계								
			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사	실업	
전국	<여성>										
	2004	63	14.3	88.6	74.3	86	91	96.1	100	100	85
	2005	57	12.5	87.7	75.3	85	90.1	93.2	100	100	86
	2006	52.8	11	87.3	79.4	86.6	88.5	79.2	100	49	85.1
	<남성>										
	2004	56.9	13.8	86.4	75.2	89.6	82.9	96.9	90.6	100	82.4
	2005	47.3	11.8	84.5	72.4	86.4	80.3	92.8	91	100	88.5
2006	40.2	8.9	78.3	75	80.1	68	89	88.8	45.5	88.7	
대전	<여성>										
	2004	77.2	8.3	96.3	77.5	85.8	99.7	-	-	-	-
	2005	64.9	7.7	96.9	39.5	100	99.1	-	-	-	-
	2006	64.2	7.7	98.3	100	100	97.7	-	-	-	-
	<남성>										
	2004	59.3	12.1	75.6	70.7	76.7	61.2	-	-	-	-
	2005	44.7	4.6	74.8	58.1	75.6	-	-	-	-	-
2006	39.1	10.1	71.1	100	68.7	-	-	-	-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표 10>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단위 : % )

	계	고등학교 이하	대학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대학원 이상
< 전 국 >	100	1.3	11.9	67.2	19.6
여 성	100	1.1	13.4	63	22.5
남 성	100	1.3	11.9	67.2	19.6
< 대 전 >	100	0.7	7.9	64.7	26.7
여 성	100	0.4	9.1	58.6	31.9
남 성	100	0.7	7.9	64.7	26.7

자료 :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표 11> 대전지역 전문대, 대학, 대학원 여학생 비율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문대 여학생	15,119	15,764	14,821	14,281	13,649	13,051	13,129
%	39.0	38.0	37.2	37.2	37.3	37.6	37.7
대학 여학생	27,878	29,826	30,497	30,365	29,901	30,412	30,831
%	39.0	38.0	37.2	37.2	37.3	37.6	37.7
대학원 여학생	2,812	3,651	3,834	4,002	4,245	4,645	5,141
%	27.7	31.9	32.3	33.3	34.8	36.6	38.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표 12> 6세 이상 교육정도별 인구 분포

(단위 : 명, %)

	내국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 과정)	대학원 (박사 과정)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여 자									
서울	4,660,085	716,681	569,318	1,503,914	466,841	1,069,263	124,003	21,374	188,691
부산	1,691,101	320,515	258,714	545,427	160,380	286,041	18,744	3,195	98,085
대구	1,159,407	229,210	168,483	350,321	126,028	195,407	14,522	2,510	72,926
인천	1,175,982	225,012	166,165	463,869	108,029	138,654	9,705	909	63,639
광주	664,535	123,635	86,439	205,235	67,535	130,994	9,080	1,796	39,821
대전	671,519	127,410	85,652	204,051	65,754	134,978	14,495	2,681	36,498
울산	472,583	89,709	68,041	179,149	45,324	58,390	3,361	332	28,277
남 자									
서울	4,554,087	535,703	464,400	1,383,272	473,740	1,361,395	200,520	57,272	77,785
부산	1,642,661	229,215	220,567	552,415	167,460	396,671	32,123	10,383	33,827
대구	1,149,149	176,570	148,554	349,920	141,118	272,244	25,559	8,465	26,719
인천	1,178,249	175,478	146,249	454,001	133,663	219,125	20,800	3,474	25,459
광주	649,375	97,136	71,017	183,446	70,488	188,499	16,879	6,190	15,720
대전	670,500	101,346	74,216	183,431	64,640	187,307	29,798	14,359	15,403
울산	499,311	77,527	61,628	190,609	56,099	93,331	6,747	1,365	12,00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

- 주 : 1)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2) 휴학은 재학에 포함

### 3. 정치 및 사회참여

**<표 13>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전국)**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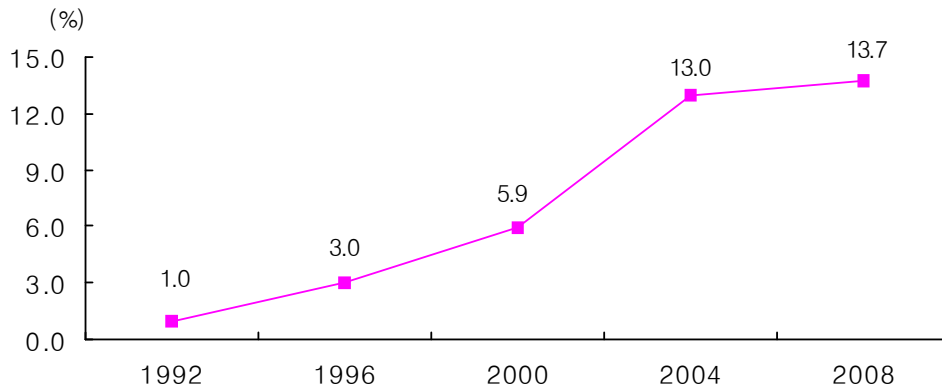
	총국회의원수			총지방의회 의원수		
		여성국회의원수			여성지방 의원수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2	299	3	1.0	-	-	-
1995	-	-	-	5,756	128	2.2
1996	299	9	3.0	-	-	-
1998	-	-	-	4,179	97	2.3
2000	273	16	5.9	-	-	-
2002	-	-	-	4,167	140	3.4
2004	299	39	13.0	-	-	-
2006	-	-	-	3,626	525	14.5
2008	299	41	13.7	-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 DB

주 : 여성국회의원수=지역구의원+ 전국구의원

여성지방의원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 여성 국회의원 비율 >**



<표 14> 여성의 국회에의 참여

(단위 : 명, %)

구 분		대 전 광역시	전 국		전 체	비 고
			지역구	전국구		
1992년 (14대)	전체의원	5	237명	62명	299명	( )안의 내용은 보궐 선거로 인한 변동 사항
	여성의원	0	0(1)명	4(5)명	4(6)명	
	비율	0%	0%(0.4%)	6.5%(8.1%)	1.3%(2.0%)	
1996년 (15대)	전체의원	7	237명	62명	299명	
	여성의원	0	2(3)명	7(9)명	9(12)명	
	비율	0%	0.8%(1.3%)	11.3%(19.6%)	3.0%(4.0%)	
2000년 (16대)	전체의원	6	227명	46명	273명	
	여성의원	0	5명	11(12)명	16(17)명	
	비율	0%	2.1%	23.9%(26.0%)	5.9%(6.2%)	
2004년 (17대)	전체의원	6	243명	56명	299명	
	여성의원	0	10명	29명	39명	
	비율	0%	4.1%	51.8%	13.0%	
2008년 (18대)	전체의원	6	245명	54명	299명	
	여성의원	0	14명	27명	41명	
	비율	0%	5.7%	50.0%	13.7%	

자료 : 대전시, 『대전여성백서』, 2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정보

**<표 15> 지방의회 여성참여 증가 추이(전국)**

(단위 : 명, %)

구 분		합계		광역의원		기초의원	
		여성의원	비율	여성의원	비율	여성의원	비율
95. 6. 27 선거	전국	128	2.3	56	5.8	72	1.6
98. 6. 4 선거	전국	97	2.3	41	5.9	56	1.6
2002. 6. 13 선거	전국	140	3.4	63	9.2	77	2.2
2006. 5. 30 선거	전국	525	14.5	89	11.9	436	15.1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통계 DB.

**<표 16> 지방의회 여성참여 증가 추이(대전)**

(단위 : 명, %)

구 분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95. 6. 27 선거	대전	23	0	0.0	107	2	1.9
98. 6. 4 선거	대전	14	0	0.0	75	1	1.3
2002. 6. 13 선거	대전	19(3)	3(3)	15.8(100.0)	75	1	1.3
2006. 5. 30 선거	대전	19(3)	3(3)	15.8(100.0)	63(8)	10(6)	15.9(75.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통계 DB. ( )안은 비례대표

**<표 17> 연도별 여성의원 참여 목표율 (위촉직 기준)**

연 도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	20%	25%	30%	32%	36%	38%	40%

자료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표 18> 연도별 여성공무원 증가추이(대전)**

(단위 : 명, %)

구 분	1998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6,671	5,893	5,757	6,001	6,183	6,436	6,631	6,784
여 성	1,445	1,358	1,356	1,483	1,612	1,740	1,846	1,933
비율(%)	21.6	23.0	23.6	24.7	26.1	27.0	27.8	28.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표 19> 국·과장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보현황**

(2007. 12. 31 현재, 단위 : 명, %)

구 분	합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5급상당 확보인원							5급이상 확보인원							기관현황			5급이상 확보인원			
	소계	고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고위	1급	2급	3급	4급	5급	전체 기관	확보 기관	비율	계	3급	4급	5급
전 국	1349		1		15	111	122 2	490		1		14	58	417	230	203	88.3	859	1	53	805
서 울	376		1			24	351	160		1			9	150	25	25	100.0	216		15	201
부 산	87				2	9	76	34				1	6	27	16	15	93.8	53	1	3	49
대 구	66					8	58	24					4	20	8	8	100.0	42		4	38
인 천	87				2	8	77	34				2	6	26	10	10	100.0	53		2	51
광 주	51					3	48	17					2	15	5	5	100.0	34		1	33
대 전	49				1	3	45	29				1	3	25	5	5	100.0	20		0	20
울 산	24				1	4	19	13				1	2	10	5	5	100.0	11		2	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08)



**<표 20>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단위 : %)

	계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소계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하겠다	하 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	할 생각이 없다	소계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	하 고 싶지만 지금은 어렵다	할 생각이 없다		
<전 국>											
여 성	100.0	14.0	100.0	72.5	23.8	3.6	86.0	100.0	17.6	57.9	24.5
남 성	100.0	14.6	100.0	72.4	24.9	2.7	85.4	100.0	17.9	57.0	25.1
<대 전>											
남 자	100.0	13.8	100.0	71.1	25.8	3.1	86.2	100.0	18.2	60.4	21.4
여 자	100.0	15.5	100.0	76.8	20.5	2.7	84.5	100.0	17.6	61.5	20.9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 4. 여성의 인권 및 복지

**<표 21> 시도별 기대수명 추이**

(단위 : 세)

	90-95	95-00	00-05	05-10	10-15	15-20	20-25	25-30
남 성								
전 국	68.8	71.2	73.4	75.6	76.6	77.6	78.5	79.4
서 울	71.8	74.2	75.8	77.5	78.3	78.9	79.5	80.2
부 산	69.1	71.2	72.9	74.8	75.9	76.9	77.9	78.9
대 구	69.5	71.5	73.3	75.5	76.4	77.4	78.3	79.2
인 천	69.9	72.0	73.7	75.7	76.7	77.6	78.5	79.4
광 주	69.1	71.8	73.8	75.9	76.9	77.7	78.6	79.4
대 전	69.9	72.3	74.1	76.2	77.1	77.9	78.8	79.6
울 산	-	70.9	72.6	74.7	75.8	76.8	77.8	78.8
여 성								
전 국	76.7	78.8	80.5	82.4	83.3	84.2	85.1	85.9
서 울	77.6	80.1	81.7	83.7	84.4	85.1	85.8	86.4
부 산	76.5	78.2	79.7	81.5	82.6	83.6	84.6	85.5
대 구	76.7	78.7	80.1	82.2	83.2	84.1	84.9	85.8
인 천	76.8	78.8	80.4	82.3	83.3	84.2	85.0	85.8
광 주	76.7	79.1	80.7	82.9	83.8	84.6	85.4	86.1
대 전	76.9	79.0	80.6	82.7	83.6	84.5	85.3	86.0
울 산	-	77.8	79.7	81.4	82.6	83.6	84.6	85.5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7

주 : 기대수명은 해당기간별 연평균임

**<표 2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현황(수급자 종류별, 시도별)**  
(단위: 가구, 명)

구 분	계		일반 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남	녀	인원	인원
2001	698,075	1,419,995	698,075	567,025	778,501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691,018	533,167	742,458	1,275,625	75,560
2003	717,861	1,374,405	717,861	541,233	751,457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753,681	562,074	775,640	1,337,714	86,374
2005	809,745	1,513,352	809,745	604,255	821,429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831,692	616,521	833,311	1,449,832	85,118
서 울	107785	200359	107785	78624	107310	185934	14,425
부 산	73933	135407	73933	55733	72499	128232	7,175
대 구	46147	93475	46147	37033	50471	87504	5,971
인 천	36727	69525	36727	28012	38342	66354	3,171
광 주	28255	60804	28255	24247	33458	57705	3,099
대 전	22,152	45,026	22,152	18,188	23,746	41,934	3,092
울 산	11,133	19,632	11,133	8,328	10,507	18,835	797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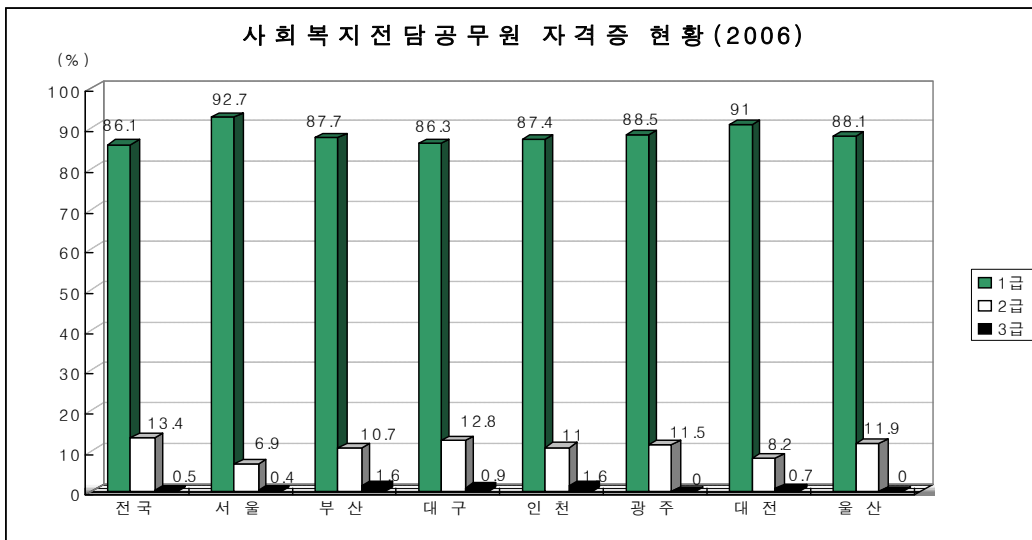
<표 2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격증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원	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	3급
2001	5,444	4,987	4,246	546	195
2002	7,144	6,738	5,823	776	139
2003	7,144	6,977	6,127	751	99
2004	7,159	7,136	6,306	772	58
2005	9,738	9,094	7,860	1,163	71
2006	10,205	9,805	8,446	1,312	47
서울	1165	1102	1022	76	4
부산	721	707	620	76	11
대구	454	439	379	56	4
인천	452	444	388	49	7
광주	270	261	231	30	0
대전	278	268	244	22	2
울산	145	143	126	17	0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그림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격증 현황(200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7

**<표 24> 대전시의 유형별 보육시설 수(2005~2007)**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소계	법인의외	민간 개인			
2005	977 (100.0)	28 (2.9)	43 (4.4)	369 (37.8)	29 (3.0)	340 (34.8)	0 (0.0)	525 (53.7)	12 (1.2)
2006	1,072 (100.0)	29 (2.7)	44 (4.1)	389 (36.3)	26 (2.4)	363 (33.9)	1 (0.1)	595 (55.5)	14 (1.3)
2007	1,185 (100.0)	28 (2.4)	44 (3.7)	420 (35.4)	24 (2.0)	396 (33.4)	1 (0.1)	677 (57.1)	15 (1.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5~2007

주 : 연도별 12월말 기준임.

**<표 25> 규모별 보육시설 현황(2006)**

(단위 : 개소)

구 분	계	1-20명	21-30명	31-39명	40-65명	66-91명	92-117 명	118-144 명	145-171 명	172명 이상
2002	22,147	8,114	3,491	4,456	2,043	1,917	1,050	533	253	290
2003	24,142	9,149	3,621	4,832	2,192	2,057	1,124	567	296	304
2004	26,903	10,881	3,409	5,188	2,626	2,177	1,263	668	341	350
2005	28,367	11,627	3,327	4,937	3,148	2,436	1,415	711	358	408
2006	29,233	12,115	2,992	4,797	3,507	2,683	1,548	743	416	432
서울	5,508	2,270	657	921	710	525	226	91	61	47
부산	1,592	501	254	269	219	169	77	42	31	30
대구	1,239	363	165	268	144	100	87	52	32	28
인천	1,385	601	161	243	160	85	58	32	23	22
광주	1,050	537	18	94	136	101	44	49	33	38
대전	1,072	600	95	153	101	71	29	15	2	6
울산	580	163	85	139	76	59	26	13	7	12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웹 DB

주 : 2002년, 2003년, 2004년에서 규모 '1-20명'은 '1-19명', '21-30명'은 '20-30명'임.

<표 26> 직장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교사수	비고
		보육정원	보육현원		
전국	320	20,783	15,124	1,926	
서울	83	5,204	3,958	533	
부산	13	743	513	69	
대구	12	669	453	52	
인천	22	961	839	112	
광주	11	630	390	46	
대전	15	1,152	1,039	113	
울산	10	740	577	88	
경기	77	5,728	4,387	589	
충남	16	1,156	612	63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주 : 2007. 12. 31 현재 기준임

<표 27>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보육아동		종사자			
		정원	현원	계	보육교사	취사원	기타
전국	2,867	94,635	17,084	3,036	2,895	82	59
서울	536	22,068	,2654	522	459	35	28
부산	145	3,936	743	153	150	1	2
대구	132	5,017	672	125	124	-	1
인천	120	1,698	728	121	120	-	1
광주	74	5,013	333	63	57	-	6
대전	108	661	523	107	99	-	8
울산	59	334	247	52	52	-	-
경기	518	18,529	3,135	536	536	-	-
충남	98	3,031	747	112	109	1	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주 : 2007. 12. 31 현재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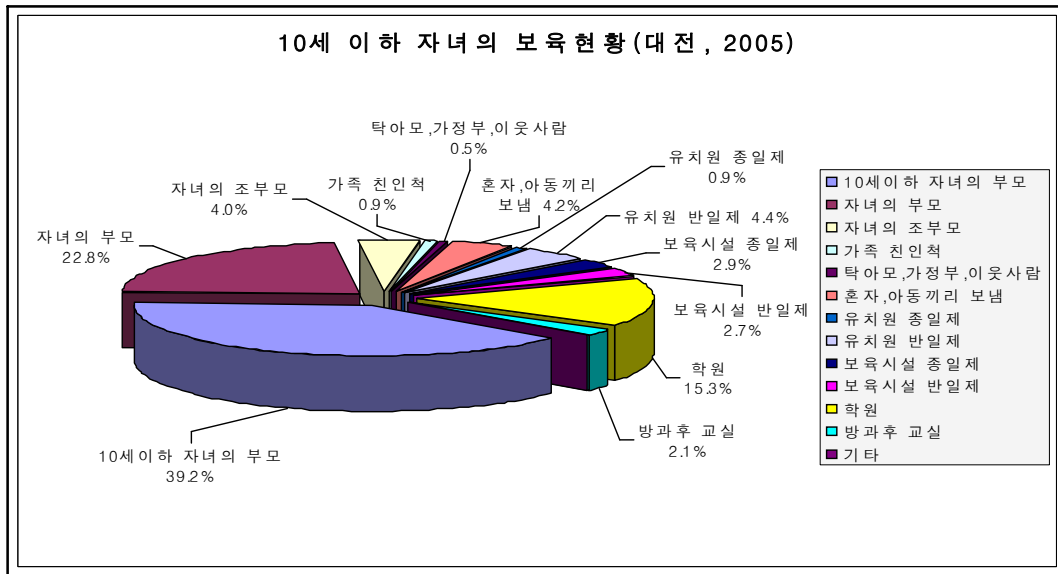
<표 28> 만 10세 이하 자녀의 보육현황(복수응답)

(단위 : %)

	10세 이하 자녀	자녀의 부모	자녀의 조부모	가족 친인척	탁아모, 가정부, 이웃 사람	혼자, 아동끼리 보냄	유치원 종일제	유치원 반일제	보육시설 종일제	보육시설 반일제	학원	방과후교실	기타
전국	100	60.5	14.2	2.8	1	9.2	4.1	9.7	6.7	7.3	33.1	4.3	0.1
서울	100	60.4	17.4	3.2	2.2	8.2	4.6	10.4	7.1	5.6	27.9	2.8	0.1
부산	100	66.8	14.2	2.7	0.8	10	3.5	11.8	4.4	8.1	35.9	4.3	0
대구	100	62.1	15.4	2.9	0.1	8.7	3	8.2	3.6	9.2	41	3	0.5
인천	100	60.7	14.1	2.6	0.8	6.8	4.2	12.4	4.4	5.4	30.2	4.5	0.1
광주	100	50.7	16.2	2.7	1.3	8.7	5.4	9	5.8	7.6	37.7	5.5	0
대전	100	58.2	10.3	2.3	1.3	10.8	2.3	11.1	7.4	6.9	39.1	5.4	0
울산	100	68.2	11	1.8	0.5	7.7	3	7.9	4.1	10.2	41.2	6	0
경기	100	63.7	12.2	3	0.6	9.2	3.3	10.4	5.5	7.8	32.7	4.6	0.1
충청	100	54.8	17.3	2.3	1	9.4	4	7.5	12.6	7.3	32	3.9	0.4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그림 4] 10세 이하 자녀의 보육현황(대전, 200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표 29> 보육기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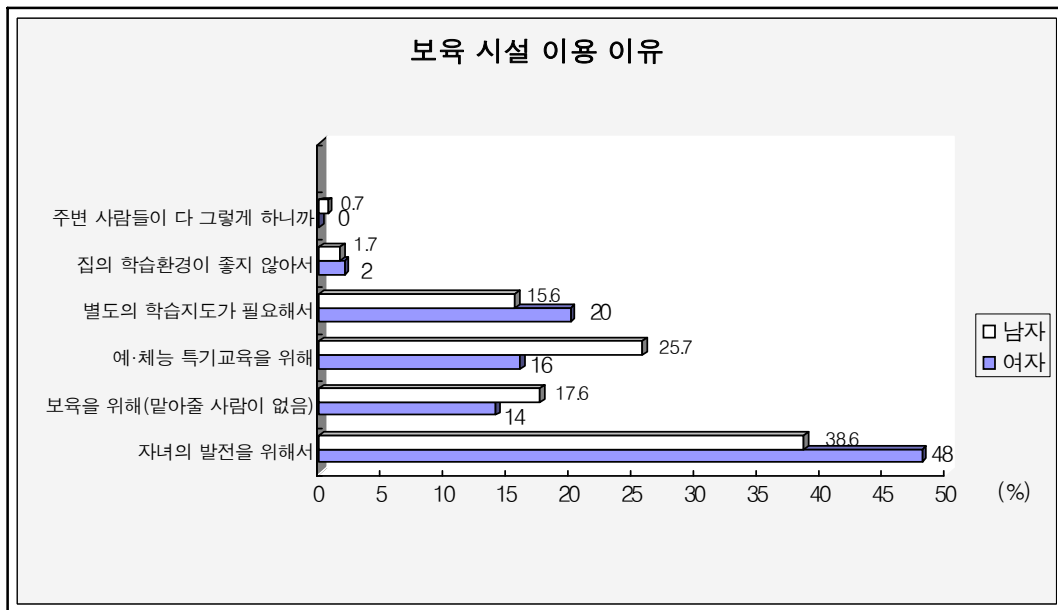
(단위 : %)

	1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국	100.0	9.6	36	44.4	9.3	0.7
서 울	100.0	10.7	38.2	43.0	7.3	0.8
부 산	100.0	6.1	32.6	49.2	12.1	0.0
대 구	100.0	6.4	39.7	44.8	8.8	0.2
인 천	100.0	11.8	34.5	44.9	8.4	0.5
광 주	100.0	8.7	32.7	47.3	10.3	1.0
대 전	100.0	10.2	42.8	41.6	4.8	0.6
울 산	100.0	10.7	35.3	43.0	10.3	0.7
경 기	100.0	9.5	32.0	46.1	11.6	0.7
총 청	100.0	13.5	37.5	37.8	10.4	0.8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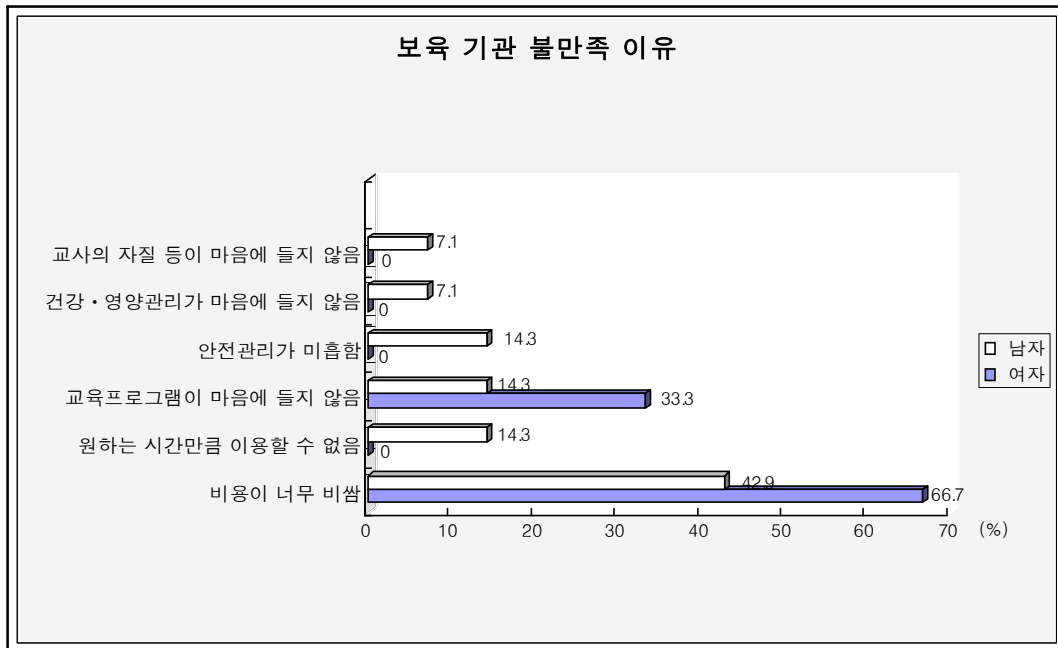
주 : \* 10세 이하 자녀의 부모-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보육기관 이용 가구

[그림 5] 보육 시설 이용 이유(대전, 200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그림 6] 보육 기관 불만족 이유(대전, 2005)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2008-15

---

### 연구

---

발행인 육 동 일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22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TEL 042-○-○ FAX 042-○-○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